

최종보고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근로형태 및 실태조사

2017년 10월

 대전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제 출 문

대전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장

본 보고서를 “대전광역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근로형태 및 실태조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서 제출합니다.

2017년 10월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신 영 철
/공학박사

목 차

□ 요약

I. 조사개요	1
1. 용역 개요	1
2. 설문작업 관련 진행 현황	3
3.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3
II. 건설노동자 일자리 실태	5
1. 2016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5
가. 조사개요	5
나. 주요 조사내용	5
2. 건설현장 노동력 현황 조사	11
가. 건설현장 노동력 조사	11
나. 설문조사 결과 : 건설근로자 대상	12
3. 건설노동자 임금 등 실태조사	14
가. 설문개요 및 조사목적	14
나. 주요 설문내용	15
III. 대전지역 일용건설노동자 실태조사 및 분석	19
1. 응답자 일반사항	19
2. 설문응답에 대한 분석	29
[임금 및 수입 관련]	29
[임금등락 및 복지제도 관련]	40
[고용 및 기능훈련 관련]	47

[건설기능인력 및 외국노동자 관련]	60
[정책제안 관련]	67

IV. 설문조사 분석결과 및 정책제안 등 73

1. 설문조사 분석결과 정리	73
가. 설문응답자 일반사항	73
나. 임금 및 수입관련	74
다. 임금등락 및 복지제도 관련	76
라. 고용 및 기능훈련 관련	78
마. 건설기능인력 및 외국노동자 관련	80
바. 정책제안 관련	82
2. 본 설문조사의 의미 및 정책제안	83
가. 설문조사 배경	83
나. 설문조사결과와 시중노임단가 비교	83
다. 정책제안	85

<부록>	89
------------	----

<요 약>

I. 조사개요

- 과 업 명 : 대전광역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근로형태 및 실태조사
- 과업기간 : 2017년 4월 1일 ~ 2017년 10월 31일
-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대전광역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근로형태 및 실태를 조사하여, 대전지역 건설산업 정책개발 및 대안 마련에 목적이 있음.

II. 건설노동자 일자리 실태조사 사례

1. 2016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 조사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www.cwma.or.kr)
- 조사기간 : 2016. 9월 ~ 11월
- 조사발표 : 2017. 4. 4. (보도자료)

2. 건설현장 노동력 현황 조사

- 조사용역 수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조사 기간 : 2015. 7. 1 ~ 7. 31
- 조사 방법 : 노사단체에 의한 직접 면접을 통한 자계식 조사

3. 건설노동자 임금 등 실태조사

- 조사기관 : 민주노총 건설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www.kcwu.or.kr)
- 조사기간 : 2015. 06. 20. ~ 07. 31.
- 설문지 855배포 후 489부 수거
- 조사 방법 : 건설노조 지부를 통한 직접 설문조사

III. 대전지역 일용건설노동자 실태조사 및 분석

1. 설문응답자 일반사항

▶ 연령

- 응답자 중 50대가 4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가 32.1%로 많았음.

- 20대는 2.1%, 30대는 4.8%에 불과하여 젊은층의 건설산업 참여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55.1세로 나타남.
- ▶ 현장경력
 - 평균경력은 18.3년이었음.
 - 건설현장 시작 평균연령은 40.5세로서,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연령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음.
- ▶ 최근현장
 - 응답자의 68.9% 아파트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주택·상가현장도 19.3%임. 응답자 10명 중 9명(89.2%)이 건축현장에서 종사하고 있었음.
- ▶ 현재 직종
 - 형틀목공이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56.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철근공이 30.3%이었음. 응답자의 경우 직종의 쏠림현상이 있음. 한편 「2016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는 보통인부(일반공)가 가장 많은 13.7%이었음.
- ▶ 작업능력 수준
 - 기능공 66.4%, 팀장·반장 11.6%이었음.
- ▶ 부양가족수 및 주거형태
 - 본인을 제외한 평균 부양가족수는 2.5명임.
 - 주거형태는 절반이상인 53.6%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 빚
 - 응답자의 60% 정도가 빚을 갖고 있었으며, 평균 빚 규모는 3,594만원임.

2. 임금 및 수입관련

<설문 1-1>

- 현재 거주지가 대전지역이라는 응답자가 76.4%로서 거의 대부분이었음. 대전지역 응답자의 응답결과가 전체 응답내용 결과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음.

<설문 1-2>

- 설문응답자 중 주된 작업현장이 대전지역이라는 응답은 22.8% 뿐이고, 오히려 세종 및 인근지역이 70.9%로 가장 많았음.

<설문 2>

- 응답자의 95.8%(=90.4%+5.4%)가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는 매일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가장 열악한 직종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로 인식되는 비정규직(이들의 임금은 월급제임)보다도 더 열악한 일자리임을 알 수 있음.

<설문 3>

- 일용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응답이 57.8%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큼.

<설문 4>

- 임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44.0%가 노동조합이라고 응답하였는 음.

<설문 5-1>

- 작업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일당은 18~18.5만원 39.1%, 19~19.5만원 35.2%로서 약 75%가 18~20만 원 정도 일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시중노임단가와 같이 8시간 기준으로 직종별 일당을 환산하면, 철근공 17.4만원, 건축목공 16.5만원, 형틀목공 16.2만원, 미장공 17.4만원이었음.
- 설문조사 일당과 설계공사비로 활용되는 시중노임단가(2017년 하반기)와 비교한 결과,
 - 설문조사 일당과 시중노임단가[b]를 작업시간 고려없이 단순비교하면, 설문조사 일당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대부분 높았음.
 - 그러나 8시간으로 환산한 설문조사 일당[a]은 보통인부와 미장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았음. 이는 외형상 건설현장의 일당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 일당기준인 8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일당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하겠음.

구 분		형틀목공	건축목공		배관공	용접공	전공	미장공
설문조사 일당	13.1	17.9	18.4	19.5	13.5	15.0	15.0	18.4
8시간환산 일당 [a]	11.3	16.2	16.5	17.4	12.2	14.2	12.9	17.3
시중노임단가 [b] (2017년 下)	10.7	17.9	16.9	18.0	14.3	16.3	19.1	17.0
비율 [a]÷[b]×100%)	106%	91%	98%	97%	85%	87%	68%	102%

<설문 5-2>

- 월평균 임금이 300~400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51.0%), 평균월급은 339.3만원임.

<설문 6>

- 8시간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지급받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9.1%로 거의 절반에 해당함. 건설노동자는 절대다수가 일용직이다보니 주말작업이라하여 일당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됨.

<설문 7>

- 2016년도의 임금수입에 대하여는 2~4천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임금수입은 2,827만원임.

3. 임금동락 및 복지제도 관련

<설문 8>

- 만족한다는 응답은 14.2%(매우만족 2.2%, 만족 12.0%)이고, 반면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55.3%(불만족 40.0%, 매우불만족 15.3%)로서, 4배 정도의 차이가 있음.

<설문 9>

- 적절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평균 4.4만 원 정도는 높아져야 한다는 응답이었음. 응답예시를 인상비율이 아닌 인상금액으로 제시하다보니, 단체협약 시 약 1만 원 정도 인상에서 합의되는 수준이 고려되어 2만원 정도 인상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던 것으로 판단됨.

<설문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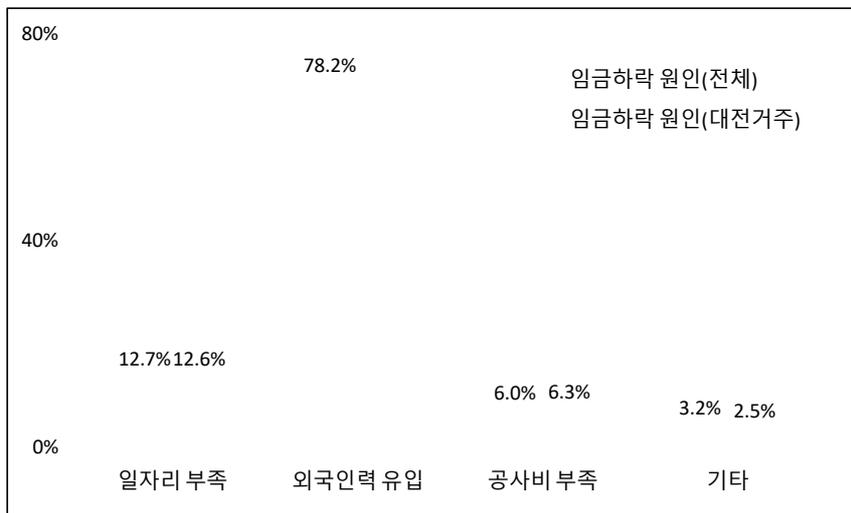
- 평균 임금인상률은 9.6%로서, 년평균 인상률이 2%에 약간 못 미침. 이러한 임금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서, <설문 8> 등의 임금관련 설문내용에 대하여 높은 불만을 표시하는 응답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설문 11-1>

- 임금인상이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응답이 63.6%로 가장 많았는데, 비조합의 경우에도 노조 단체협약의 결과로서 임금(일당)이 인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됨. 기타 응답으로는 '물가상승'이란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임금이 인상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임금인상된 것이 아니라는 응답내용으로 이해됨.

<설문 11-2>

- '외국인력 유입'을 임금이 인상되지 못한 압도적 원인으로 응답하였음(78.2%). 그 다음으로 일자리 부족을 임금 미인상 원인으로 응답하였는데, 불법취업자들에게 건설일자리가 불법적으로 넘어가서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외국인력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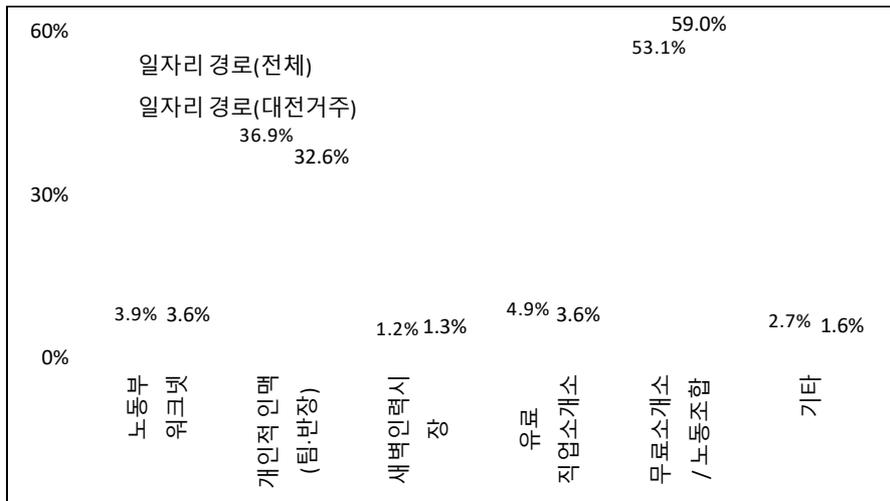
<설문 12>

- 퇴직공제부금의 가입 응답률은 77.0%, 고용보험 가입응답률은 71.9%, 산재보험 가입응답률은 71.3% 이었음. 이들 3가지 제도는 건설노동자에게 직접적 가입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률 응답이 나온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직장가입 응답률은 각각 26.4% 및 21.1%로서 매우 낮았음.

4. 고용 및 기능훈련 관련

<설문 13>

- 일용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료소개소(노동조합)이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53.1%이고, 그 다음으로 전통적인 방식인 개인적인맥(팀·반장)이 36.9%로 여전히 높았음.



<설문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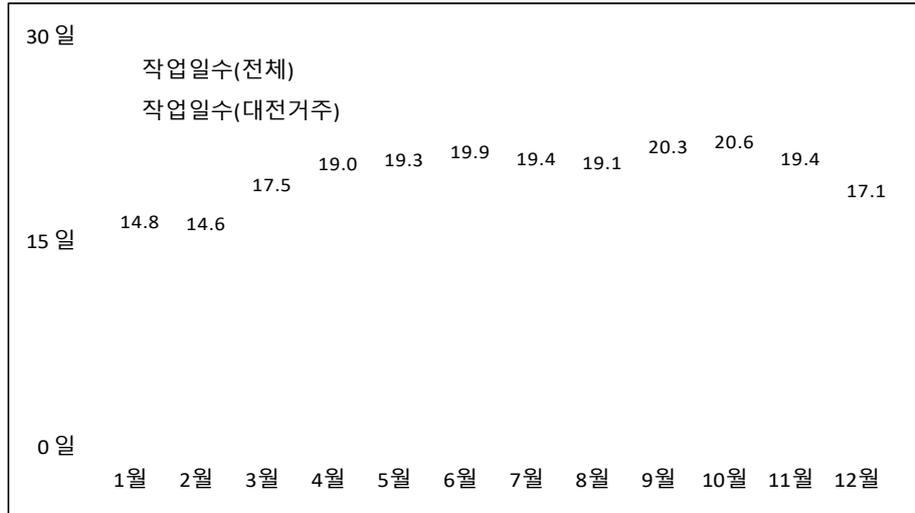
- 실제 소속에 대한 응답에서는 하도급업체 소속이 77.3%이고, 도급팀(팀·반장)이 13.6%인 반면 원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하였음. 즉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철저히 하도급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재차 알 수 있음.

<설문 15>

- 최근 근무한 건설현장은 평균 1.8개 이었고, 절반이상이 2개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응답함.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이 일당방식으로 일자리를 얻다보니, 잦은 현장이동이 발생하고 있었음. 이를 1년으로 단순환산하면 약 10.6개 현장으로 옮겨다니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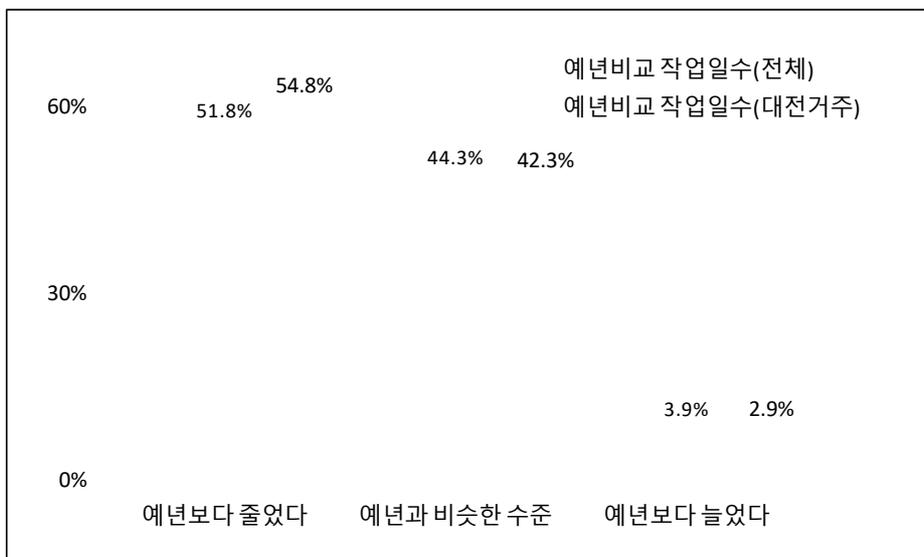
<설문 16>

- 설문응답자의 연평균 작업일수는 222.4일로서 월평균 18.5일 이었음. 월별로 보면 4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19일보다 많은 반면, 동절기(12월~2월)는 평균에 훨씬 밑돌아 전체 작업일수 하락의 주원인이었음.



<설문 17>

- 예년과 비교한 근무일수가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4.3%이었으나, 반면 예년보다 줄었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한 51.8% 이었음.



<설문 18>

- 구직이 어려운 원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력 선호 58.7%, 건설경기 하락 14.9%, 고령화 13.4%로서, 외국인력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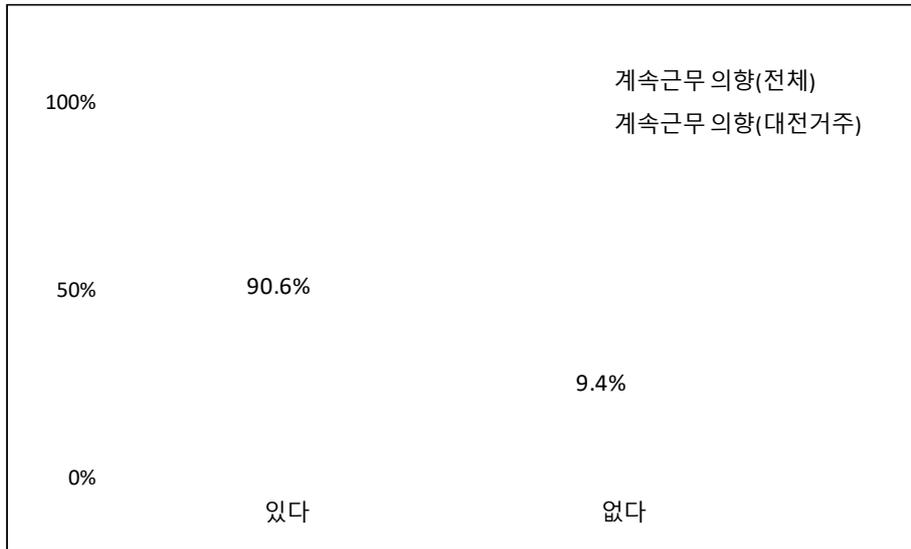
<설문 19-1>

- 건설현장 이외의 직종 근무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0명 중 6명꼴에 해당하는 59.7%가 다른 직종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건설현장에서 40

대 이상의 신규진입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건설현장은 실직한 40대 가장들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설문 19-2>

-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건설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를 설문하였음. 응답결과 90.6%가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낮은 사회적인식과 달리 건설현장으로 진입한 일용노동자들의 정주인식이 높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음.



<설문 20-1>

- 기능훈련을 받은 응답자는 14.9%에 불과하였는데, 여전히 건설현장에서의 기능전수가 개별적 인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설문 20-2>

- 3년 이내에 기능훈련을 받은 횟수는 1~2회가 대부분으로 기능훈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설문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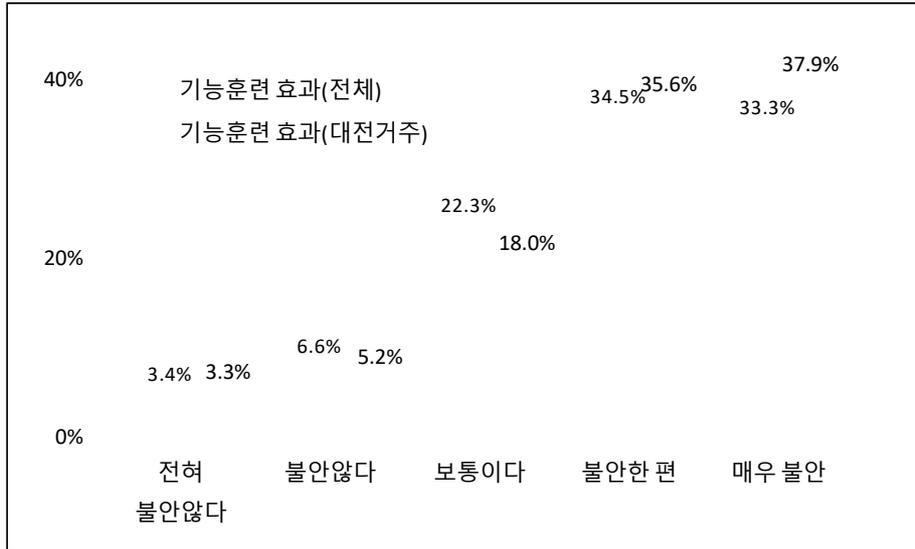
- 기능훈련의 효과로 기능향상 33.3%, 일자리증가 28.3%로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응답결과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음. 한편 기능훈련이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23.3%로 매우 높게 나왔는데, 기능훈련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라도 내실화 및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함을 의미함.

<설문 22>

- 기능훈련 직종에 대하여는 형틀목공 40.7%, 철근공 25.5%로서 일반사항 설문주직종의 분포와 비슷하였음. 응답자의 9.5%는 특정 직종에 대한 선호가 없었음.
- 기타응답으로 방수공, 한옥, 인테리어 및 내장 등 다양하였음.

<설문 23>

- 고용불안 정도에 대하여 불안하다라는 응답이 67.8%(불안한 편이다 34.5% + 매우 불안한 편이다 33.3%)로서, 불안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10.0%(전혀 불안하지 않다 3.4% + 불안하지 않다 6.6%)의 7배 정도로 높았음.
- 본 설문응답결과를 5점 척도로 산정한 결과, 3.9점으로써 매우 불안한 상태에 근접되어 있었음.



5. 건설기능인력 및 외국인노동자 관련

<설문 24>

- 건설기능인력 숙련공이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84.2%로서 압도적으로 많았음.
- 기능인력 부족은 임금과 연동될 것임. 기능공이 부족하다보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임금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설문 25>

- 현실적으로 일용노동자들은 기능인력이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92.0%(= 38.1%+ 53.9%)로 여전히 압도적이었음.

<설문 26>

- 기능인력 감소 원인에 대한 1개 선택 설문항목이었으나, 중복응답이 매우 많았음.
- 외국인노동자 대체가 기능인력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였고(51.7%), 반면 낮은 수입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응답은 8.5%에 불과하였음. 내국인 기능인력이 젊은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경쟁을 하다보니, 내국인 기능인력이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임.

<설문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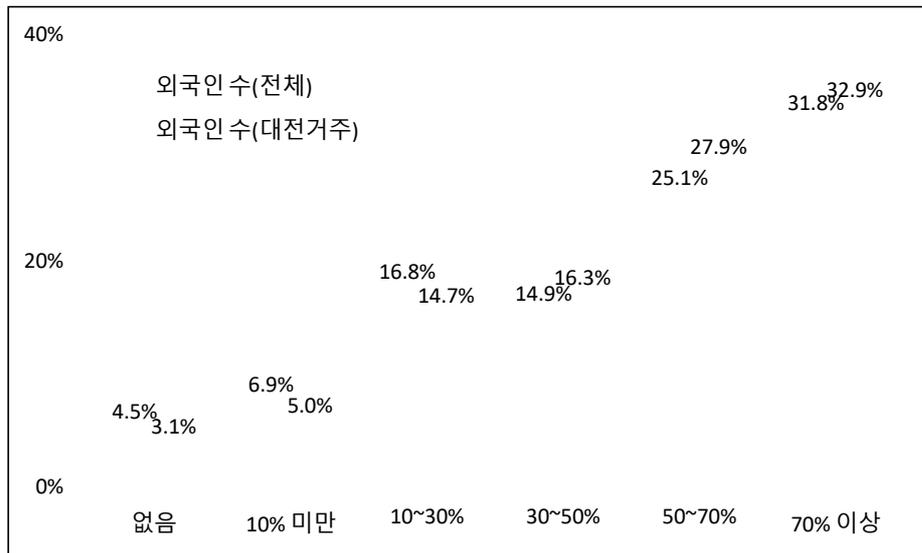
- 외국인력 유입 정도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늘었다 70.7%, 어느 정도 늘었다

17.1%로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외국인력 유입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설문 27-2>

- 외국인력 투입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전체 출력인원 대비 투입율이 높다는 응답비율이 같이 증가하는 동조화를 보이고 있음. 특히 70%이상 응답이 31.8%로 가장 높은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판단됨.

* 응답결과 : 없음(4.5%) → 10%미만(6.9%) → 10~30%(16.8%) → 30~50%(14.9%) → 50~70%(25.1%) → 70%이상(31.8%)



- 설문응답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외국인력 투입비율을 추정한 결과, 전체 출력인원의 50.2%가 외국인력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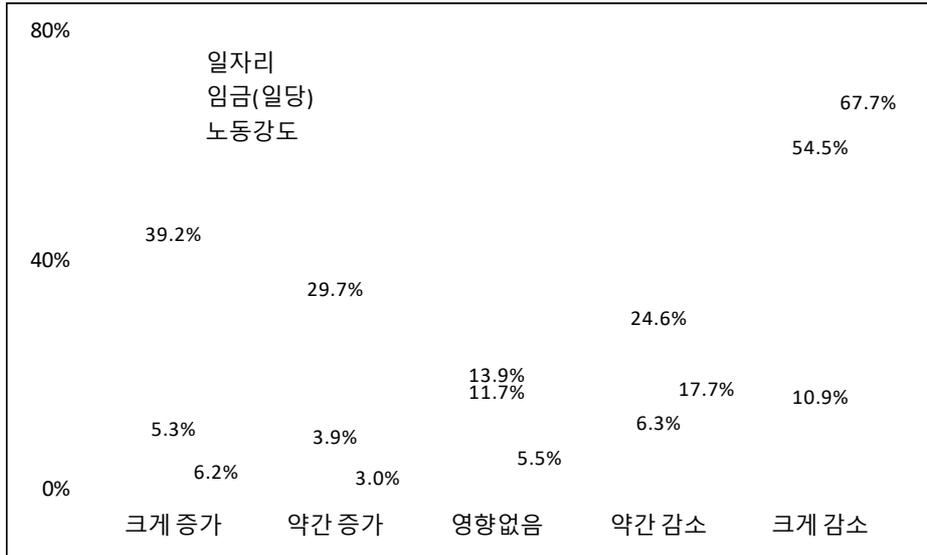
<설문 28>

- 2개 복수응답의 설문항목으로 첫째 응답에서는 젊은 나이가 4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높은 순응도가 29.5% 이었음. 둘째 응답에서는 낮은 임금이 압도적인 90.2%로 높았음. 합계 응답 831개로 분석한 결과 역시 낮은 임금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젊은 나이 24.9% 및 높은 순응도 17.7%로 이들 3가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음.

<설문 29>

- 건설현장은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산업부문인데, 이에 대하여 내국인 일용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영향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음. 응답결과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가장 심각하였고(67.7%), 임금에 대한 부정적평가 역시 높았으며(54.5%), 노동강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39.2%).
-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일자리는 비숙련공인 외국인노동자에 의하여 가장 쉽게 잠식당하는 일자리이나, 법과 제도를 관장하는 입법부 및 행정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정치인과 공직자 일자리들은 외국인노동자가 합법적으로라도 침해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더구나 불법적 잠식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현장 불법취업자에 대한 대응책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6. 정책제안 관련

<설문 30>

- 2개 복수응답으로 설문으로 첫째 응답에서는 합당한 임금이 5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안정적 일자리가 21.8% 이었음. 둘째 응답에서는 원도급 직접고용이 29.6%로, 다음으로 노동환경 개선이 28.4% 순이었음. 합계 응답 848개로 분석한 결과 합당한 임금 30.3%, 원도급 직접고용 21.0%, 안정적 일자리 20.4%,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이 15.0%로서 두자리 비율을 차지하였음.

<설문 31>

-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자체(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5가지(① 지역 건설노동자 정기적 실태조사, ② 공공부문에서 취업기관 운영, ③ 기능훈련기관 설립, ④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제 도입, ⑤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 근절)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하였음.
- 설문응답결과를 5점 척도로 비교하면 제시한 5가지 사업 모두가 4점을 상회하였는데, 이는 모두 매우 필요하다는 결과이었음. 그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자 근절(4.42점)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제 도입(4.30점) 또한 높았음. 5점 척도가 가장 높은 2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일자리 보장과 직결되는 사업임.

IV. 설문조사 분석결과 및 정책제안 등

건설현장은 청년실업 해소 및 40대 가장들의 최후 보루로서, 추가적 비용투입없이도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부문임. 이에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건설현장을 일자리정책의 중대한 한 분야로 설정하고, 건설현장이 높은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노동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해야함.

본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대전광역시의 정책대안으로 후술하는 네 가지 정도의 정책방안을 제시함. 먼저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지급여부 확인·감독, 취업지원센터 및 기능훈련학교 설립·운영, 그리고 가장 시급한 정책제안으로 조사·분석된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근절 정책제안임.

(1) 시중노임단가의 실제 지급여부 확인·감독

- 금번 대전광역시의 설문조사결과, 1일 8시간으로 환산한 일당의 경우 시중노임단가와와의 편차가 $\pm 10\%$ 에서 위치하고 있었음. 이는 아마도 전국 평균임금인 시중노임단가와 달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일용노동자 임금을 조사하여 다소 편차가 있었다고 판단됨.

(2) 무료취업지원센터 설립·운영

- 금번 설문조사는 일자리와 관련된 조사항목이 다수 있음.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또한 임금노동자이므로, 임금수입이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음.
- 먼저 일자리 경로는 무료직업소개소와 노동부 워크넷이 각각 53.1% 및 3.9%로 약 60%에 육박하나, 그 외 40%정도는 개인적 인맥이나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자리를 얻는다고 응답하여 건설노동자의 상당수가 일자리 확보에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53.1%가 무료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자리를 얻고 있다고 하나, 응답자의 대다수가 고용불안이 불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안정적이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설문 31>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공공취업기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었음. 한편 공공취업기관의 운영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제 및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근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용노동자들의 응답결과임.

(3) 건설기능훈련학교 설립·운영

- <설문 4>에 따르면 임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노동조합을 제외하면 '자신의 기능'이라는 응답이 36.4%로 두 번째로 높았음. 기능정도가 임금

결정에 실질적 요인임은 분명함.

-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건설기능인력 양성방식은 건설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체계적인 훈련기관이 매우 드문 실정임.
- <설문 31>의 응답결과에서도 기능훈련기관 설립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고 시급하다는 응답하였음.

(4)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불법적 일자리잠식 근절

- <설문 29>는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일용노동자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문항인데, 응답결과를 보면 일자리가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85.4%(약간 감소 17.7% + 크게 감소 67.7%)로서 건설현장에서 느끼는 외국인노동자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현재 합법 외국인 노동자는 건설업 취업등록제(H-2) 최대 5.5만명 및 고용허가제(E-9) 최대 1.2만명의 합계 6.7만명에 불과하고, 금번 설문에서처럼 내국인 일용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외국인노동자는 합법이 아닌 불법취업자를 가리키는 것임.
-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자체(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5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설문응답결과를 5점 척도로 비교하면 제시한 5가지 사업 모두가 4점을 상회하였음. 특히 그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자 근절(4.42점)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제 도입(4.30점) 또한 높았는데, 이는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이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가장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임.

- 이 상 -

I . 조사개요

1

용역 개요

○ 과업명 : 대전광역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근로형태 및 실태조사

○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대전광역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근로형태 및 실태를 조사하여, 대전지역 건설산업 정책개발 및 대안 마련에 목적이 있음. 아울러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건설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등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 파편화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일용노동자들은 급격한 고령화, 위험한 작업환경, 불법 외국인노동자로 인한 일자리감소, 수입감소 및 임금체불 등의 2~3중고를 겪고 있음. 이로 인한 청년층 진입감소로 숙련공 부족현상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음.
- 정부가 직접 건설일용노동자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일부 연구기관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전국건설노동조합에 의해서도 시계열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정착되어 있지 않음.
- 대전지역 건설노동자를 위한 지역적 대안마련을 위해서는, 대전 및 대전인근지역 건설현장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노동자 실태조사가 필요함. 이에 대전지역 건설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로형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임금 및 일자리 등과 관련된 문제점 및 원인분석을 통해 실효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금번 본 실태조사는 대전광역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실태를 최초로 조사·분석한 사례로서, 건설일용노동자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고

용안정을 위한 대안 발굴, 근로형태 파악으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역적 대안 발굴 및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 고용증진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음.

○ **과업기간 : 2017년 4월 1일 ~ 2017년 10월 31일**

○ **과업내용**

(1) **설문지개발**

- 조사대상은 대전지역 거주자를 위주로 실시하고, 주된 작업장소 또한 대전지역 및 세종시 등 인근을 대상으로 함.
- 설문내용은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근로형태 전반에 대한 설문문항 개발
 - 응답자 일반사항
 - 임금 및 수입 관련
 - 임금등락 및 복지제도 관련
 - 고용 및 기능훈련 관련
 - 건설기능인력 및 외국인노동자 관련
 - 정책제안 관련
- 향후 시계열 분석을 고려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하여 설문지 수정·보완함

(2) **업무범위 및 일정계획**

업무내용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건설경제연구소	수행기간
설문지 개발		○	○ (주도적)	4/1~4/30
설문지 배포 및 수거		○	×	5/1~6/30
설문지 입력		○	×	7/1~7/15
보고서 작성	설문 분석	×	○	7/16~10/31
	중간+최종	×	○	

(3) **조사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2

설문작업 관련 진행 현황

○ 설문지 개발(비정규직 지원센터+건설경제연구소)

- 2017. 4. : 건설노동자 임금생활실태 설문문항 초안 작성
- 2017. 5. : 설문문항 검토 및 최종 확정
 - 설문응답 및 수거관련 유의사항 전달

○ 설문지 배포 및 수거(비정규직 지원센터)

- 2017. 5. : 설문지 배포
- 2017. 7. : 설문지 1차 수거
- 2017. 8. : 설문지 2차 배포·수거 완료 - 총 437부 수거
 - 설문지 수거지역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세종시 등에서 설문답변 받음

cf) 본 용역의 설문지 배포 및 수거는 대전광역시 건설노동조합에서 수행하였음.

○ 설문입력 및 분석

- 2017. 8. : 설문지 입력(비정규직 지원센터)
- 2017. 10. 17. : 중간보고서 제출(건설경제연구소)
- 2017. 10. 25. : 중간보고서 설명·보고(건설경제연구소)
- 2017. 10. 31. : 최종보고서 제출(건설경제연구소)

3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소개

-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2015년 7월에 설치되었고, 민주노동당 대전지역본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음.
- 노동 분야 전문가 및 노무사와 함께 비정규직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연혁

- 2014. 04. 01.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15. 07. 01.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민주노총 대전 지역본부에서 위탁 운영)
- 2015. 08. 30.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식

○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주요 사업

• 법률상담무료지원

- 최저임금 위반
- 부당한 업무지시
- 성별, 연령, 담당업무, 고용형태 차이의 사유로 인한 차별처우
- 임금 체불
- 온라인 / 이동 / 현장장문 상담
- 법률, 구제신청,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지역 노동 네트워크를 통한 상담 인프라 구축

• 법률 상담 무료 지원노동 조건 및 환경 실태조사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환경 통계분석·연구

• 제도 개선 정책 연구

-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차별해소, 처우개선 토론회
- 비정규직 권익 보호 대안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권리홍보 및 복리 향상

- 최저임금 홍보 및 캠페인
- 비정규직 권리 보호 캠페인
- 권리 찾기 노동인권교육 무료 지원
- 고용차별(성별, 연령, 담당업무, 근로형태 등)에 대한 감시 및 실태조사
- 비정규직 차별 철폐 문화제

• 취업 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 취업 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 무료 취업센터 및 일자리 지원센터 연계

Ⅱ. 건설노동자 일자리 실태조사 사례

1 2016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가. 조사개요

- 조사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www.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996. 12. 31.제정(1998. 1. 1. 시행)

제3장 공제사업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7.25.>

⑤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1.7.25.>

- 조사대상 : 최근 1년 이내 근로기록이 있는 퇴직공제가입 건설근로자 2,000명
- 조사기간 : 2016. 9월 ~ 11월
- 조사내용 : 구직환경, 작업능력, 교육훈련현황, 현장근로실태, 복지수요, 직업만족도 등
- 조사방법 : 방문 설문조사
- 조사발표 : 2017. 4. 4. (보도자료)

나. 주요 조사내용

- * '2016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가 공제회 홈페이지로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음.

(1) 구직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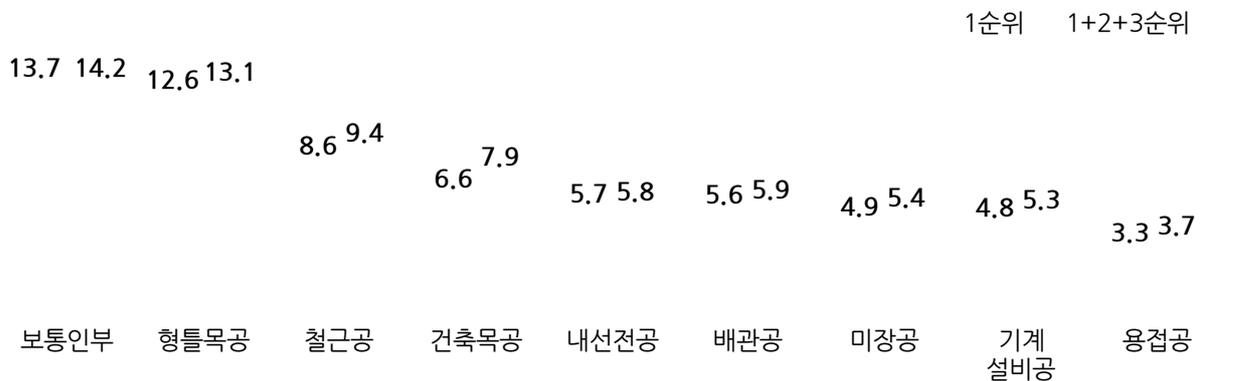
□ 건설현장 진입연령 및 구직 경로

- 건설현장 진입연령은 30대에 처음으로 건설현장에 진입한 근로자가 가장 많았으며(30.6%), 다음으로는 25세 미만의 순으로 조사됨(25.4%). 40대 진입비율은 10.7%임.
- 구직경로는, 팀장, 반장, 기능공 등 인맥이 85.4%로 가장 많았음. 무료직업소개소(공공, 노조 등)은 0.1%임.

□ 주된 직종이나 주특기

- 주된 직종은 일반공(보통인부) 이라는 응답이 1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형틀목공 12.6%, 철근공 8.6%, 건축목공 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된 직종이나 주특기>



* 1순위 기준 상위 3.3%이상 응답 제시

* 해당없음 0.1%, 모름/무응답 2.2%

- 작업능력 수준을 살펴보면, 기능공이라는 응답이 52%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공 22.5%, 준기공 10.4%, 팀·반장 8.1%, 조공 4.4%의 순으로 나타남

(2) 현장 이동경험과 교육훈련 현황

□ 건설산업 외 근무유무 및 이전 직업

- 건설산업 외 근무경력 유무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1.4%가 '없다'라고 답하여 최근 1년 이내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제가입 근로자 대부분이 건설산업 외 다른 직종에 근무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산업 이외의 직종에 근무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이전 직업을 물어본 결과, 자영업이 28.2%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이 16.7%, 농/축산업과 기술직이 15.1%의 순으로 나타남

<최근 또는 현재 가입 사회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14.7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모름/무응답

□ 연간 근로일수

- 최근 현장에서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149일로 조사되었고, 3개월 미만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현재 현장에서 일한 기간>

46.2

				19.7	22.5
6.4	3.7	1.6			
10일 미만	20일 미만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4) 복지, 근로시간 등 근무환경

□ 근무관련 불만족

- 근무관련 불만족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복리후생 불만족' 3.63점, '노동강도 불만족' 3.62점, '노동시간 불만족' 3.4점, '일에 대한 사회적평가 불만족' 3.39점, '현장 위험성에 대한 불안정도' 3.38점, '임금 불만족' 3.37점 등 대체적으로 5점 평균대비 불만족이 높게 나타남
- 근로경력별로 살펴보면,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3.53점으로 가장 높게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작업능력 수준별로 보면, 준기공이 3.05점으로 가장 낮았고, 일반공이 3.64점으로 고용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5)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 삶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평균 2.75점으로 응답자의 37.2%는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조사됨
- 근로경력별로 보면, 10년 미만의 응답자가 평균 2.72점으로 가장 낮았고, 작업 능력 수준별로 보면, 조공이 2.56점으로 낮았음

□ 향후 근무기간 및 생산물에 대한 만족도

- 향후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체력이 닿는 한 계속하고 싶다가 72.3%로 가장 높았고, 만든 생산물에 대한 만족현황을 살펴보면, 정성을 다해 만들었으므로 만족한다라는 답변이 73.8%로 나타남

<근무 관련 불만족 정도>

복리후생 불만족 정도	3.63
노동강도 불만족 정도	3.62
노동시간 불만족 정도	3.40
일에 대한 사회적 평가 불만족 정도	3.39
고용불안 정도	3.38
현장 위험성에 대한 불안 정도	3.38
임금 불만족 정도	3.37
근무를 통한 성취감, 보람 미성취 정도	3.08
임금체불에 대한 불안 정도	2.75
떼이는 돈에 대한 불안 정도	2.67
휴무 일 수 불만족 정도	2.53
인격적 대우에 대한 불만족 정도	2.52
차별대우 정도	2.42
관리자의 성적 모욕, 희롱 정도	2.16

※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족

□ 고용불안 및 임금불만족 정도

- 고용불안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44.4%의 응답자가 고용불안을 심하게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16.9%는 고용불안을 심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함
- 근로경력별로 보면,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평균 3.53점으로 가장

높았고, 작업능력 수준별로 보면, 준기공이 3.05점으로 가장 낮아 고용불안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는 반면, 일반공이 3.64점으로 고용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임금 불만족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1.6%의 응답자가 임금에 대해 불만이 높은 반면, 7.6%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와 20대가 임금에 대해 평균 3.39점으로 가장 불만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고, 작업능력 수준별로는 일반공이 3.55점으로 가장 높았음

<고용불안 정도>					<임금 불만족 정도>				
		37.2				49.2			
	31.4					37.9			
13.0			14.2						
				2.7				6.0	
					3.8				1.6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무응답 1.6%					* 무응답 1.7%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 퇴직공제금 인상이 64%로 가장 높았고, 금융지원 51.2%, 자녀교육비 지원 32%, 건강검진 28%, 취업알선 2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공통적으로 퇴직공제금 인상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20대는 취업알선을, 60대는 건강검진을 높게 선호함
 - 작업능력 수준별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퇴직공제금 인상을 가장 높게 선택하였지만, 준기공과 조공은 금융지원을 선호함

(6) 조사인구 통계 정보

연령대

- 50대 이상이 57.1% 차지하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6.3%, 30대 10.5%, 40대 26.3%, 50대 35.2%, 60대 21.5%, 70대 이상 0.4%

학력분포

- 고졸학력이 51.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학력 31%, 대졸이상 학력 13.1%, 무응답 4.4%

□ 작업능력 수준

- 기능공 이상이 60.1% 차지하고, 수준별로는 팀·반장 8.1%, 기능공 52%, 준기공 10.4%, 조공 4.4%, 일반공 22.5%, 무응답 2.8%

2

건설현장 노동력 현황 조사

가. 건설현장 노동력 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조사용역 수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조사 기간 : 2015. 7. 1 ~ 7. 31
-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 부수 : 근로자용 919부, 사업주용 420부, 총 1,339부
- 조사 방법 : 노사단체에 의한 직접 면접을 통한 자계식 조사
- 모집단 : 모든 건설근로자 및 모든 건설현장
- 표본집단 : 지역별, 규모별, 공종별로 표본 할당 기준 제시
 - 하지만 근로자단체와 사업주단체에서 위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는 임의로 선정됨.

□ 기초 통계 분석 주요 내용

-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추이 : 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건설기능인력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893,114명, 48.6%), 단순노무종사자(251,376명, 13.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86,163명, 10.1%)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 2014년 12월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 구성비는 62.3%인 것에 비해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의 비중은 80.8%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2000년 이래 14년 사이 14.8%p 증가해 고령화 경향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함. 하지만 건설기능인력은 22.0%p나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할 만한 수준임.

□ 면담조사 분석 주요 내용 : A현장

- 현장의 기능인력 수급 일반 : 35개동의 하루 평균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약 1,500명인데, 외국인력의 비중이 70%임.
- 임금 지급 방법 : 본사에서 개인의 통장계좌를 받아 임금을 개별적으로 입금함. 암암리에 팀장이 관리하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 수수료를 떼고 입금하는 경우가

- 있기도 함.
- 저임금 외국인력 고용 이유 : 본 현장의 원수급자가 약 85%에 낙찰을 받은 후 내부에서 공사비 실행 금액을 정하고 입찰에 부쳤음. 원하는 공사금액이 나올 때까지 유찰이 계속되다가 이를 맞춰주는 업체가 나오면 낙찰로 귀결되는 구조임. 하도급업체에서는 저가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이익이 남지 않음.
 - 최고의 갑인 발주자의 힘과 원·하수급자의 역관계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자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려면 미국과 같은 제도(Prevailing Wage)가 바람직함.

나. 설문조사 결과 : 건설근로자 대상

- 한국인력 숙련 수준별 수급 상황 : 근로자 응답
 - 숙련인력 : 많이 부족 54.8%, 약간 부족 22.9%, 적정 16.8% 순
 - 비숙련인력 : 많이 부족 55.1%, 약간 부족 24.8%, 적정 15.2% 순
-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책 ⇒ 내국인 청년층 육성 불가피
 - '공장제작과 외국인력 도입을 병행해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63.4%)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음.
-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 임금, 근로시간 단축, 직업전망, 기능습득
 - '임금 인상'(19.8%), '근로시간 단축'(16.9%), '기능습득 기회 제공'(14.5%), '고용 안정 제고'(13.1%) 등의 순임.
- 작년(2014년) 대비 외국인력 규모 변화
 - '외국인력이 작년보다 늘었다'(73.4%), '잘 모르겠다'(12.4%), '외국인력이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9.3%), '외국인력이 작년보다 줄었다'(4.9%) 순임.
- 현장별 외국인력 활용 유무
 -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응답이 평균 67.7%이고, 건축 78.2%, 토목 37.9%, 플랜트 4.8% 등
-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규모 추정 : 2015년 7월 현재 291,227명 추정
- 한국인력 대비 외국인력의 채산성 비교 ⇒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력 고용
 - 조선족의 경우 숙련 84.9, 비숙련 79.9인데, 기타 외국인의 경우 숙련 78.1, 비숙련 76.4, 모두 100 미만으로서 내국인에 비해 수익성 악화 요인
-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 ⇒ 저임금, 노무비 부족, 내국인력 부족, 단속 미흡 등
 - '외국인력의 임금이 낮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 때문'(31.5%), '불법체류자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26.4%), '건설현장에서 일할 내국인력이 부족하기 때문'(18.9%),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노무비가 부족하기 때문'(10.6%) 등의

- 순임. 공사비 부족에서 기인하는 비용 관련 지적이 42.1%임.
- 외국인력이 내국인력 취업에 미치는 영향 ⇒ 내국인 일자리 대체, 임금 저하
 - 숙련 및 비숙련인력 모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도 떨어진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음.
 - 연간 근로일수 : 근로자 응답
 - 평균 183.1일, 200~250일 미만 39.8%, 100~150일 미만 16.7%
 - 임금 형태 및 수준(응답자 직종) : 근로자 응답 ⇒ 저소득 해결 대책 시급
 - 임금 형태 : 일급 96.8%, 월급 3.0%, 성과급 0.2%
 - 일급 평균 164,000원, 15만 원 이상 86.0%
 - 연간 임금소득 : 월평균 임금을 합산한 연간 임금 평균 27,951,979원, 3,500만 원 이상 30.5%
 - 임금 지급 방식 ⇒ 통장 지급 실효성 제고 및 편법 억제에 대한 근본대책 필요
 - 통장 지급 87.0%, 현금 지급 13.0%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조건 ⇒ 유급 주휴, 근로시간 단축, 체불 억제 등
 - 일요일 유급 휴무(30.5%), 임금의 적기 지급(25.1%), 하루 8시간·주당 40시간제 실시(24.9%), 유급휴일 휴가 부여(11.9%), 근로자에게 임금 직접 지불(7.5%) 등의 순임.
 - 건설현장에서의 무료기능훈련 참여 의사 : 근로자 응답 ⇒ 실현 여건 검토 필요
 - '훈련수당과 저녁식사를 제공한다면 참여하겠다.' 60.4%, '훈련수당과 저녁식사가 없더라도 쓸 수 있는 기능을 가르치면 참여하겠다.' 20.7%, '피곤하고 집에 일찍 가야해서 참여하기 어렵다.' 12.2% 등으로 응답함.
 -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참여하겠다는 조건부이기는 하나 참여 의사를 보인 응답자가 85.7%임.
 - 근로복지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건설업체 응답) ⇒ 전자적 관리, 비용 확보
 - '근로자의 이동이 잦아서'(33.8%), '과도한 낙찰률 하락 등으로 공사비가 부족해져서'(29.3%), '사회보험료 및 주휴일 수당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13.3%) 등
 - 숙련인력 상용직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건설업체 응답) ⇒ 인건비 지원책 모색
 - '일이 없을 때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52.7%), '기능인력 소개 기관을 활성화하고, 정확한 인력정보를 제공한다'(18.6%) 등의 순임.
 - 구직·구인 경로
 - '팀·반장의 인맥을 통해' 57.5%, '민간 무료직업소개소를 통해'(30.6%), '공공 무료직업소개소를 통해'(4.6%), '유료직업소개소(용역)를 통해'(3.2%), '새벽인력시장을 통해'(0.8%) 등의 순임.

- 구직 어려움 ⇒ 공공 무료취업지원센터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력(동포 포함)에 밀려 일자리 구하기 더 어렵다'(29.3%), '적정 수준의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22.9%) 등의 순임.
- 기능등급제 활용 방안 ⇒ 임금 및 고용 개선이 핵심, 노사 모두 공감
 - '기능등급제'란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개선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제도로서, "근로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등을 종합하여 기능등급을 설정함.
 - '기능등급이 높을수록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 4.2, '기능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4.1로 높은 긍정도를 보이고 있음.
-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불만 사항
 - '항상 일자리가 불안하다.' 26.8%, '아무런 노후대책이 없다.' 18.0%, '1년간 임금이 너무 낮다.' 11.9%, '직업전망이 없다.' 11.8% 등의 순
- 청년층의 건설현장 기피 원인 ⇒ 직업전망 제시, 근로환경 개선 필수
 - '직업전망이 없다.' 25.0%, '항상 일자리가 불안하다.' 21.6%, '작업환경이 위험하고 더럽다.' 14.2%, '아무런 노후대책이 없다.' 13.5%, '1년간 임금이 너무 낮다.' 13.5% 등의 순

3 건설노동자 임금 등 실태조사

가. 설문개요 및 조사목적

-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관 : 민주노총 건설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www.kcwu.or.kr)
 - 조사기간 : 2015. 06. 20. ~ 07. 31.
 - 설문지 855배포 후 489부 수거
 - 조사 방법 : 건설노조 지부를 통한 직접 설문조사
- 조사목적
 - 현행 시중노임단가는 2,000개 건설현장에서 조사된 국내유일의 임금기준으로 설계공사비 산정에 적용되어 오고 있지만, 해당 노임기준대로 현장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음.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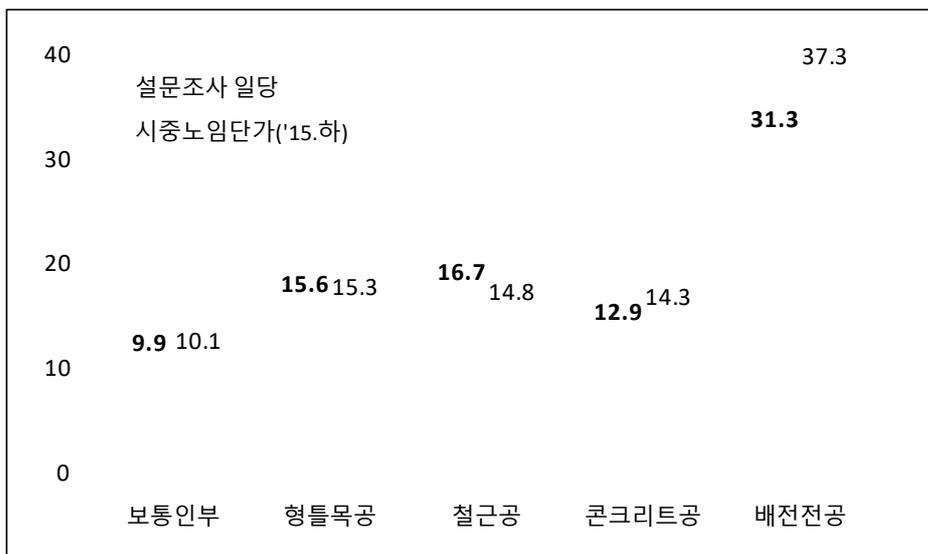
나. 주요 설문내용

□ 응답자 일반사항

- 연령의 경우 50대가 44.6%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만 50.2세.
- 현재 종사하는 직종은 형틀목공이 6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배전전공 11.0%, 타워크레인 조종사 8.9%의 순이었음. 보통인부(비숙련공)는 2.7%이었음. 건설기계운전사로 고용된 경우는 2명(0.4%)에 불과함.
- 건설현장에서의 총경력 평균은 16.5년, 현장일 시작 평균 나이는 만 34.1세이었음.

□ 근무시간 및 임금 관련

- 임금의 경우, 대다수인 63.7%(309명)가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당은 단체협약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응답이 68.8%로 가장 많았음. 임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자신의 기능과 노동조합이 동일하게 각각 37.7%로 응답하였음.
-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하루 작업시간은 8시간 이하 근무 응답이 64.0%이었음. 일당은 16만원~20만원의 경우가 가장 많은 68.6%로서 이는 가장 많은 형틀목공의 응답결과로 판단됨.
- 직종별 8시간 평균일당을 산정한 결과, 보통인부 9.9만원, 형틀목공 15.6만원, 철근공 16.7만원, 콘크리트공 12.9만원, 배전전공 31.3만원이었음.



-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평균 월급은 325만원이었음.
- 연평균 근무일수는 176.9일이었으며, 근무일수가 100일 이하라는 응답은 23.7%이었음. 비수기인 동절기 및 우기의 월평균 근무일수를 산정한 결과 16.8일로

나왔음.

- 근무일수의 경우 예년과 비교하여 비슷하다는 응답이 60.9%이었으며, 줄었다라는 응답 또한 34.5%로 많았음. 최근의 건설경기 하락의 영향으로 보임.
- 2014년도 평균임금수입은 2,900만원으로, 4,0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었다라는 응답은 13.5% 이었음.
- 임금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56.5%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42.0%는 보통으로 응답함. 그럼에도 경력과 숙련도를 고려할 때, 적절한 임금수입에 대하여는 평균 40%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계		1.1~1.3배	1.3~1.5배	1.5~1.7배	1.7~1.9배	2배	2배 이상	비 고
453	36	130	156	58	12	34	27	36
응답 비율	7.9%	28.7%	34.4%	12.8%	2.6%	7.5%	6.0%	-

□ 임금등락 및 체불 관련

- 5년 전인 2010년도와 비교할 때, 현재 임금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 14%가량 인상되었다고 응답함.
- 인상된 경우의 원인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활동을 가장 많은 75.3%라고 응답하였고, 기능향상이라는 응답은 10.0%에 불과하였음. 반면 변함없거나 하락한 경우의 원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력 유입과 일자리 부족을 각각 57.7%와 30.8%로 응답함.

□ 구직 및 근로환경 관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및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퇴직공제 63.1%, 고용보험 68.5%, 산재보험 77.3%, 건강보험 38.8%, 국민연금 35.2%로 각각 응답하였음.
- 중요도에 대하여는 모두가 높음에 응답하였으나, 총 응답자 중 중요도에 대한 응답은 약 20% 정도인 100명 정도만이 응답하였음. 건설노동자를 위한 5가지 사회안전망에 대한 5점 척도는, 고용보험 4.3, 산재보험 4.0으로 가장 높았으며, 퇴직공제부금은 3.7로서 다소 낮았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3.5로 응답하였음.
- 일자리 구직경로의 경우 60.3%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일자리를 얻는다고 응답하였음. 하지만 개인적 인맥이 3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음. 한편 공적 영역인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얻는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하였

음.

- 구직이 어려운 원인에 대하여는, 건설업체의 외국인력 선호가 3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건설경기 하락이 28.9% 이었음. 한편 높은 임금이 원인이라는 응답은 3.2% 이었음.
- 건설현장 근로환경에 대하여는 매우 열악하다 40.2%, 다소 열악하다 35.6%로서 건설노동자들이 느끼는 근로환경 수준이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건설기능인력 관련

- 2010년도와 비교할 때, 거의 대다수인 85.9%가 외국인력 유입이 늘었다고 응답함.
- 문제는 외국인력 유입이 건설노동자에게 근로여건 악화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었음. 일자리의 경우 응답자의 대다수인 80.6%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임금의 경우 67.6%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반대로 노동강도는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54.6% 이었음.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에 대하여 일자리(근무일수) 및 임금과 노동강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음.

일자리(근무일수)		
임금(일당)		80.6%
노동강조		67.6%
	54.6%	
		36.5%
		26.5%
5.8%		15.8%
		8.9%
3.6%		
증가	영향없음	감소

- 건설업체들이 외국인력을 선호하는 이유[2개 선택]에 대하여, 첫 번째 선택에서는 낮은 임금이라는 응답이 84.1%, 두 번째 선택에서는 지시에 잘따름(높은 순응)이라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았음. 2개 선택의 합계결과를 보면, 낮은 임금 54.8%, 지시에 잘따름(높은 순응) 18.5%, 나이가 젊어서 15.0%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현재의 숙련공 인원수에 대하여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81.0%로 가장 많은 것과 같이, 향후 건설기능인력 인원수가 급격하게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52.5% 이었음.

- 건설공사 숙련공 양성을 위하여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는 설문[2개 선택]에 대하여, 첫 번째 선택은 적정임금 보장이 66.1%(300명)로 가장 많았고 으며, 두 번째 선택에서는 적정한 일자리 제공 26.0% 이었음. 2개 선택의 합계결과를 보면, 적정임금 보장 37.4%, 적정한 일자리 제공 17.8%, 원도급업체에서 직접 고용 15.0%, 근로환경 개선 12.6%의 순서로 응답하였음.
- 미국의 Prevailing Wage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적정임금제 도입에 대하여 응답자의 거의 대다수인 92.3%가 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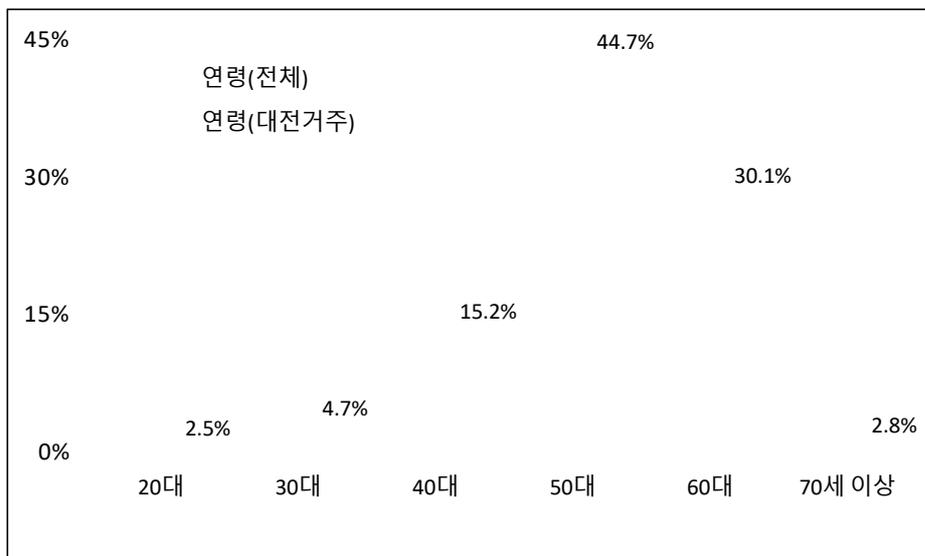
Ⅲ. 대전지역 일용건설노동자 실태조사 및 분석

1 응답자 일반사항

가. 연령

- 건설노동자의 연령대를 분석하기 위하여 출생년도로 질문하였고, 응답한 출생년도를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연령을 산정하였음.
- 응답내용에 대하여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및 7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음. 대전지역 거주 건설노동자는 50대가 가장 많은 44.7%(144명)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60대가 30.1%(97명)가 많았으며 40대 이하부터는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음. 응답자 433명 중 322명이 대전지역 거주자로서, 연령의 분포는 전체 응답자 또한 대전지역거주 응답자와 비슷하였음.
- 평균연령은 전체응답자 55.1세, 대전지역 거주자는 54.8세로 거의 비슷함.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 이상	계	평균
응답수	전체	9	21	67	184	139	13	433	55.1세
	대전거주	8	15	49	144	97	9	322	54.8세
비율	전체	2.1%	4.8%	15.5%	42.5%	32.1%	3.0%	100%	
	대전거주	2.5%	4.7%	15.2%	44.7%	30.1%	2.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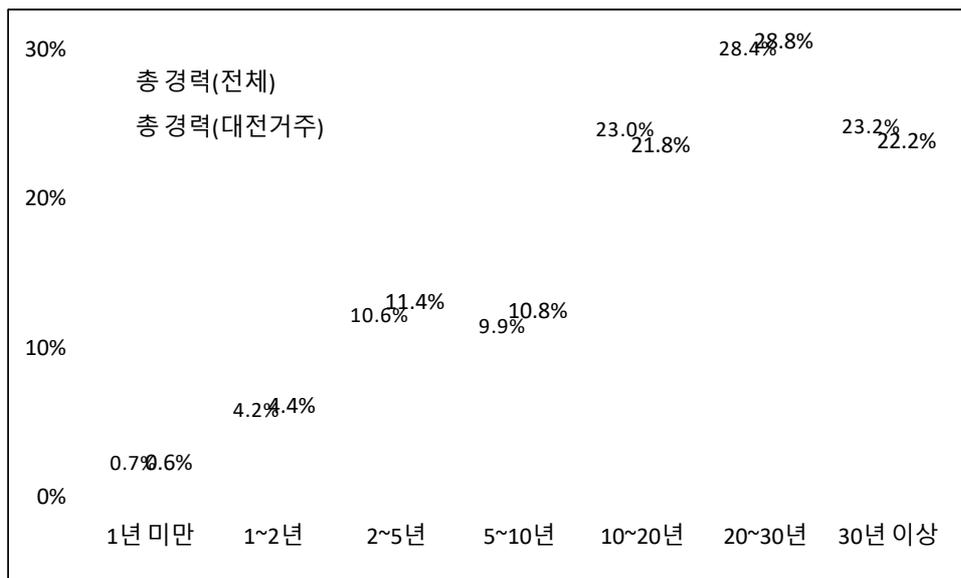


나. 건설현장 경력

① 총 경력

- 총 경력 또한 전체응답자와 대전지역 거주응답자의 분포가 유사하였음.
- 대전지역 거주응답자는, 20~30년 경력 28.8%(91명), 30년 이상 경력 22.2%(70명), 10~20년 경력 21.8%(69명)의 순으로 각각 많았음.
- 이와 달리 경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2~5년 및 5~10년 경력소유자는 10%대에 불과하였고, 2년 미만의 건설업 초년 경력자 또한 5.0%(=0.6%+4.4%)에 불과하였음.
- 평균 총경력은 대전지역 거주자 17.9년, 전체응답자 18.3년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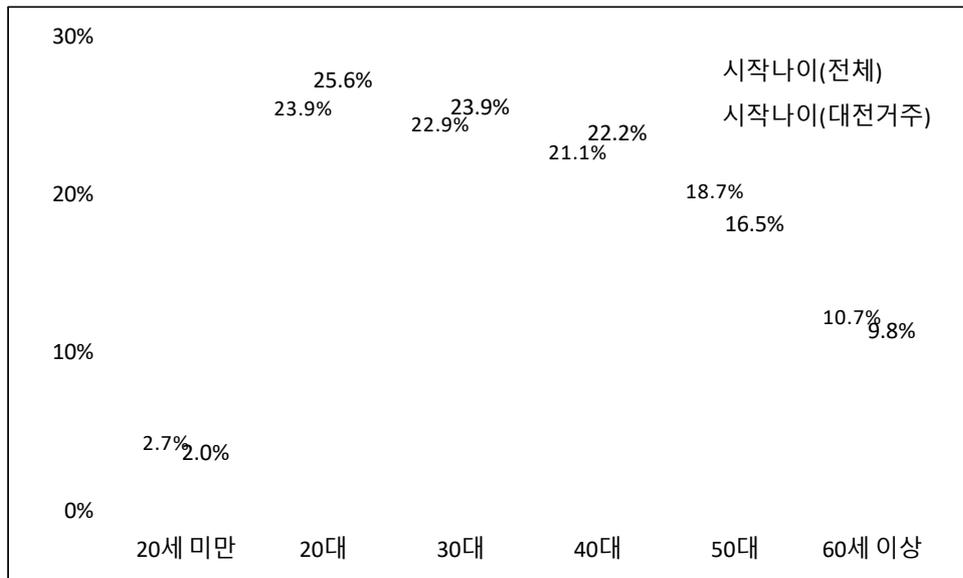
구분		1년 미만	1~2년	2~5년	5~10년	10~20년	20~30년	30년 이상	계	평균
응답수	전체	3	18	45	42	98	121	99	426	18.3년
	대전거주	2	14	36	34	69	91	70	316	17.9년
비율	전체	0.7%	4.2%	10.6%	9.9%	23.0%	28.4%	23.2%	100%	
	대전거주	0.6%	4.4%	11.4%	10.8%	21.8%	28.8%	22.2%	100%	



② 현장일 시작 당시 나이

- 대전거주 응답자 중 건설현장에 처음 진입하는 연령대는 20대 25.6%(76명), 30대 23.9%(71명) 및 40대 22.2%(66명)의 순으로 많았음.
- 대전거주 응답자 중 50대에 건설현장일을 시작했다는 응답자는 16.5%, 60세 이상은 9.8%로서 고령자의 건설현장 최초 진입 비율도 상당하였음.
- 건설현장 시작 평균연령은 전체응답자는 40.5세이고, 대전거주 응답자는 약간 적은 39.7세이었음.
- 총 경력 또한 전체응답자와 대전지역 거주응답자의 분포가 유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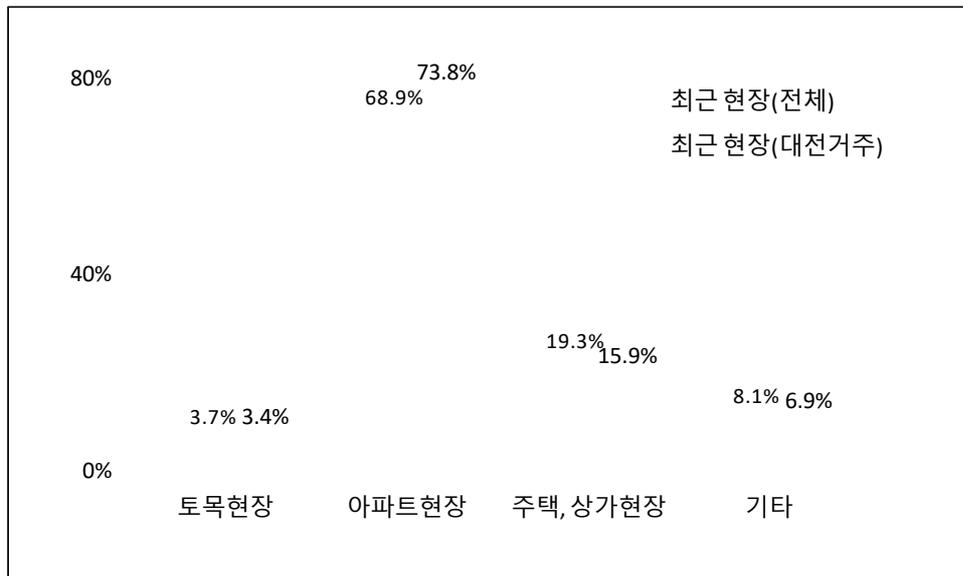
구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계	평균
응답 수	전체	11	96	92	85	75	43	402	40.5세
	대전거주	6	76	71	66	49	29	297	39.7세
비율	전체	2.7%	23.9%	22.9%	21.1%	18.7%	10.7%	100%	
	대전거주	2.0%	25.6%	23.9%	22.2%	16.5%	9.8%	100%	



다. 최근 현장

- 최근 작업한 현장을 토목현장 및 건축현장으로 구분하고, 건축현장은 아파트현장과 주택·상가현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질문하였음.
- 대전지역 거주응답자는, 아파트현장에서 작업하였다는 응답이 73.8%(236명)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주택·상가현장이 15.9%(51명) 이었음. 기타 6.9%를 고려하더라도 공공 SOC공사라 할 수 있는 토목현장에서 작업한 응답자는 약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은 건축현장에서 작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음.

구분		토목현장	아파트현장	주택, 상가현장	기타	계
응답수	전체	16	297	83	35	431
		11	236	51	22	320
비율	전체	3.7%	68.9%	19.3%	8.1%	100.0%
	대전거주	3.4%	73.8%	15.9%	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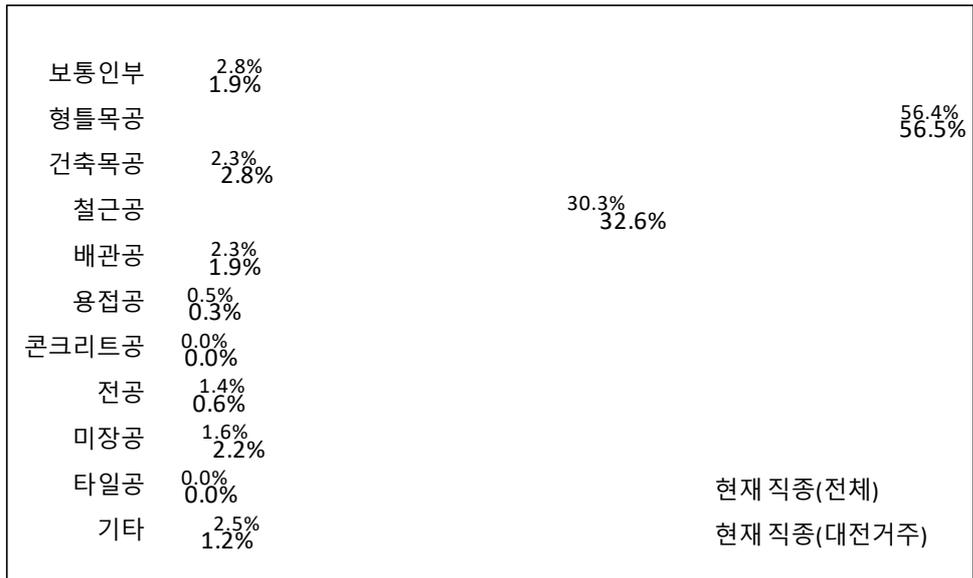


라. 현재 직종 (주특기 작업)

- 본 설문 의 예시 직종은 10개 이었고, 콘크리트공 및 타일공 응답자는 없었음.
 - 콘크리트공은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투입되므로, 설문조사 당시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 타일공은 건축공사의 최종 마무리공종에서 투입되므로,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에 이루어진 본 설문에서는 타일공 응답자가 없었던 것임.
-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4%(246명)의 직종이 형틀목공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철근공 30.3%(132명)이었음. 그 외 나머지 직종 응답자는 약 15% 정도이었음.

구 분		보통인부	형틀목공	건축목공	철근공	배관공	용접공
응답 수	전체	12	246	10	132	10	2
	대전거주	6	182	9	105	6	1
비율	전체	2.8%	56.4%	2.3%	30.3%	2.3%	0.5%
	대전거주	1.9%	56.5%	2.8%	32.6%	1.9%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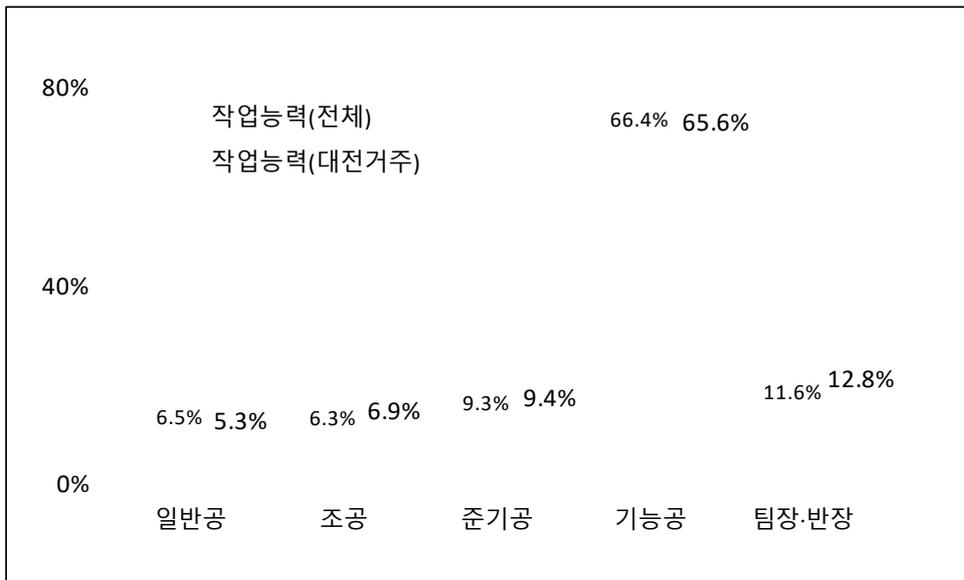
구 분		콘크리트공	전공	미장공	타일공	기타	계
응답 수	전체	0	6	7	0	11	436
	대전거주	0	2	7	0	4	322
비율	전체	0.0%	1.4%	1.6%	0.0%	2.5%	100%
	대전거주	0.0%	0.6%	2.2%	0.0%	1.2%	100%



마. 작업능력 수준

- 작업능력 수준은 비숙련공인 일반공과 숙련도를 보유한 숙련공으로 크게 구분하였음. 숙련공은 조공, 준기공, 기능공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책임자급인 팀장·반장을 별도로 구분하였음.
- 기능공이 66.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반면, 조공·준기공 및 일반공은 10% 미만에 불과하였음.

구분		일반공	조공	준기공	기능공	팀장·반장	계
응답수	전체	28	27	40	287	50	432
		17	22	30	210	41	320
비율	전체	6.5%	6.3%	9.3%	66.4%	11.6%	100%
	대전거주	5.3%	6.9%	9.4%	65.6%	12.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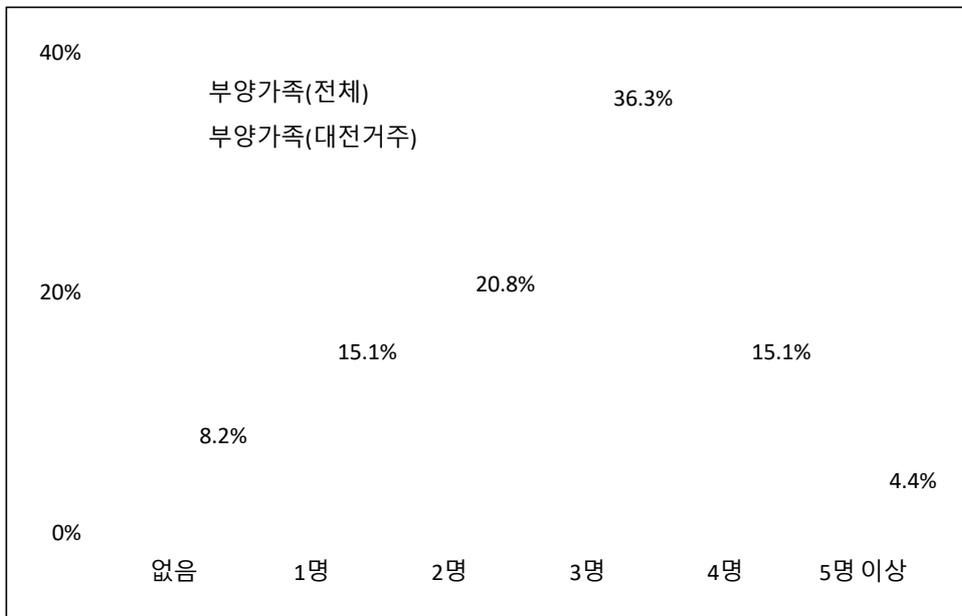
용어 참고

- <작업능력 수준에 따른 용어를 조사 편의상 사전 정의>**
- 팀장, 반장 :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근로자들을 지시 감독하는 자
 - 기능공 : 숙련기능을 갖춘 자로서 현장에서 준기공 시절을 1~2년 후 거친 자
 - 준기공 : 기능공은 아니지만 최소 한가지 기능으로 5년이상 근무해서 현장에서 기능공을 대리하는 자
 - 조공 : 5년 미만의 비숙련공
 - 일반공(보통인부) : 특별한 특기 없이 자재치우기 등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비숙련공
- <출처 : 2016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참고자료>

바. 부양가족수(본인 제외)

-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수는 3명(35.5%) 및 2명(20.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명(16.1%)이라는 응답 순이었음.
- 부양가족이 없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꼴인 9.1%이었음.
- 평균 부양가족수는 2.5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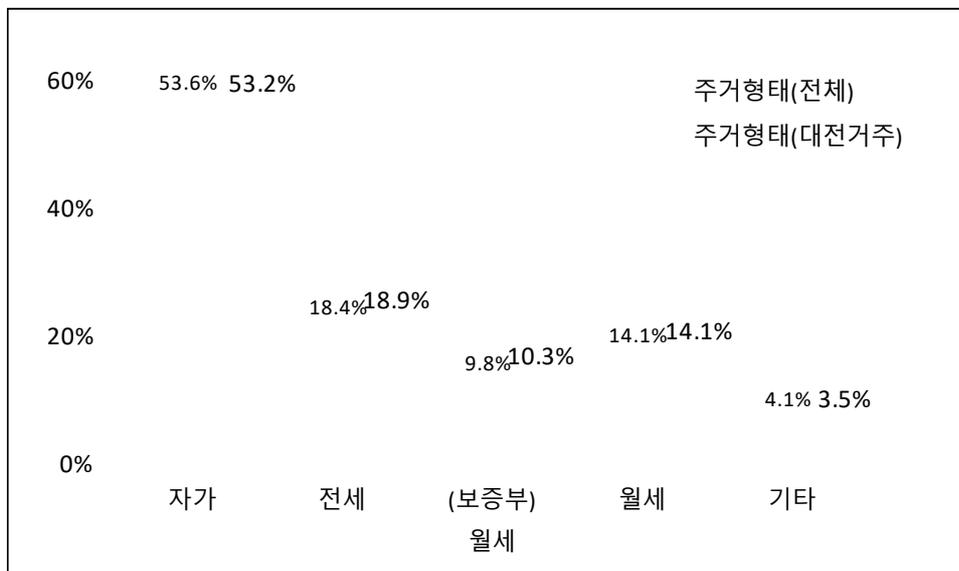
구 분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
응답 수	전체	39	63	87	152	69	18	428
		26	48	66	115	48	14	317
비율	전체	9.1%	14.7%	20.3%	35.5%	16.1%	4.2%	100%
	대전거주	8.2%	15.1%	20.8%	36.3%	15.1%	4.4%	100%



사. 주거형태

- 건설노동자의 절반이상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53.6%).
- 그 외 전세는 18.4%, 월세의 경우 순수 월세 14.1%이고 보증부월세는 9.8% 이었음.
- 주거형태 또한 전체응답자와 대전지역 거주응답자의 경향이 비슷하였음.

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계
응답수	전체	224	77	41	59	17	418
	대전거주	166	59	32	44	11	312
비율	전체	53.6%	18.4%	9.8%	14.1%	4.1%	100%
	대전거주	53.2%	18.9%	10.3%	14.1%	3.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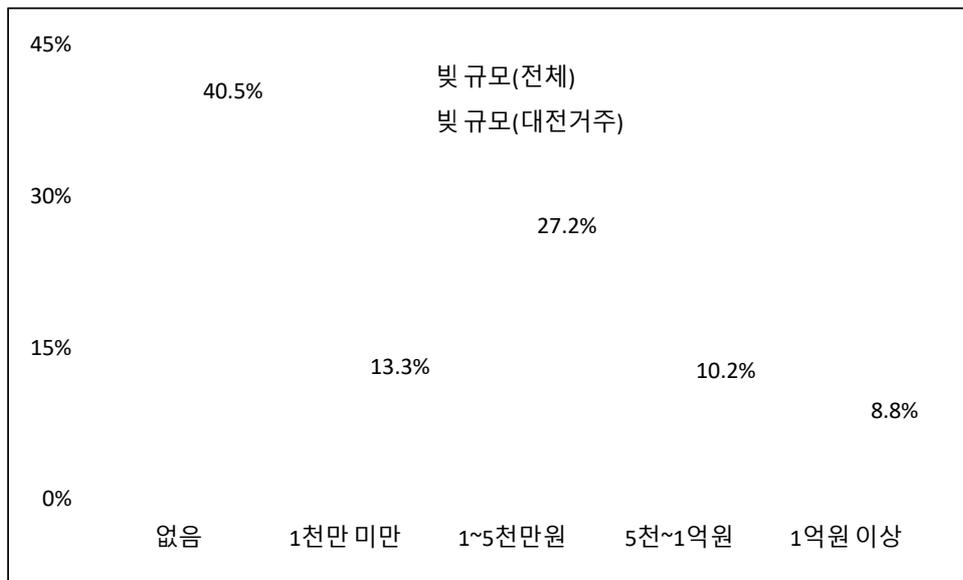


아. 빛

① 빛 규모

- 총 설문응답자 중 394명이 응답하였고, 무응답자는 43명(9.8%)이었음.
- 10명 중 4명 정도는 빛이 없다고 응답하였음(39.6%).
- 빛이 있는 경우에는, 1~5천만 원이 25.9%(102명)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상의 빛이 있다는 응답은 9.6%(38명)이었음.
- 단순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빛 규모는, 전체응답자는 3,594만원이고 대전지역 거주 응답자는 3,417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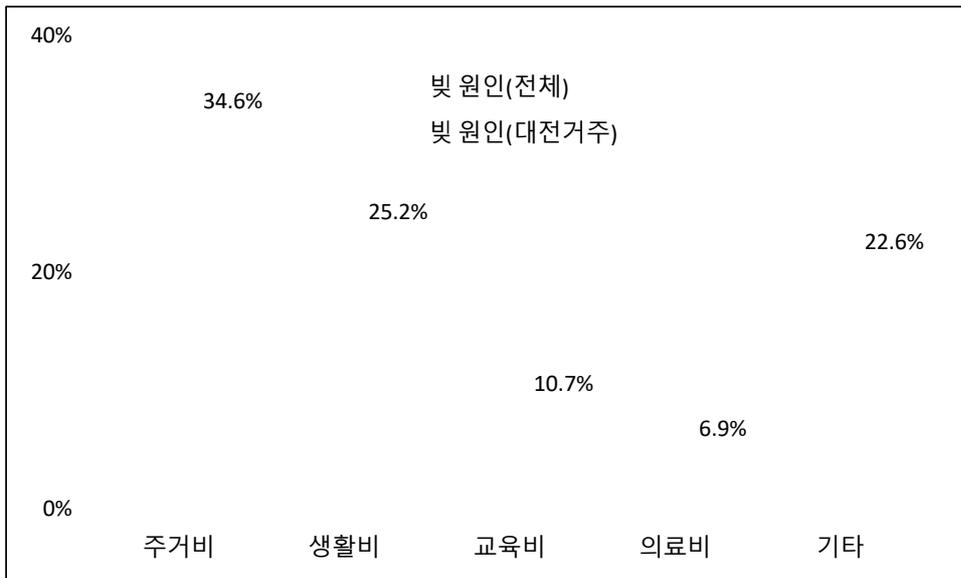
구 분		없음	1천만 미만	1~5	5천~1억	1억원 이상	계	평균
응답 수	전체	156	55	102	43	38	394	3,594만
	대전거주	119	39	80	30	26	294	3,417만
비 율	전체	39.6%	14.0%	25.9%	10.9%	9.6%	100%	
	대전거주	40.5%	13.3%	27.2%	10.2%	8.8%	100%	



② 빗 원인

- 총 설문응답자 중 215명만이 응답하여, 응답자 일반사항 중 가장 응답율이 낮은 설문항목이었음. 무응답자는 절반가량인 222명(50.8%)이었음.
- 전체 응답자의 빗 원인은, 주거비가 30.7%(66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비를 원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26.5%(57명)이었음. 구체적인 원인을 알기 어려운 '기타' 응답비율이 24.7%이었음.
- 한편 교육비와 의료비를 주요한 빗 원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11.2% 및 7.0%이었음.
- 주거비의 경우, 대전지역 거주응답자의 비율이 34.6%로서 전체 응답자 비율보다 약 4%가량 높았음.

구 분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기타	계
응답 수	전체	66	57	24	15	53	215
		55	40	17	11	36	159
비율	전체	30.7%	26.5%	11.2%	7.0%	24.7%	100%
	대전거주	34.6%	25.2%	10.7%	6.9%	22.6%	10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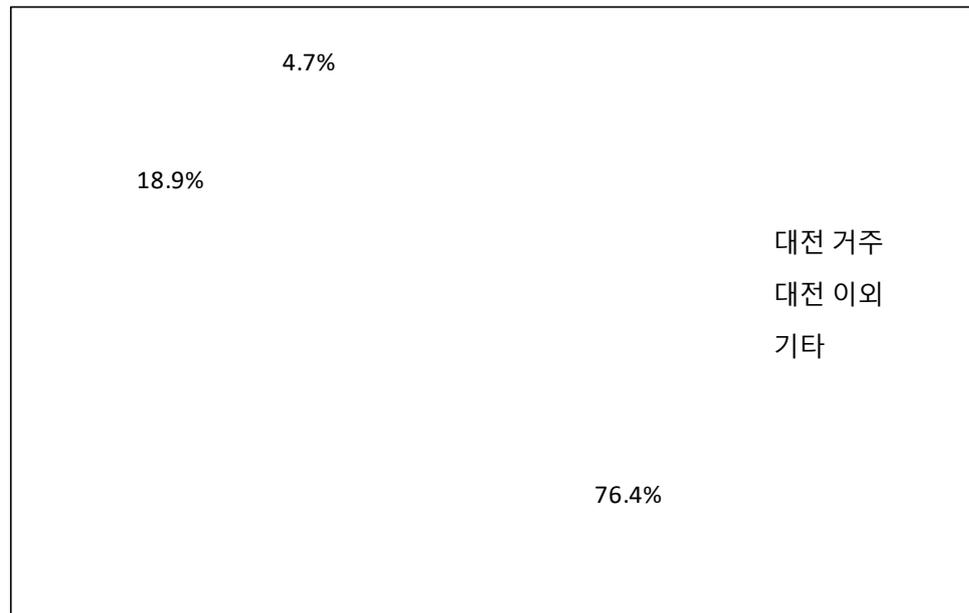
설문응답에 대한 분석

임금 및 수입 관련

<설문 1-1>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인지요?

- 응답자 중 대전에 거주한다는 응답수는 76.4%(324명)이었음.
- 대전이외(인근) 지역에 거주한다는 응답은 18.9%, 그 외 기타지역은 4.7%이었음.
- 참고로 본 설문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에 현재 거주지가 대전인 응답자가 4명 중 3명을 약간 상회하는 76.4%이었음.

구 분	대전 거주	대전 이외	기타	계
전체 응답수	324	80	20	424
응답 비율	76.4%	18.9%	4.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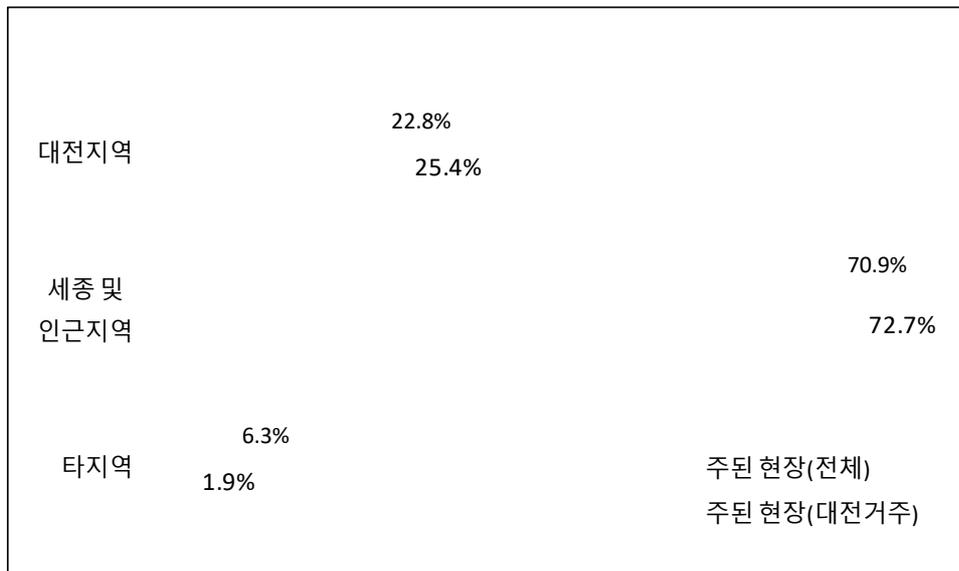


-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이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기에, 대전지역 응답자의 응답경향이 전체응답자의 응답경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향후 설문분석은 전체응답자 위주로 서술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지역 거주응답 경향을 별도 구분하여 서술하였음.

<설문 1-2> 귀하의 주된 작업장소(현장)는 어디인지요?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응답자들의 주된 작업장소는 세종시 및 인근지역이 70.9%(302명)로 가장 높았음. 대전지역 거주응답자들의 응답 비율은 약간 높은 72.7%이었음.
- 반면 대전지역 거주자들이 대전지역 현장에서 작업하는 응답비율은 25.4%(81명)으로 4명 중 1명꼴이었음.

구 분		대전지역	세종 및 인근지역	타지역	계
응 답 수	전체	97	302	27	426
		81	232	6	319
비 율	전체	22.8%	70.9%	6.3%	100%
	대전거주	25.4%	72.7%	1.9%	100%



<설문 2> 귀하께서는 임금을 어떻게 지급받고 계시는지요?

- 건설노동자 수입과 직결되는 임금을 어떻게 지급받는지에 대한 설문항목임.
- 전체응답자들 중 일당으로 지급받는다는 응답이 95.8%(=5.4%+90.4%)로서, 건설현장에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모두 일당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음.
- 일당으로 임금이 계산되나, 매월 월급형태로 지급받는다는 응답이 90.4%(387명)이었음.
- 반면 상용근로자라 할 수 있는 월급(연봉) 방식은 3.3%(14명)에 불과하였음.

구 분		일당	월급(일당)	월급(연봉)	성과급	기타	계
응답 수	전체	23	387	14	4	0	428
		16	293	9	2	0	320
비율	전체	5.4%	90.4%	3.3%	0.9%	0.0%	100%
	대전거주	5.0%	91.6%	2.8%	0.6%	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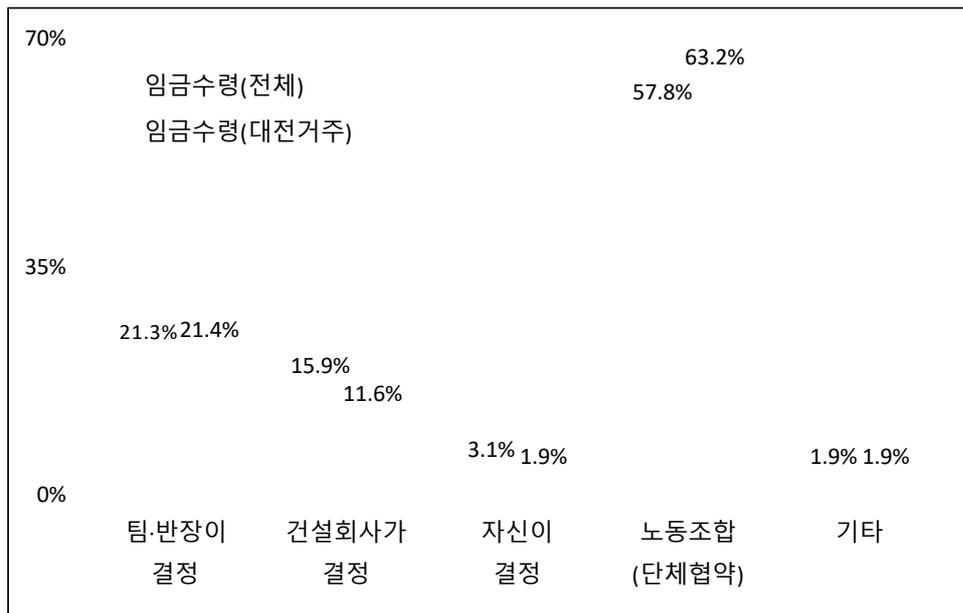
일당	23 명	
월급(일당)		387 명
월급(연봉)	14 명	
성과급	4 명	
기타	0 명	
		임금수령(전체)

- 한편 전체응답자 중 성과급으로 지급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인데, 건설노동에 대해서는 현재 성과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설문 3> 귀하의 임금(일당)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는지요?

- 전체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7.8%(244명)은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협약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 다음으로는 팀·반장(일명 ‘오야지’)이 자신들의 임금(일당)을 결정한다는 응답이 21.8%(90명)라고 응답하였음.
- 건설회사가 임금을 결정한다는 응답은 15.9%, 자신이 직접 결정한다는 응답은 3.1%이었음.
- 한편 대전지역 거주응답자들은 노조 단체협약으로 임금을 결정한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자보다 5.4%가량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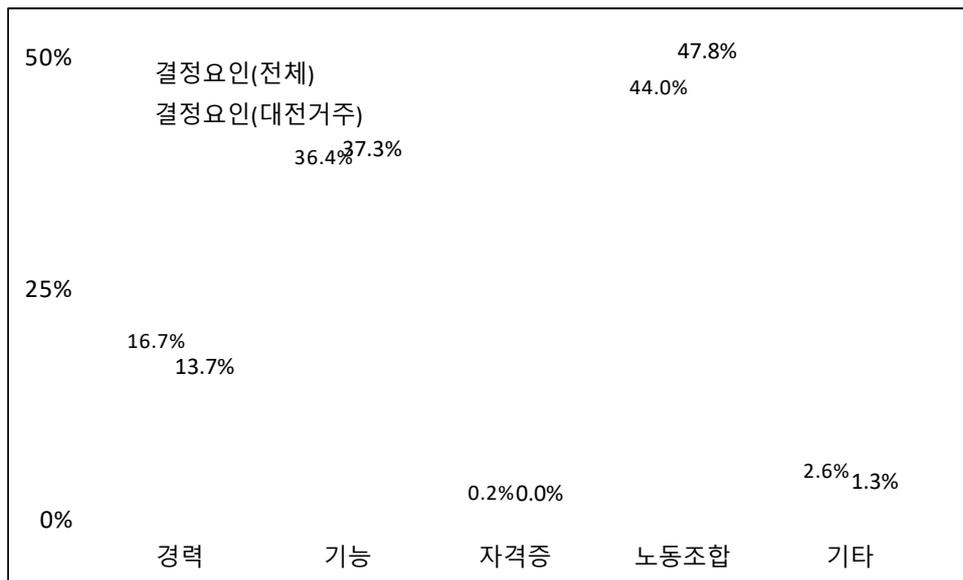
구 분		팀·반장이 결정	건설회사가 결정	자신이 결정	노동조합 (단체협약)	기타	계
응답 수	전체	90	67	13	244	8	422
	대전거주	68	37	6	201	6	318
비 율	전체	21.3%	15.9%	3.1%	57.8%	1.9%	100%
	대전거주	21.4%	11.6%	1.9%	63.2%	1.9%	100%



<설문 4> 귀하의 임금(일당)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지요?

- 전체응답자들은 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노동조합을 선택하였음 (44.0%). 그 다음으로 자신의 기능정도가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음(36.4%).
- 임금결정에 경력 역시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16.7%)한 반면, 자격증이 임금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하였음.
- 전술한 <설문 3>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임금결정을 가장 높게 응답한 결과와 비교할 때, 노동조합이 임금결정 방식뿐만 아니라 임금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었음.

구 분		경력	기능	자격증	노동조합	기타	계
응답수	전체	70	153	1	185	11	420
		43	117	0	150	4	314
비율	전체	16.7%	36.4%	0.2%	44.0%	2.6%	100%
	대전거주	13.7%	37.3%	0.0%	47.8%	1.3%	100%



<설문 5>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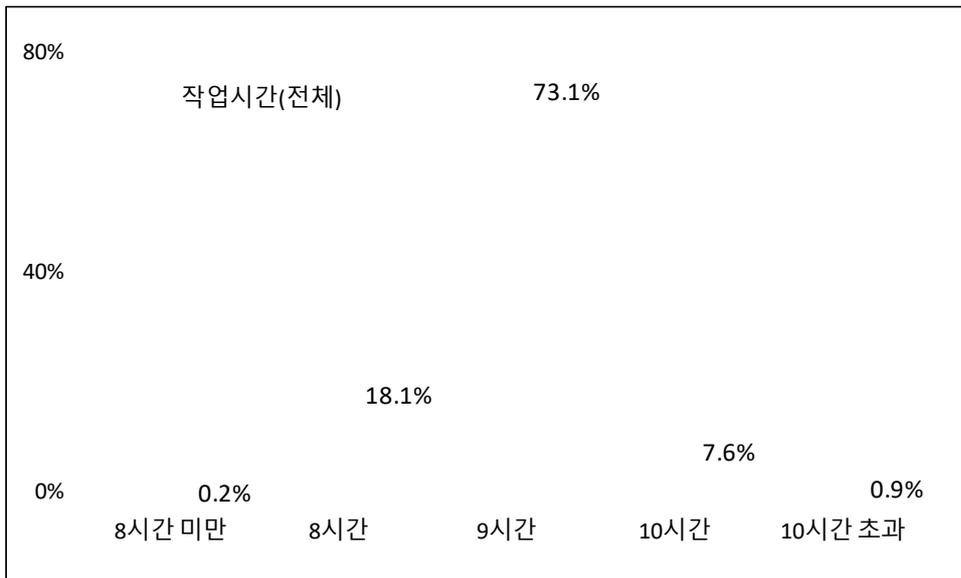
<설문 5-1> (일당으로 받는 경우) 하루 작업시간과 일당(세금공제전)은 대체적으로 얼마인가요?

⇒ 하루 시간 근무에 일당 만원 을 지급받음. *식사시간 제외

① 하루 작업시간

- 본 설문은 응답자가 시간 및 일당을 직접 기입하여 응답하였음.
- 전체응답자 432명의 하루 작업시간을 1시간 단위로 구분한 결과, 8시간 미만이나 10시간 초과하여 작업한다는 응답자는 거의 없었음.
- 하루 작업시간이 9시간이라는 응답이 73.1%(316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8시간 작업시간 응답이 18.1%(78명)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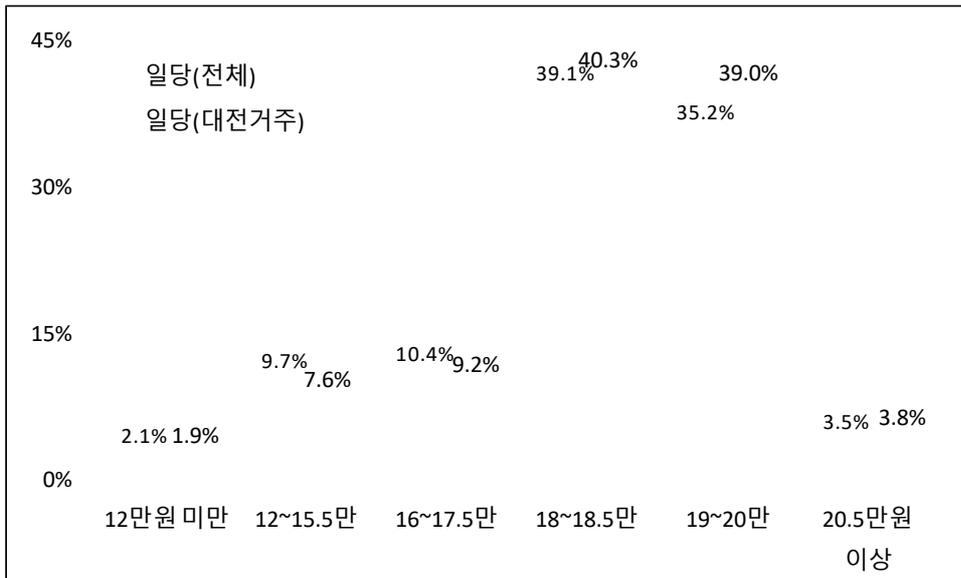
구 분		8시간 미만	8시간	9시간	10시간	10시간 초과	계
응답 수	전체	1	78	316	33	4	432
		1	52	247	17	4	321
비율	전체	0.2%	18.1%	73.1%	7.6%	0.9%	100.0%
	대전거주	0.3%	16.2%	76.9%	5.3%	1.2%	100.0%



② 일당

- 하루 작업시간과 상관없이 응답한 일당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일당 16~18.5만원이 39.1%(169명), 19~20만원이 35.2%(152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구간이었음. 이는 <일반사항 5>에서 기능공 응답자가 전체응답자의 66.4%로 다수를 차지한 때문으로 사료됨.
- 일당이 낮은 경우라도 12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보통인부(일반공)의 평균일당이 13.1만원으로 조사된 결과이었음.
- 단순산술평균하면, 전체응답자 평균 일당은 18.0만원이고, 대전지역 거주응답자 평균 일당은 18.2만원임.

구분		12만원 미만	12~15.5만원	16~17.5만원	18~18.5만원	19~20만원	20.5만원 이상	계	평균
응답수	전체	9	42	45	169	152	15	432	18.0만원
	대전거주	6	24	29	127	123	12	315	18.2만원
비율	전체	2.1%	9.7%	10.4%	39.1%	35.2%	3.5%	100%	
	대전거주	1.9%	7.6%	9.2%	40.3%	39.0%	3.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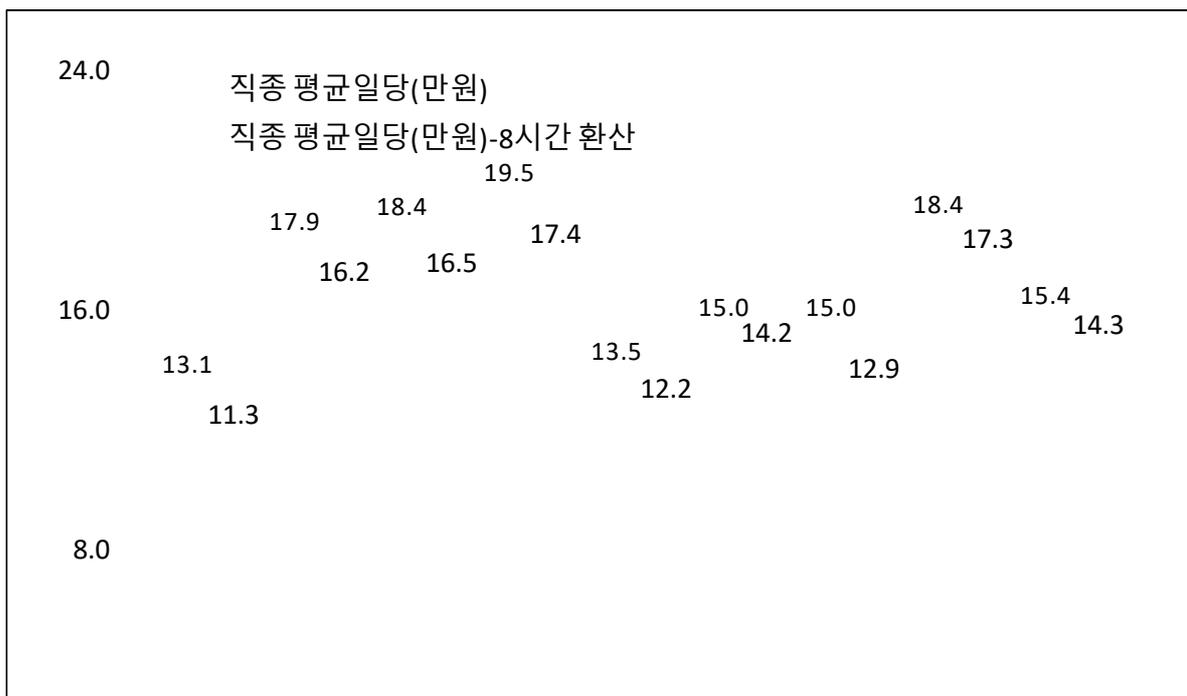


③ 직종별 평균 일당(8시간 환산)

- 전체응답 결과(작업시간 및 일당)를 토대로 직종별 평균일당을 산정함. 참고로 콘크리트공 및 타일공은 응답자가 없어서 평균일당 산정에서 제외함.
- 직종별 8시간 환산 평균 일당을 산정한 결과, 철근공이 가장 높은 17.4만원, 그 다음으로 미장공 17.3만원, 건축목공 16.5만원 및 형틀목공 16.2만원임. 평균 일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능직종들의 8시간 환산률은 약 90%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하루 작업시간이 8~9시간에 포진되어 있음을 의미함.
- 비숙련공인 보통인부의 8시간 환산 평균 일당은 11.3만원으로 전체응답자 중 가장 낮은 일당임.
- 전공의 경우, 단순평균 일당은 용접공과 비슷하나 8시간 환산률이 가장 낮았음. 이는 1일 작업시간이 가장 길다는 것을 의미함.

구 분		형틀목공	건축목공	철근공	배관공	용접공	전공	미장공	기타
단순평균 일당	13.1	17.9	18.4	19.5	13.5	15.0	15.0	18.4	15.4
8시간 환산 일당	11.3	16.2	16.5	17.4	12.2	14.2	12.9	17.3	14.3
8시간 환산률	87%	91%	90%	89%	90%	94%	86%	94%	93%

☞ - 8시간 환산률(%) : 8시간 환산일당 ÷ 단순평균 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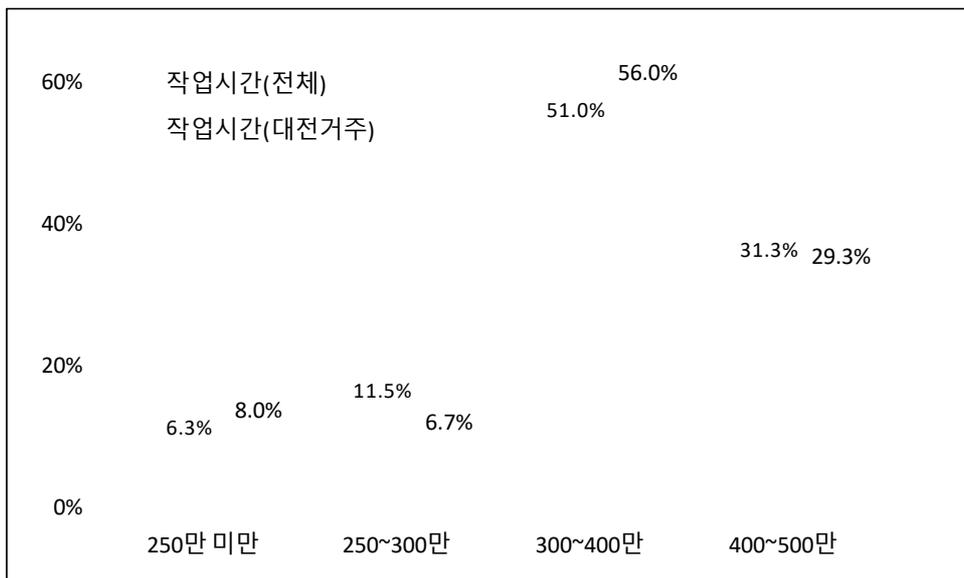


<설문 5-2> (월급 또는 성과급으로 받는 경우) 월평균 임금(세금공제전)은 대체적으로 얼마 인가요?

⇒ 월평균 만원을 지급받음.

-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설문문항에 대하여 전체응답자 중 96명이 응답하였음.
- 응답자 96명의 대부분은 일당 설문내용 <설문 5-1>에도 중복 응답하였는데, 응답자 모두에 한하여 월급실태를 조사·분석하였음.
- 월급의 경우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51.0%이었고, 다음으로 '400만 원 이상~500만원 미만' 응답이 31.3%로 나타났음.
- 3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20%이하였으며, 500만 원 이상 받는다는 응답은 없었음.
- 전체응답자의 평균월급은 339.3만원이고, 대전지역 거주응답자의 평균월급은 336.7만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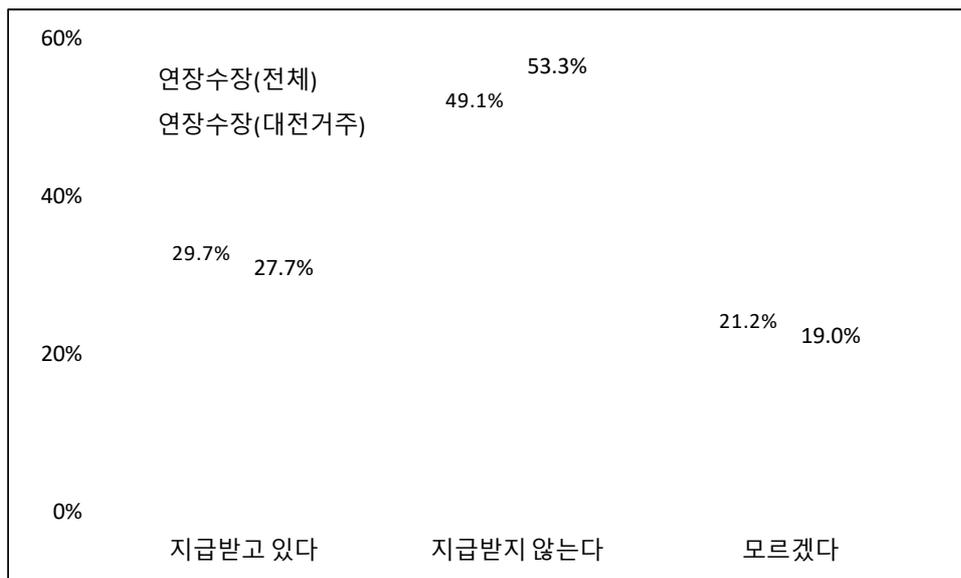
구 분		250만 미만	250~300	300~400	400~500	500만 이상	계	평균
응답 수	전체	6	11	49	30	0	96	339.3만
	대전거주	6	5	42	22	0	75	336.7만
비율	전체	6.3%	11.5%	51.0%	31.3%	0.0%	100%	
	대전거주	8.0%	6.7%	56.0%	29.3%	0.0%	100%	



<설문 6> 우리나라는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시간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초과수당**을 지급받는지요?

- 본 설문항목에 대한 전체응답자는 387명으로, 총응답자 437명 중 50명(11.4%)이 응답하지 않았음.
- 전체응답자의 절반에 상당하는 49.1%(190명)가 초과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응답함. 대전지역 거주응답자는 더 높은 53.3%가 초과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반면 초과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응답은 29.7%(115명)에 불과하고, 모르겠다는 응답 또한 21.2%(82명)로 높은 비율이었음.

구 분		지급받고 있다	않는다	모르겠다	계
응답 수	전체	115	190	82	387
		80	154	55	289
비율	전체	29.7%	49.1%	21.2%	100%
	대전거주	27.7%	53.3%	19.0%	100%



<설문 7> 귀하의 작년(2016년도) 임금수입은 얼마인지요?

- 건설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수입은 2~3천만 원이 가장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38.3%, 156명), 그 다음으로 3~4천만 원이 28.5%(116명), 1~2천만원이 14.5%(59명)라고 응답하였음. 5천만 원 이상의 임금수입은 2.7%(11명)에 불과함.
- 중간값을 적용하여 산술평균한 2016년도 평균 임금수입은 전체응답자는 2,827만원이고, 대전지역 거주응답자는 2,837만원이었음.

구 분		1 미만	1~2천만원	2~3천만원	3~4천만원	4~5천만원	5~6천만원	6~7천만원	7~8천만원	8천만원 이상	계	평균
응답수	전체	27	59	156	116	38	5	2	1	3	407	2,827
	대전거주	16	41	120	92	25	3	2	1	1	301	2,837만
비율	전체	6.6%	14.5%	38.3%	28.5%	9.3%	1.2%	0.5%	0.2%	0.7%	100%	
	대전거주	5.3%	13.6%	39.9%	30.6%	8.3%	1.0%	0.7%	0.3%	0.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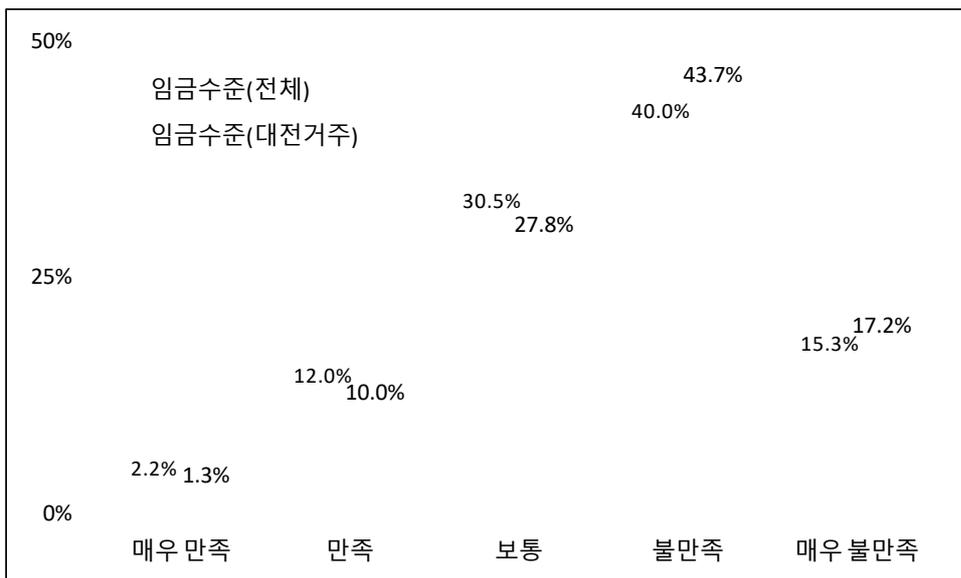


임금등락 및 복지제도 관련

<설문 8> 귀하의 경력이나 숙련도로 볼 때 **현재의 임금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
는지요?

- 전체응답자 중 현재 임금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4.1%에 불과하고, 불만족하
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은 55.4%로 절반이상이었음. 임금수준에 대하여는 대전지역
거주응답자들의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60.8%로 전체응답자보다 조금 더 높았음.
이와 반대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11.3%로 전체응답자보다 낮았음.
- 보통수준이 된다는 응답이 각각 30.5%(전체응답자) 및 27.8%(대전지역 거주응답
자)이었음.
- 전체응답자 중 불만족 응답은 55.3%(=40.0%+15.3%)로서, 만족한다는 응답 13.2%
(=2.2%+12.0%)보다 4.2배 가량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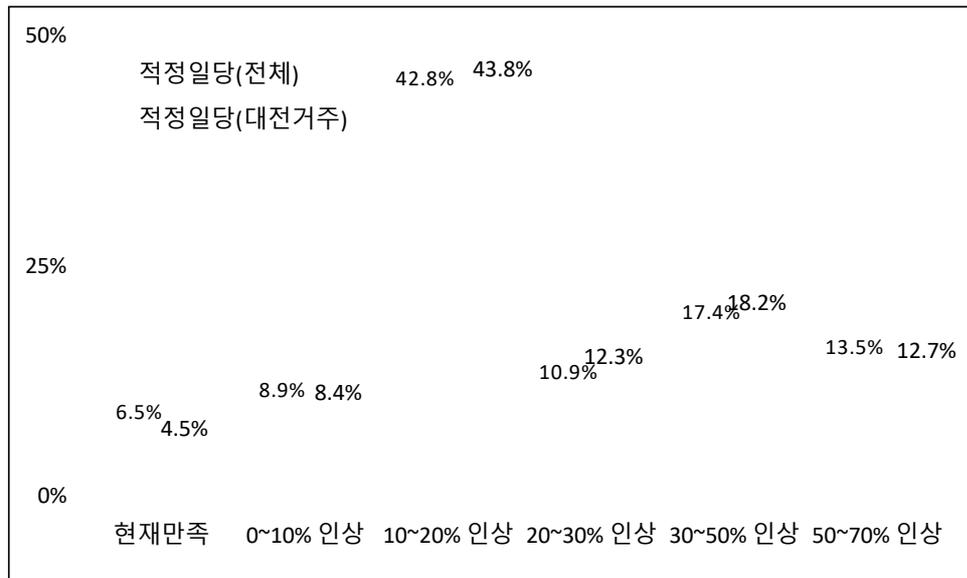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계
응 답 수	전체	9	50	127	167	64	417
		4	31	86	135	53	309
비 율	전체	2.2%	12.0%	30.5%	40.0%	15.3%	100%
	대전거주	1.3%	10.0%	27.8%	43.7%	17.2%	100%



<설문 9> 귀하께서 본인의 경력과 숙련도를 고려할 때, **일당**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요?

- 전체응답자 중 현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5%에 불과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임금수입의 인상정도에 대하여 2만원 인상이 가장 많은 42.8%(177명)이었고, 다음으로는 5만원 인상을 17.4%가 응답하였음. 세 번째로 많은 인상금액 응답은 10만 원 이상 인상구간의 13.5%이었음.
- 단순산술평균한 결과, 적정한 임금수입에 대하여 전체응답자 및 대전지역 거주응답자 모두 현재보다 4.4만원 인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음.

구 분		현재만족	1만원 인상	2만원 인상	4만원 인상	5만원 인상	10만원 이상 인상	계
응답 수	전체	27	37	177	45	72	56	414
	대전거주	14	26	135	38	56	39	308
비율	전체	6.5%	8.9%	42.8%	10.9%	17.4%	13.5%	100%
	대전거주	4.5%	8.4%	43.8%	12.3%	18.2%	12.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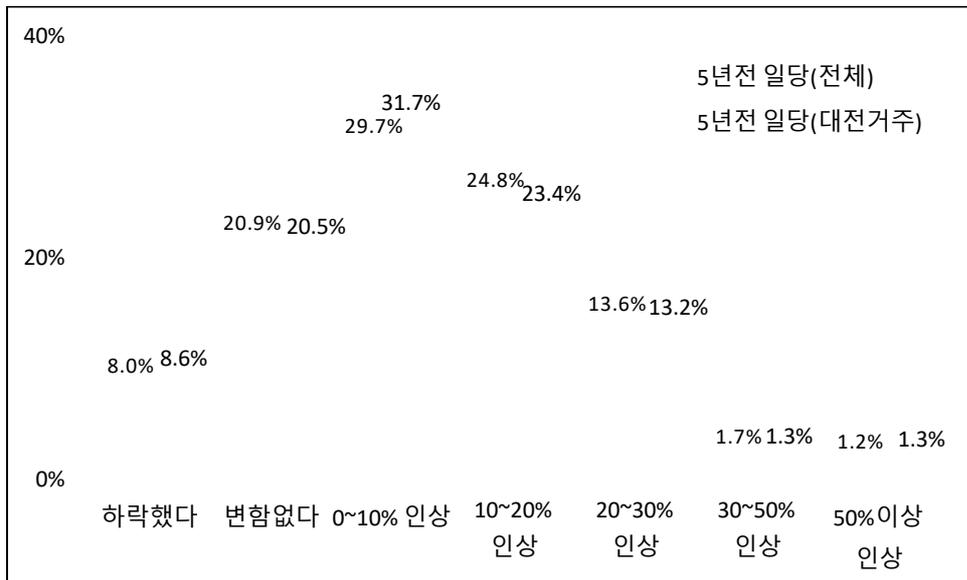


- 본 설문응답 결과 평균 4.4만원의 일당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건설업체에서 수용가능한 적정수준의 인상금액에 대한 응답경향으로 이해됨.

<설문 10> 5년전(약 2011년도)와 비교할 때, 현재 귀하께서 종사하는 직종의 임금(일당)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요?

- 본 설문은 현재의 임금(일당)이 약 5년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인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전체응답자 중 약 70%는 인상되었다고 응답하였지만, 인상정도에 대하여는 10%미만이 가장 많은 29.7%(122명), 그 다음으로 10~20%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24.8%(102명) 순이었음. 30%이상 인상되었다는 응답자는 12명에 불과하였음. 전체응답자 중 20.9%(86명)가 변함없다라고 응답한 반면, 하락했다라는 응답은 8.0%(33명)이었음.
- 단순 산술평균하면, 약 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까지의 임금인상 정도는 전체응답자 9.6%, 대전지역 거주응답자 9.3%로 분석되었음.
 - 약 5년 전과 비교하여 9.3%~9.6%의 인상은 연평균 인상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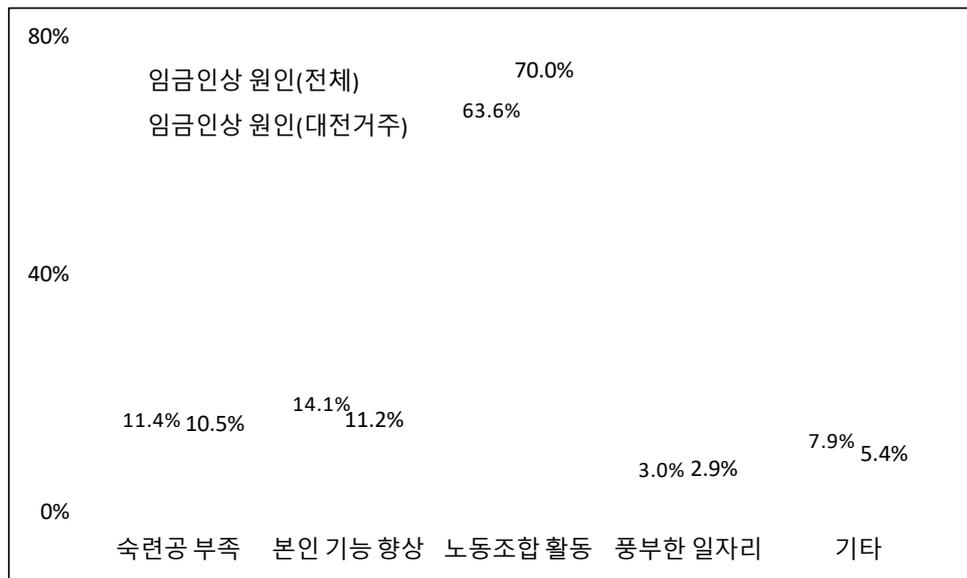
구 분			변함없다	0~10% 인상	10~20% 인상	20~30% 인상	30~50% 인상	50%이상 인상	계
응답 수	전체	33	86	122	102	56	7	5	411
	대전거주	26	62	96	71	40	4	4	303
비율	전체	8.0%	20.9%	29.7%	24.8%	13.6%	1.7%	1.2%	100%
	대전거주	8.6%	20.5%	31.7%	23.4%	13.2%	1.3%	1.3%	100%



<설문 11-1> (인상된 경우라면) 임금이 인상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전체응답자의 응답결과를 보면, 임금(일당)이 인상된 가장 큰 원인으로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응답자가 63.6%(234명)로 가장 많았음. 그 외 본인 기능향상이 14.1%, 숙련공 부족때문이라는 응답이 11.4%이었음.
- 대전지역 거주응답자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하였는데, 응답비율은 70.0%로서 전체응답자보다 다소 높았음.

구 분		숙련공 부족	본인 기능 향상	노동조합 활동	풍부한 일자리	기타	계
응답 수	전체	42	52	234	11	29	368
	대전거주	29	31	194	8	15	277
비율	전체	11.4%	14.1%	63.6%	3.0%	7.9%	100%
	대전거주	10.5%	11.2%	70.0%	2.9%	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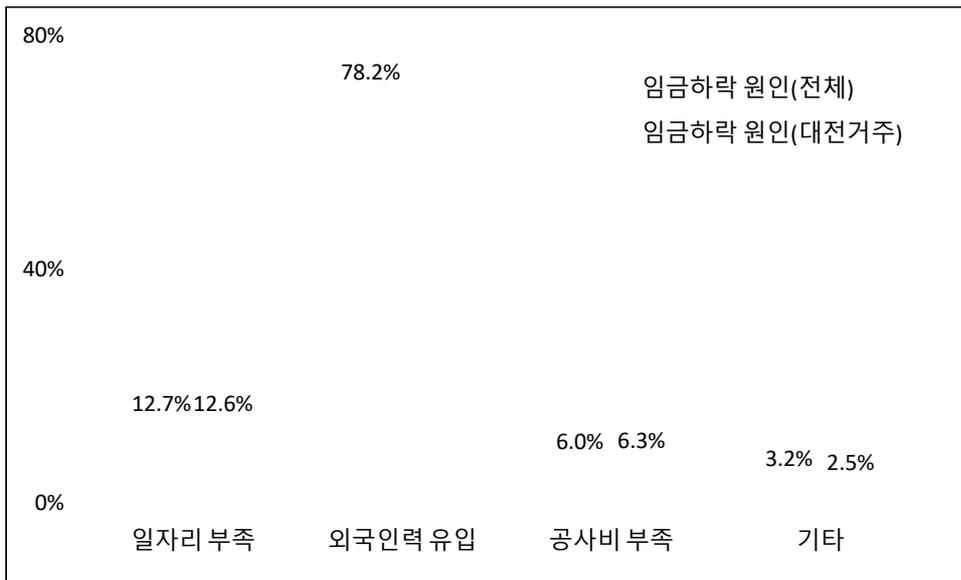


- 본 설문 응답결과는 노동조합 활동을 임금인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는 설문응답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도 노조활동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사료됨.

<설문 11-2> (변함없거나 하락한 경우라면) 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응답자는 총 설문참여자 437명 중 316명으로, 무응답이 121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음.
- 전체응답자 중 78.2%(247명)에 달하는 거의 대다수가 외국인력 유입을 임금하락 원인으로 지목하였음.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부족을 원인으로 응답하였음(12.7%). 반면 공사비 부족이 원인이라는 응답은 3.2%(10명)에 불과하였음.

구 분		일자리 부족	외국인력 유입	공사비 부족	기타	계
응답 수	전체	40	247	19	10	316
		30	188	15	6	239
비율	전체	12.7%	78.2%	6.0%	3.2%	100%
	대전거주	12.6%	78.7%	6.3%	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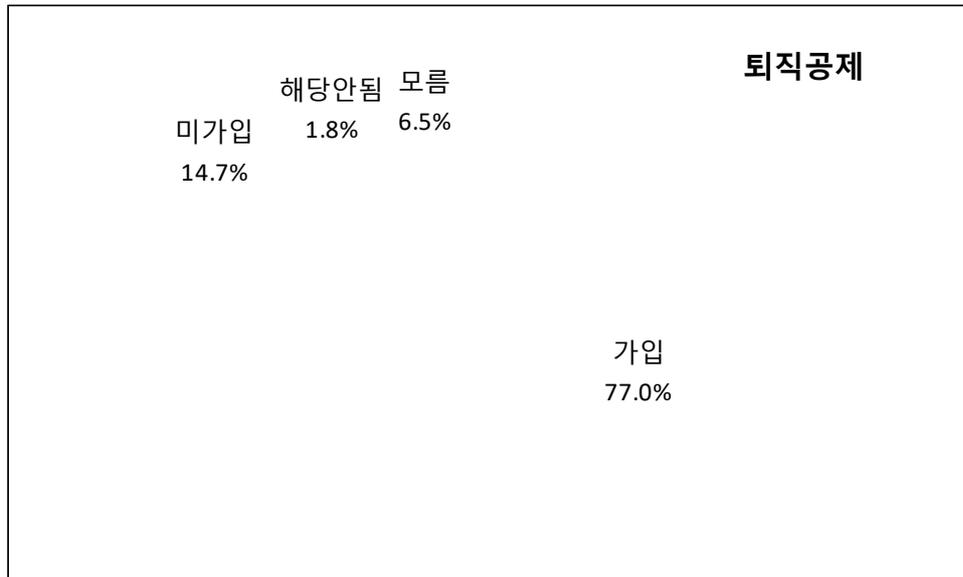
- 기타 응답으로, 물가변동을 임금인상이 되지 않은 이유로 응답한 사례가 일부 있었음. <설문 10>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임금인상 정도가 약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를 물가상승률과 상계하면 오히려 하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 됨.

<설문 12>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및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퇴직공제부금

- 퇴직공제 가입여부에 대하여는, 77.0%(294명)가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음.
- 퇴직공제 가입비율이 높은 것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 중대형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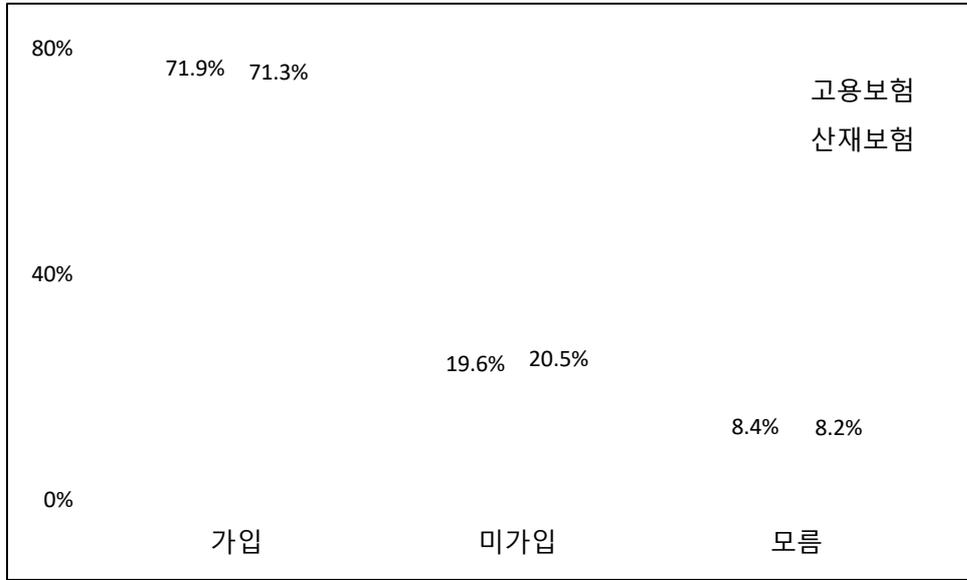
구 분	가입	미가입	해당안됨	모름	계
응답자수	294	56	7	25	382
퇴직공제	77.0%	14.7%	1.8%	6.5%	100%



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응답 비율은 각각 71.9% 및 71.3%이었음.
- 퇴직공제, 고용보험은 건설노동자의 직접적 부담이 없는 안전보장장치임에도, 미가입율이 각각 19.6%(72명), 20.5%(75명)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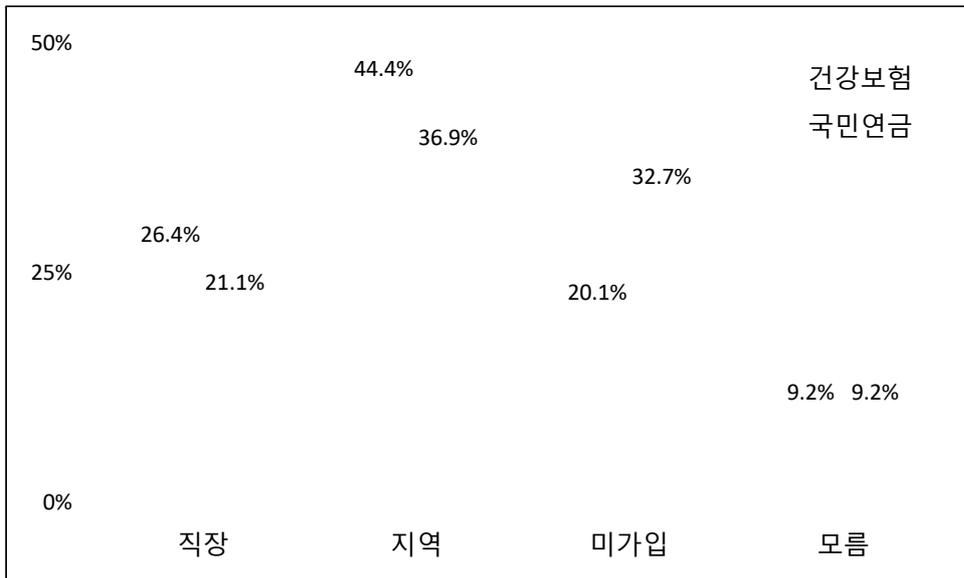
구 분		가입	미가입	모름	계
응답자	고용보험	264	72	31	367
	산재보험	261	75	30	366
비율	고용보험	71.9%	19.6%	8.4%	100%
	산재보험	71.3%	20.5%	8.2%	100%



③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건설일용노동자의 직장(현장)가입 응답률은 26.4% 및 21.1%로 낮았음.
- 직장가입율이 낮다보니, 지역가입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미가입을 또한 높음.

구분		직장가입	지역가입	미가입	모름	계
응답자	건강보험	92	155	70	32	349
	국민연금	71	124	110	31	336
비율	건강보험	26.4%	44.4%	20.1%	9.2%	100%
	국민연금	21.1%	36.9%	32.7%	9.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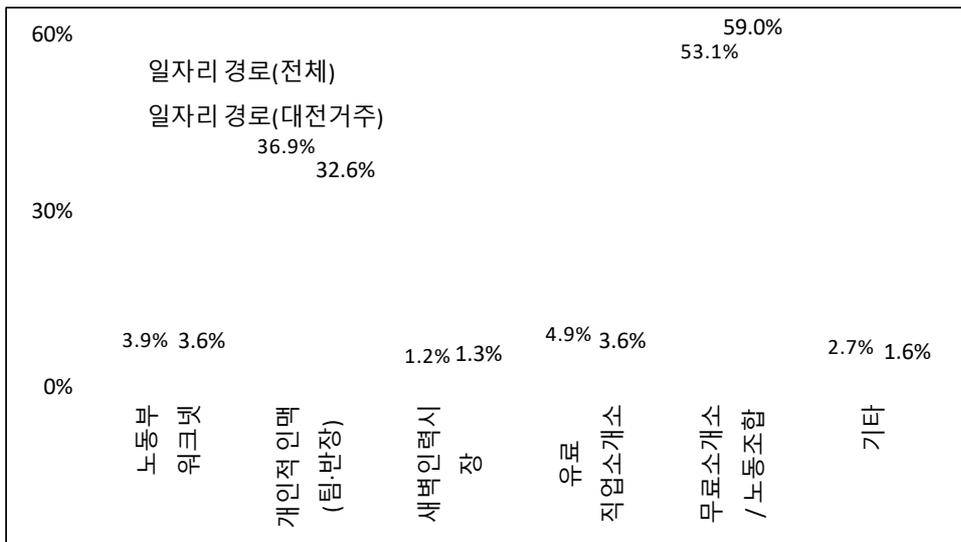


고용 및 기능훈련 관련

<설문 13> 귀하께서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일자리를 얻는지요?

- 전체응답자 중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53.1%(217명)는 무료직업소개소 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일자리를 얻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적 인맥이라는 응답이 36.9%(151명)로 많았음.
- 반면 공적인 영역인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얻는다는 응답은 3.9%(16명)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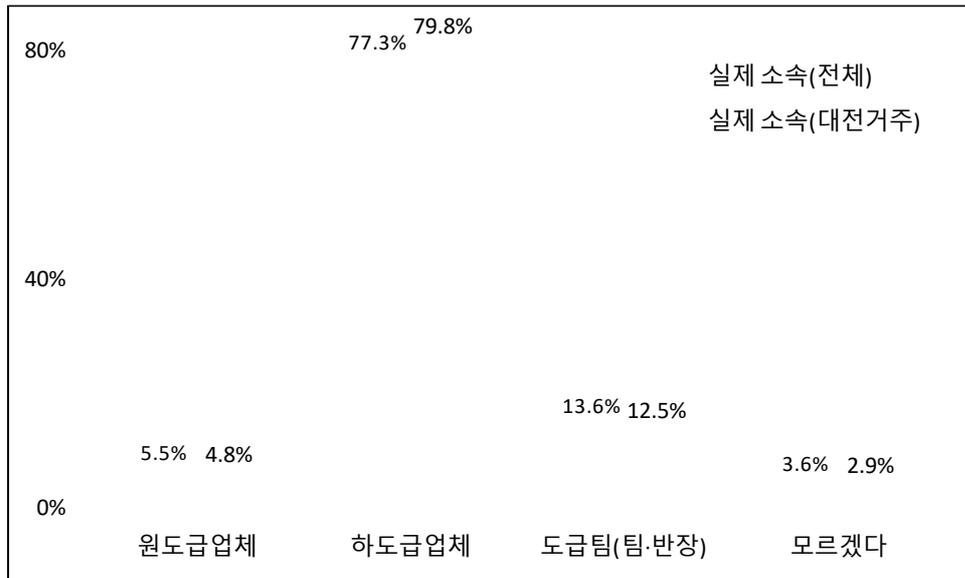
구 분		워크넷	개인적 인맥 (팀·반장)	새벽 인력시장	유료 직업소개소	무료소개소 / 노동조합	기타	계
응답 수	전체	16	151	5	20	217	11	409
	대전거주	11	100	4	11	181	5	307
비율	전체	3.9%	36.9%	1.2%	4.9%	53.1%	2.7%	100%
	대전거주	3.6%	32.6%	1.3%	3.6%	59.0%	1.6%	100%



<설문 14> 귀하께서는 실제로 어떤 업체(또는 팀)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지요?

- 전체응답자 중 거의 대부분은 하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음(77.3%). 팀·반장과 같은 도급팀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응답자는 13.6%(57명) 이었음. 이러한 두 가지 경우 소계는 90.9%로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이 모두 영세한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자에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함.
- 반면 원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한다는 응답은 5.5%(23명)에 불과하였음. 즉, 원도급업체에서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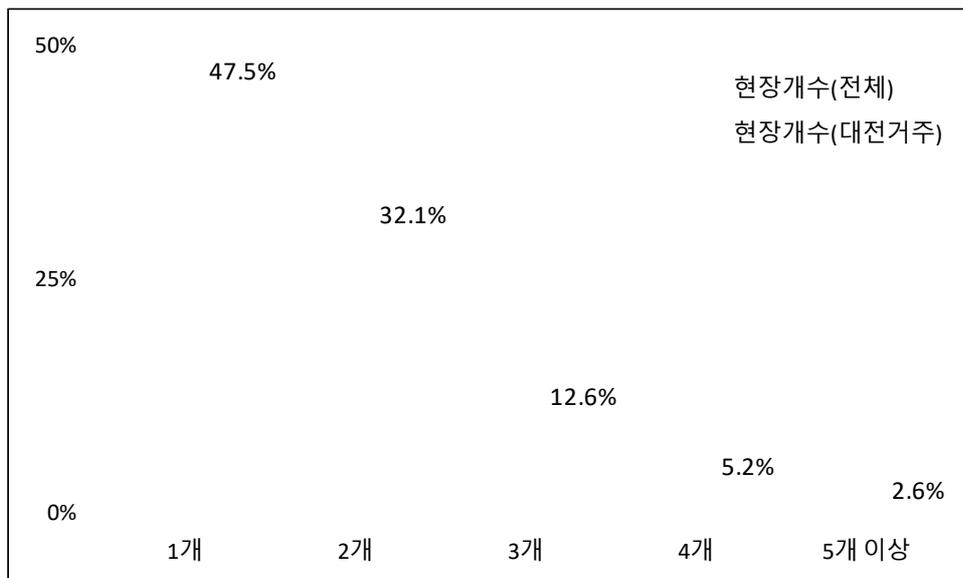
구 분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도급팀 (팀·반장)	모르겠다	계
응답수	전체	23	324	57	15	419
		15	249	39	9	312
비율	전체	5.5%	77.3%	13.6%	3.6%	100%
	대전거주	4.8%	79.8%	12.5%	2.9%	100%



<설문 15> 최근 한 달 사이에 근무한 **건설현장 개수**는 몇 개 인지요?

- 전체응답자 중 절반 정도인 47.5%(203명)는 1개 현장에서만 근무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절반정도는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현장 근무하고 있음.
-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은 일당직이다보니 현장이동이 빈번함.
- 산술평균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평균 근무 현장수는 1.8개 이었음.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년평균 약 10.6개(=0.8개×12개월+1개) 현장을 떠돌아다닌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 분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
응답 수	전체	203	137	54	22	11	427
		146	105	42	17	8	318
비 율	전체	47.5%	32.1%	12.6%	5.2%	2.6%	100%
	대전거주	45.9%	33.0%	13.2%	5.3%	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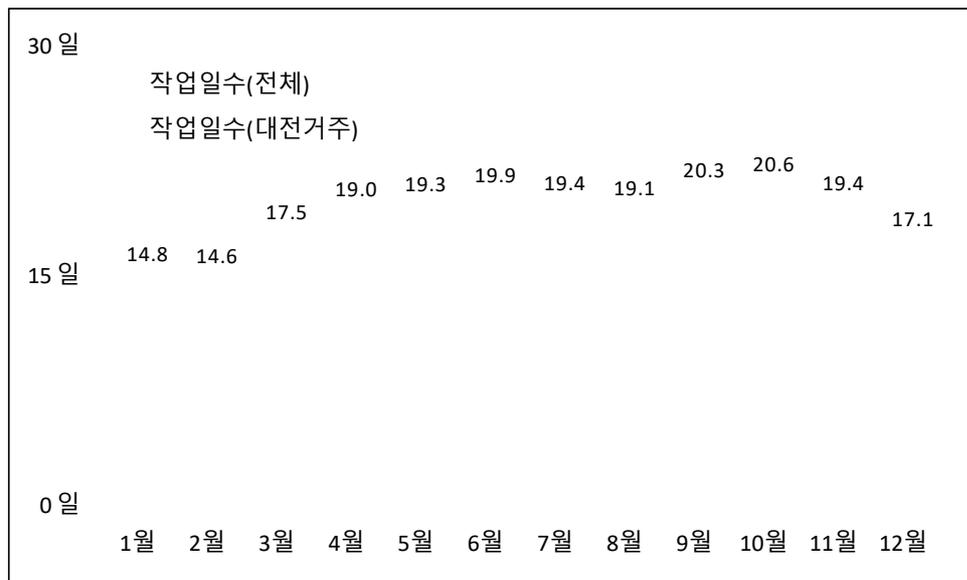


<설문 16> 최근 1년간 월평균 건설현장 **작업일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___ 일											

- 최근 1년 동안의 월별로 작업한 일수를 기입토록 하였음.
- 1년 중 9월 및 10월의 월평균 작업일수가 20일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1월 및 2월의 작업일수는 1개월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각각 14.8일 및 14.6일 이었음.
- 최근 1년간 작업일수가 전체응답자는 222.4일이고, 대전지역 거주응답자는 221.0일이었음. 월평균으로 단순환산하면 전체응답자는 18.5일이고, 대전지역 거주응답자는 18.4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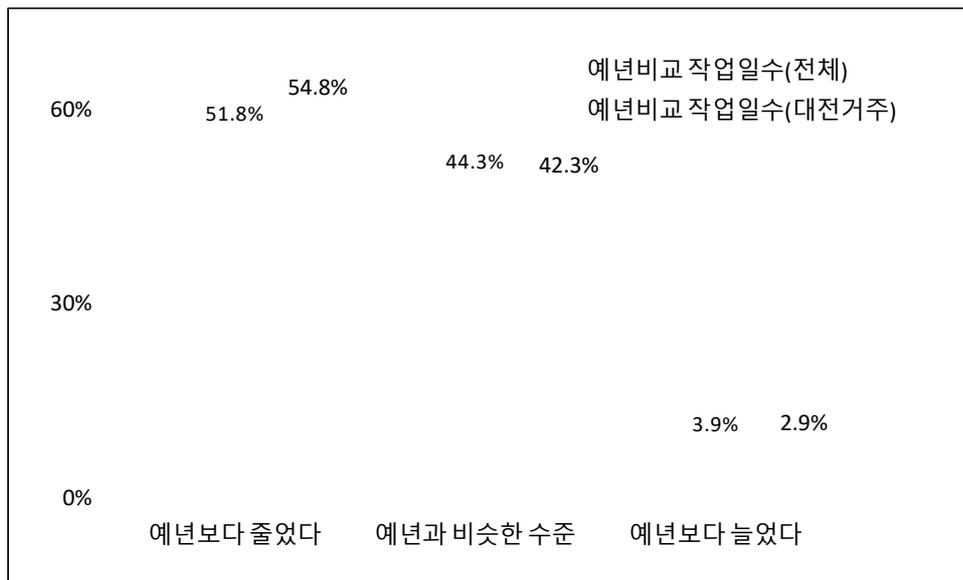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전체	15.0	14.9	17.5	19.0	19.4	19.8	19.5	19.3	20.4	20.7	19.5	17.4	222.4
대전거주	14.8	14.6	17.5	19.0	19.3	19.9	19.4	19.1	20.3	20.6	19.4	17.1	221.0



<설문 17> 예년과 비교하여, 일하는 근무일수가 어떠한지요?

- 전체응답자의 절반을 약간 초과하는 51.8%(215명)는 예년보다 근무일수가 줄었다고 응답하였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44.3%(184명)이었음.
- 반면 예년보다 근무일수가 늘었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하였음.

구 분		예년보다 줄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	예년보다 늘었다	계
응답 수	전체	215	184	16	415
		171	132	9	312
비율	전체	51.8%	44.3%	3.9%	100%
	대전거주	54.8%	42.3%	2.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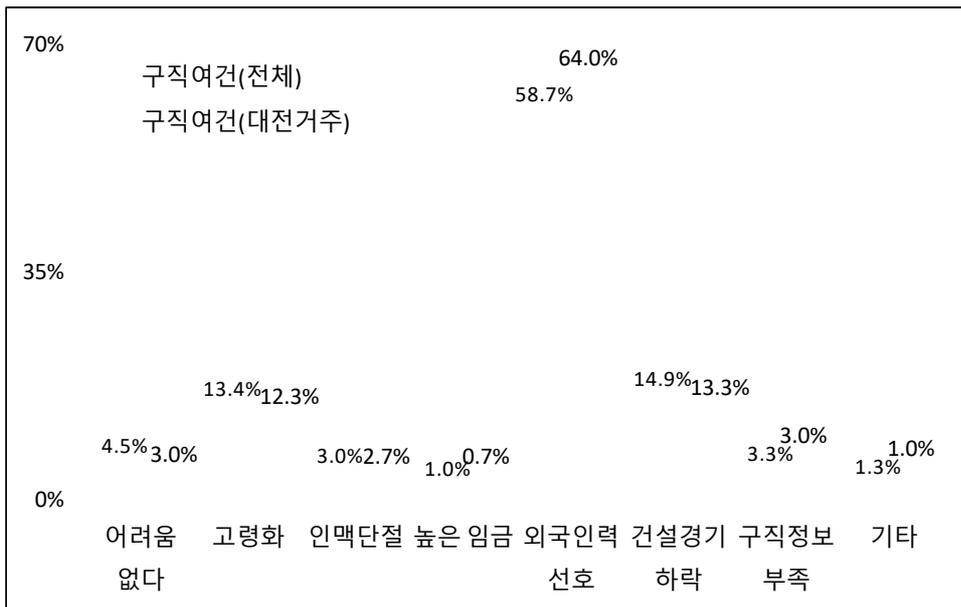


- 근무일수 감소는 구직 어려움으로 나타나므로, 구직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항목으로 <설문 18>을 설정하였음.

<설문 18> 만약 귀하의 구직이 어렵다면, **구직이 어려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구직이 어려운 원인으로, 전체응답자는 '건설업체의 외국인력 선호'를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하였고(58.7%), 그 다음으로 건설경기 하락 14.9%, 고령화 13.4%로 응답하였음.
- 낮은 응답비율이지만 구직정보 부족(3.3%) 및 인맥단절(3.0%)을 구직이 어려운 원인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 반면, 구직어려움 없다라는 응답은 4.5%에 불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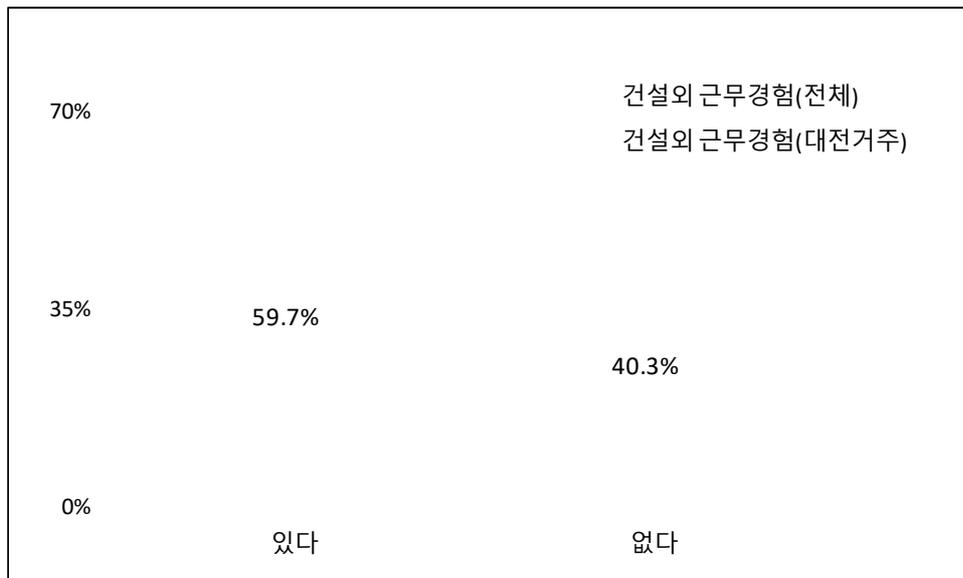
구분		어려움 없다	고령화	인맥 단절	높은 임금	선호	건설경기 하락	구직정보 부족	기타	계
응답 수	전체	18	53	12	4	233	59	13	5	397
	대전거주	9	37	8	2	192	40	9	3	300
비율	전체	4.5%	13.4%	3.0%	1.0%	58.7%	14.9%	3.3%	1.3%	100%
	대전거주	3.0%	12.3%	2.7%	0.7%	64.0%	13.3%	3.0%	1.0%	100%



<설문 19-1> 건설현장 이외의 직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요?

-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는 다른 직종에 근무한 이후에 새롭게 진입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건설현장 이외의 직종에 근무한 경험여부를 설문하였음.
- 전체응답자 현황을 보면, 약 60%에 해당하는 59.7%가 다른 직종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다른 직종 경험없이 건설현장이 애초 직종인 응답비율은 40.3%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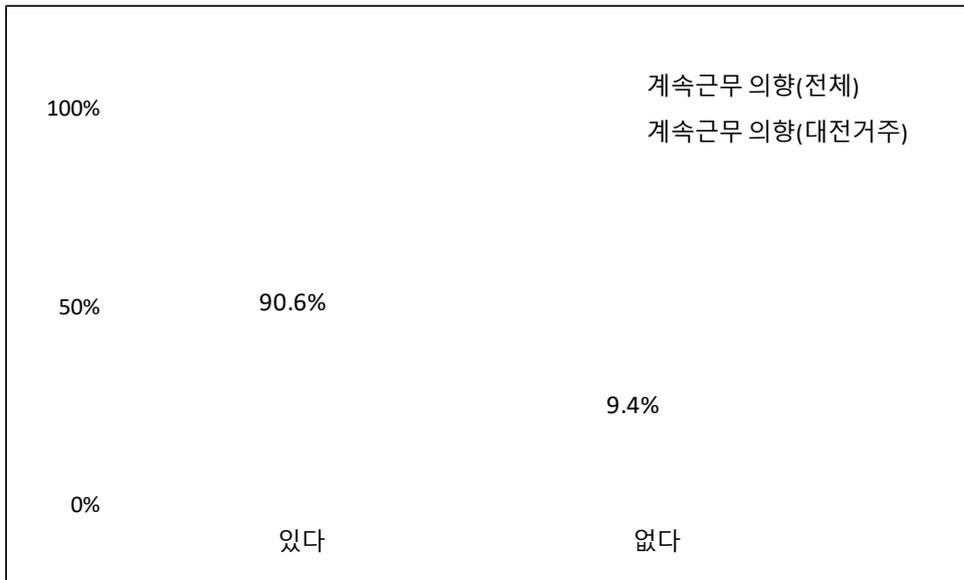
구 분		있다	없다	계
응답수	전체	249	168	417
		194	117	311
비율	전체	59.7%	40.3%	100%
	대전거주	62.4%	37.6%	100%



<설문 19-2> 귀하께서는 **건설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요?

- 건설현장으로 진입한 일용노동자가 계속 건설업으로 종사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문하였음.
- 전체응답자 중 절대 다수인 90.6%(375명)가 건설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10명 중 1명꼴 정도는 계속 근무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구 분		있다	없다	계
응답수	전체	375	39	414
		285	26	311
비율	전체	90.6%	9.4%	100%
	대전거주	91.6%	8.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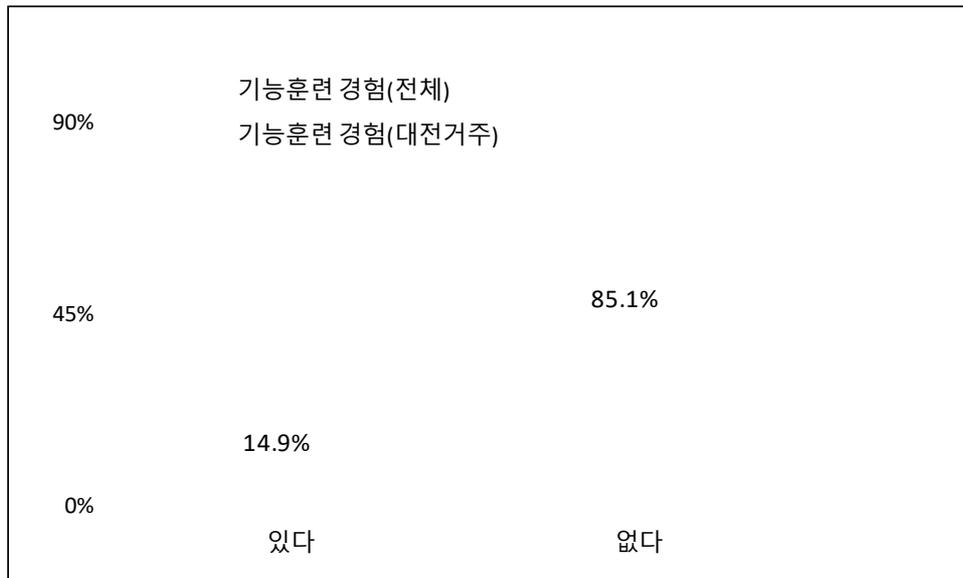


-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일자리는 일자리 불안정, 임금불만, 낮은 공적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향이 의외로 높게 나타났음. 구체적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내적으로 건설현장 일자리가 육체노동자로서는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외적으로는 타 산업 일자리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을 것임.

<설문 20-1> 최근 3년 이내 건설관련 기능훈련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 본 설문과 후술한 <설문 21> 및 <설문 22>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기능훈련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함임.
- 전체응답자 중에서 건설관련 기능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4.9%(62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5.1%(354명)은 기능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 본 설문결과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기능인력들은 별도의 체계적 양성시스템없이 자생적으로 기능을 연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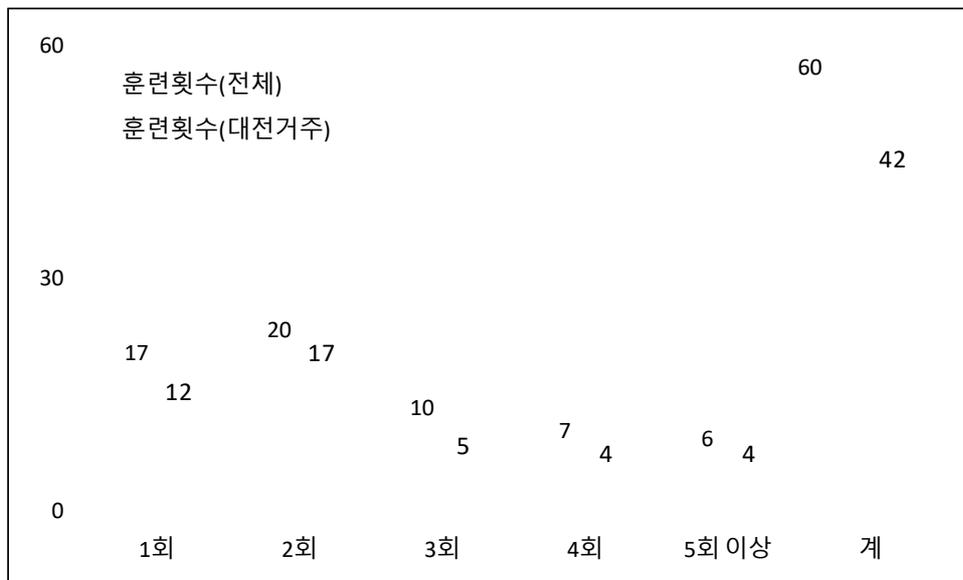
구 분		있다	없다	계
응답 수	전체	62	354	416
		44	270	314
비율	전체	14.9%	85.1%	100%
	대전거주	14.0%	86.0%	100%



<설문 20-2> (기능훈련을 받았다면) 최근 3년 이내 **기능훈련**을 몇 번 받았는지요??

- 설문응답에서 전술한 <설문 20-1>에서 기능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의 응답만을 정리하였음.
- 기능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응답자는 0명이었음. 기능훈련 횟수는 1~2회 경험이 대부분이었으나, 5회 이상 받은 응답자도 10.0%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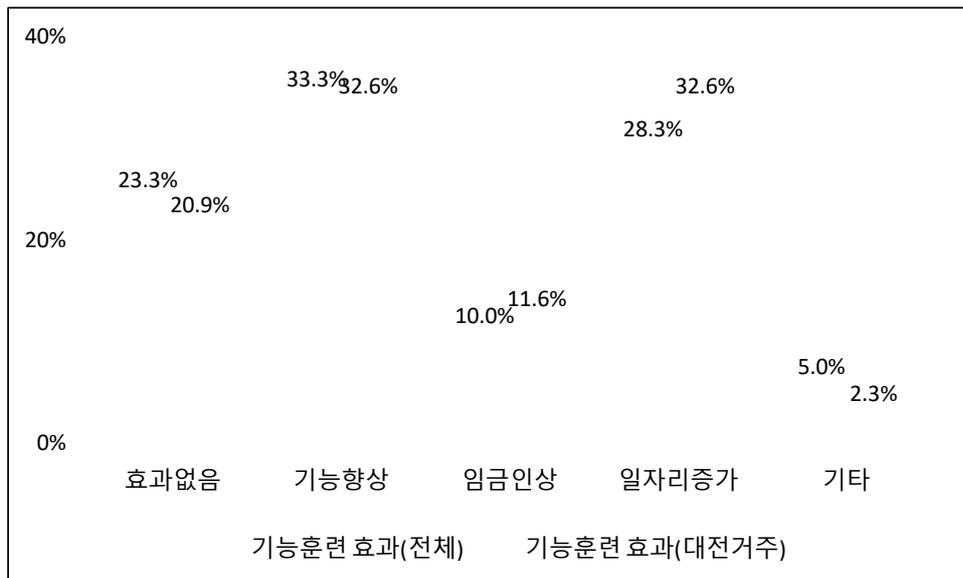
구 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응답 수	전체	17	20	10	7	6	60
	대전거주	12	17	5	4	4	42
비율	전체	28.3%	33.3%	16.7%	11.7%	10.0%	100%
	대전거주	28.6%	40.5%	11.9%	9.5%	9.5%	100%



<설문 21> (기능훈련을 받은 경우) 가장 큰 기능훈련의 효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본 설문 또한 전술한 <설문 20-1>에서 기능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의 응답만을 정리하였음.
- 전체응답자 중 1/3에 해당하는 33.3%는 기능향상을 효과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 효과로는 일자리 증가이었음(28.3%).
- 그런데 기능훈련의 효과가 없다는 응답 또한 23.3%로 응답하였는바, 향후 기능훈련학교 설립·운영시 고려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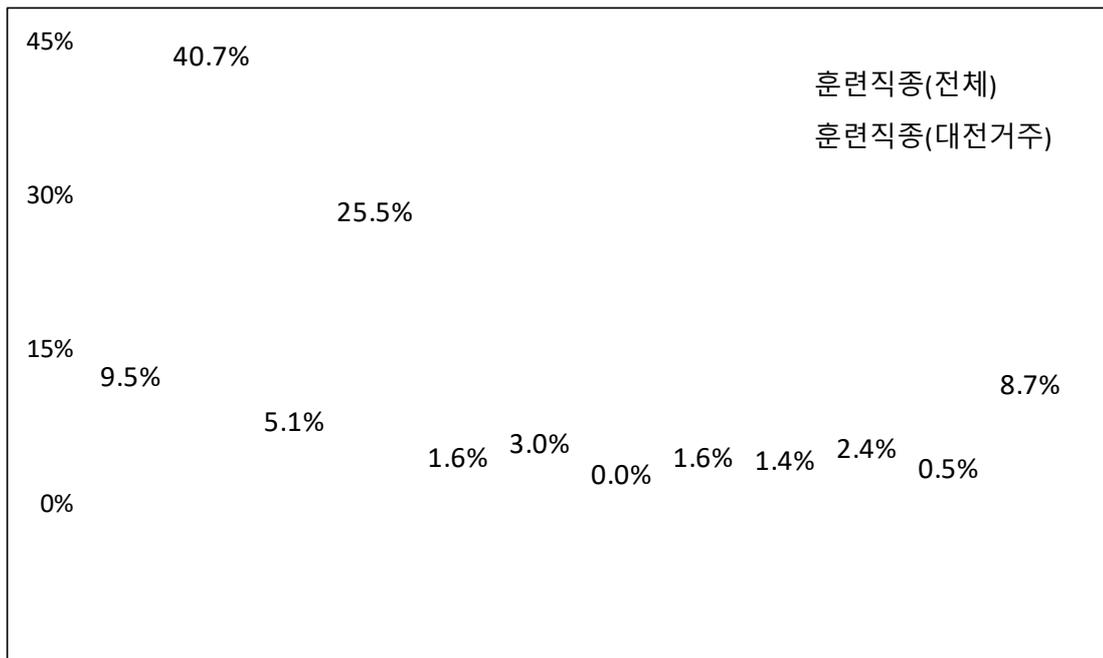
구 분		효과없음	기능향상	임금인상		기타	계
응답수	전체	14	20	6		17	60
		9	14	5		14	43
비율	전체	23.3%	33.3%	10.0%		28.3%	100%
	대전거주	20.9%	32.6%	11.6%		32.6%	100%



<설문 22> 기능훈련을 받게 된다면, 무슨 직종 **기능훈련**을 받고 싶은지요?

- 본 설문은 기능훈련학교를 설립할 경우, 어떤 직종의 수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임.
- 전체응답자의 40.7%(150명)는 형틀목공, 그 다음 25.5%(94명)은 철근공 관련 기능훈련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 한편 특정 직종과 상관없이 기능훈련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9.5%이었음.
- 기타 직종으로는 타일공, 내장공 및 인테리어 직종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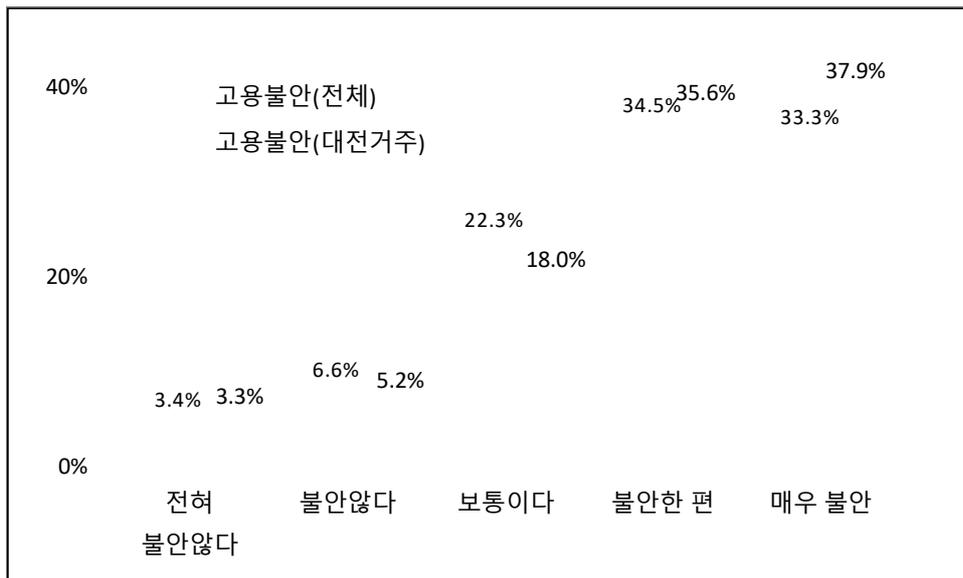
구 분		없음	형틀목공	건축목공	철근공	배관공	용접공	전공	미장공	타일공	조적공	기타	계
응답수	전체	35	150	19	94	6	11	6	5	9	2	32	369
	대전거주	29	110	13	76	3	8	3	4	7	2	23	278
비율	전체	9.5%	40.7%	5.1%	25.5%	1.6%	3.0%	1.6%	1.4%	2.4%	0.5%	8.7%	100%
	대전거주	10.4%	39.6%	4.7%	27.3%	1.1%	2.9%	1.1%	1.4%	2.5%	0.7%	8.3%	100%



<설문 23> 귀하께서는 건설현장에서의 **고용불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요?

- 전술한 <설문 14>에서 보았듯이 거의 대부분 건설노동자는 하도급업체나 재하도급자에게 소속되어 있어 고용불안이 매우 높음. 아울러 <설문 2>와 같이 건설노동자 임금은 일당으로 지급받는 일용노동자이기에, 상시 고용불안 상태에 있는 직업군(群)임.
-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건설현장의 고용불안 정도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음. 전체응답자 중 34.5%는 불안한 편으로, 33.3%는 매우 불안한 편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반면 건설현장의 고용상황이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10.0%(=3.4%+6.6%)에 불과함.

구분		전혀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지 않다	보통이다	불안한 편이다	매우 불안한 편이다	계
응답수	전체	14	27	92	142	137	412
	대전거주	10	16	55	109	116	306
비율	전체	3.4%	6.6%	22.3%	34.5%	33.3%	100%
	대전거주	3.3%	5.2%	18.0%	35.6%	37.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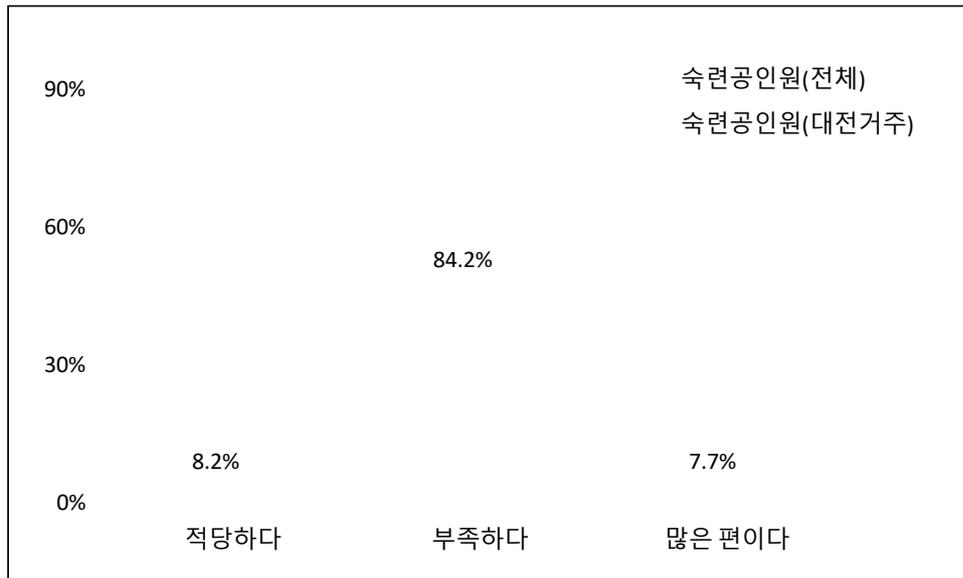
- 건설현장 고용불안 정도를 5점 척도로 보면, 3.9점으로 매우 불안한 편에 근접되어 있음.

건설기능인력 및 외국노동자 관련

<설문 24>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기능인력 **숙련공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요?

- 현재 자신의 직종에 속한 내국인 숙련공 인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문임.
- 응답내용은 내국인 숙련공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거의 대부분이었음. 전체응답자의 84.2%(351명)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적당하다거나 많은 편이라는 응답은 각각 8.2% 및 7.7%에 불과하였음.

구 분		적당하다	부족하다	많은 편이다	계
응답 수	전체	34	351	32	417
		24	267	21	312
비율	전체	8.2%	84.2%	7.7%	100%
	대전거주	7.7%	85.6%	6.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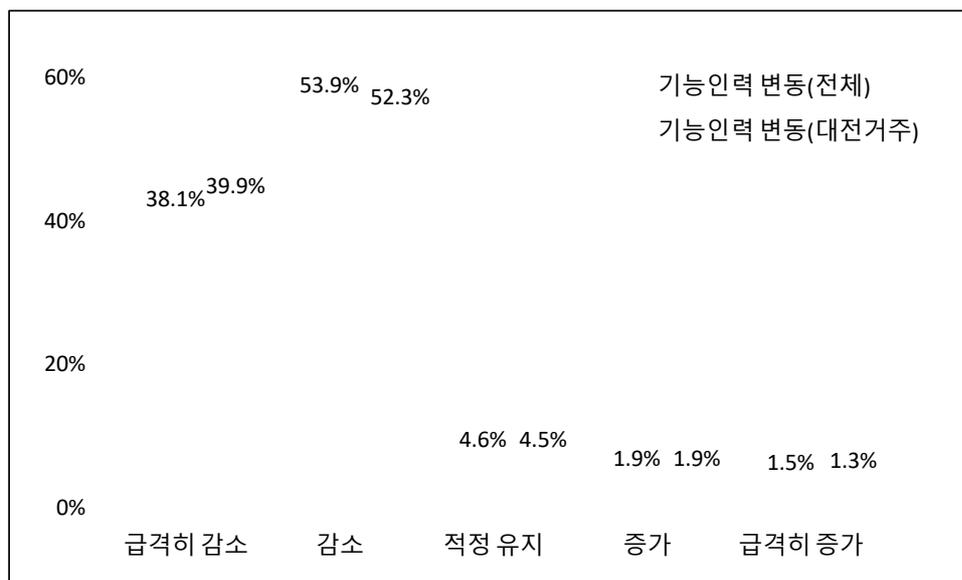


- 상기 설문응답에 따르면 내국인 숙련공 양성이 시급함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양립되는 일자리부족과 숙련공 부족을 동시에 발생한다는 응답이었음.

<설문 25>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기능인력 인원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향후 내국인 숙련공 인원수에 대한 변동정도 설문임.
- 전체응답자 응답내용에 따르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3.9%(222명)로서 절반 이상이었고,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또한 38.1%이었음. 즉 응답자의 92.0%가 내국인 숙련공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었음.
- 반면 적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4.6%에 불과하여, 건설산업의 하부구조인 숙련공부족 문제가 직접당사자인 일용노동자 또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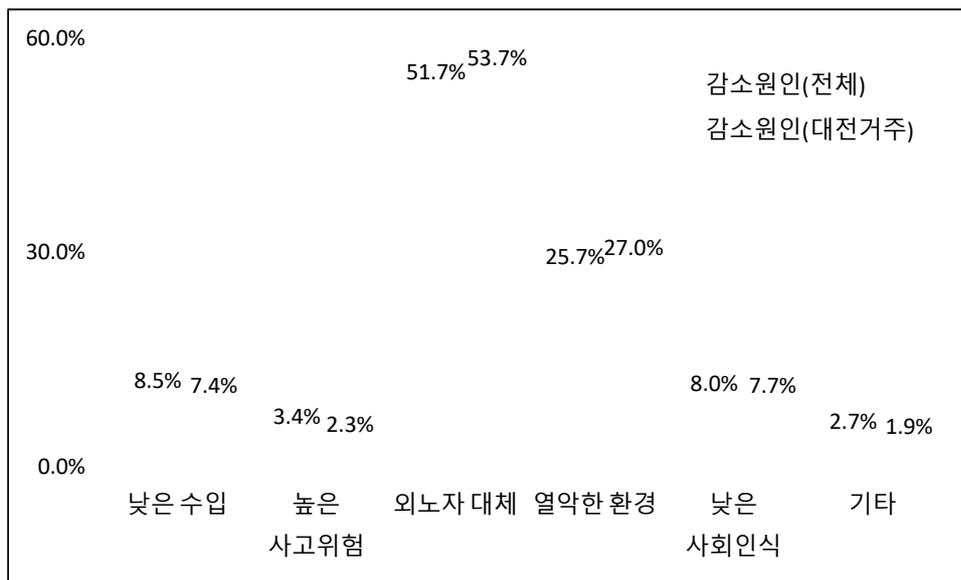
구 분		급격히 감소	감소	적정 유지	증가	급격히 증가	계
응답 수	전체	157	222	19	8	6	412
		123	161	14	6	4	308
비율	전체	38.1%	53.9%	4.6%	1.9%	1.5%	100%
	대전거주	39.9%	52.3%	4.5%	1.9%	1.3%	100%



<설문 26> (줄어든다면) 기능인력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향후 내국인 숙련공 인원 감소원인에 대한 설문이었는데, 응답결과를 보면 약 100여명이 복수응답을 하였음. 복수응답이 많았다는 것은, 제시된 선택항목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됨.
- 전체응답자 내용을 보면, 외국인노동자로의 대체를 원인으로 선택한 응답이 절반이 넘는 51.7%(213명)이었음. 그 다음으로 열악한 환경을 25.7%라고 응답하였음.
-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낮은 수입(임금), 낮은 사회적인식 및 높은 안전사고 위험 등을 원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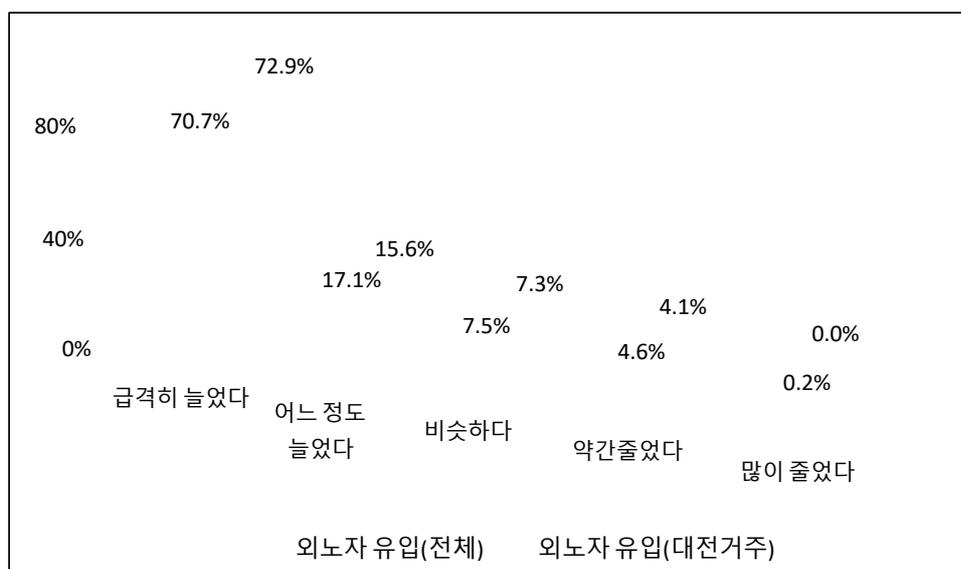
구 분		낮은 수입	높은 사고위험	외노자 대체	열악한 환경	낮은 사회인식	기타	계
응답 수	전체	35	14	213	106	33	11	412
	대전거주	23	7	167	84	24	6	311
비율	전체	8.5%	3.4%	51.7%	25.7%	8.0%	2.7%	100%
	대전거주	7.4%	2.3%	53.7%	27.0%	7.7%	1.9%	100%



<설문 27-1> 5년전(2011년도)와 비교할 때, **외국인력의 유입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요?

- 전체응답자의 응답결과를 보면, 건설노동자의 대다수는 약 5년 전과 비교하여 외국인력 유입이 급격히 늘었다는 응답이 70.7%(294명), 어느 정도 늘었다는 응답이 17.1%(71명)로서 합계 87.8%가 외국인력이 늘었다고 응답하였음.
- 비슷하다거나 줄었다라는 응답비율은 매우 낮았음. 많이 줄었다라는 응답은 단 1명에 불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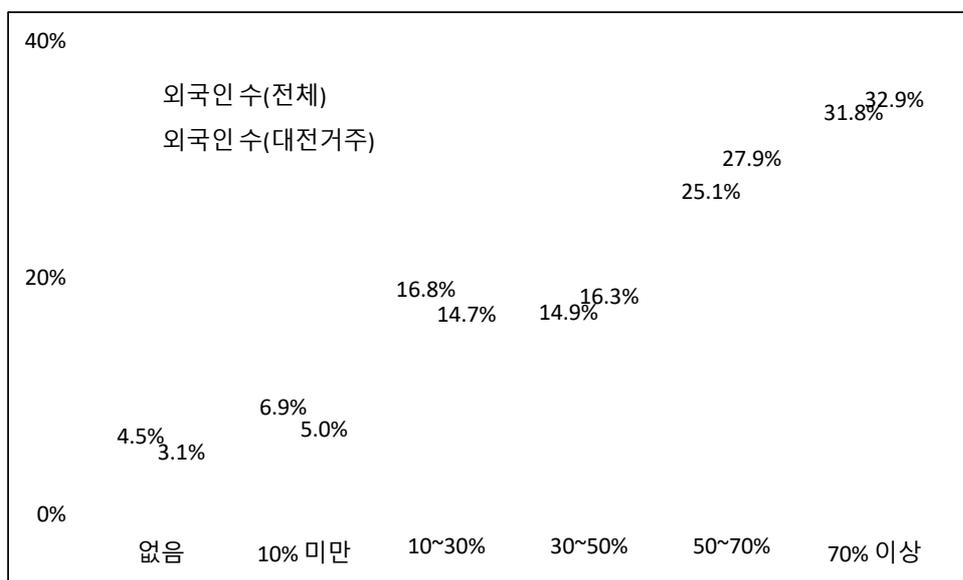
구 분		급격히 늘었다	어느 정도 늘었다	비슷하다	약간 줄었다	많이 줄었다	계
응답 수	전체	294	71	31	19	1	416
		229	49	23	13	0	314
비율	전체	70.7%	17.1%	7.5%	4.6%	0.2%	100%
	대전거주	72.9%	15.6%	7.3%	4.1%	0.0%	100%



<설문 27-2> 현재 귀하의 현장에서 **외국인력의 투입정도(전체 출력인원 대비)
는 어느 정도인가요?**

-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력 투입정도 비율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으로, 선택구간은 외국인력이 전혀없음부터 70%이상의 6개 구간으로 제시하였음.
- 설문응답 결과, 외국인력 투입비율이 높을수록 응답비율 또한 같이 높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전체응답자의 응답결과를 보면, 외국인력이 70%이상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아래구간인 외국인력이 50~70% 정도 차지한다는 응답이 25.1%로 2순위이었음.
* 응답결과 : 없음(4.5%) → 10%미만(6.9%) → 10~30%(16.8%) → 30~50%(14.9%) → 50~70%(25.1%) → 70%이상(31.8%)
- 반면 외국인력이 없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하였음.
- 산술평균하여 외국인력 투입 정도를 산정한 결과, 전체응답자는 전체 출력인원 대비 50.2%, 대전지역 거주응답자는 52.8%라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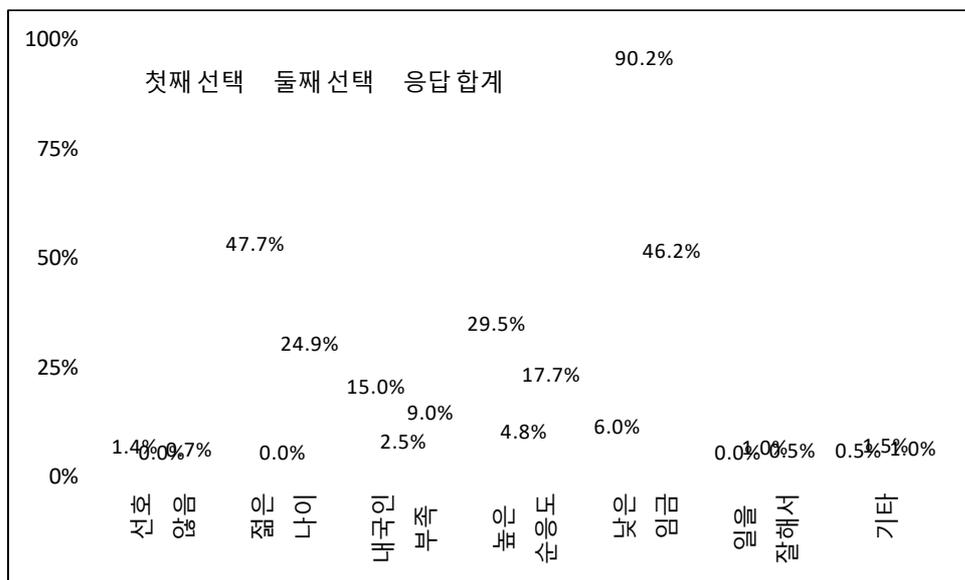
구 분		없음	10% 미만	10~30%	30~50%	50~70%	70% 이상	계
응답 수	전체	19	29	71	63	106	134	422
		10	16	47	52	89	105	319
비율	전체	4.5%	6.9%	16.8%	14.9%	25.1%	31.8%	100%
	대전거주	3.1%	5.0%	14.7%	16.3%	27.9%	32.9%	100%



**<설문 28> 건설업체들이 외국인력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요? [2개 선택]**

- 본 설문은 외국인력 선호이유를 2개 선택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선택한 번호 순서로 단순 집계하여 설문결과를 정리하였음. 첫째 선택 응답은 434명이, 둘째 선택 응답은 397명으로 합계 831개가 응답되었음.
- 전체응답자 중 첫째 선택은 '나이가 젊어서' 선호한다는 응답이 47.7%(2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 선택에서는 '낮은 임금'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90.2%, 358명).
- 응답 합계의 경우에도, 낮은 임금이 4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젊은 나이가 24.9%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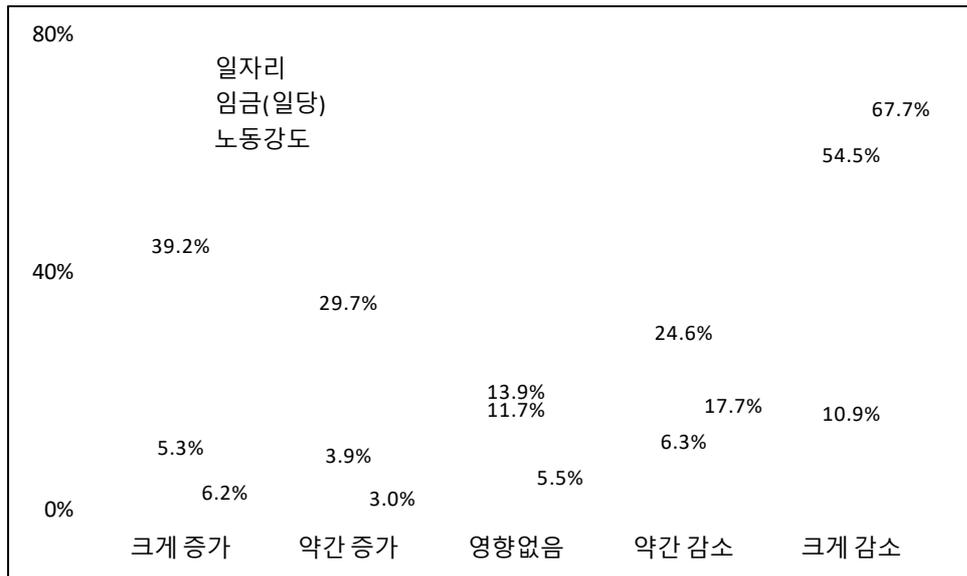
구분		선호 않음	젊은 나이	내국인 부족	높은 순응도	낮은 임금	일을 잘해서	기타	계
응답 수	첫째	6	207	65	128	26	0	2	434
	둘째	0	0	10	19	358	4	6	397
	합계	6	207	75	147	384	4	8	831
비율	첫째	1.4%	47.7%	15.0%	29.5%	6.0%	0.0%	0.5%	100%
	둘째	0.0%	0.0%	2.5%	4.8%	90.2%	1.0%	1.5%	100%
	합계	0.7%	24.9%	9.0%	17.7%	46.2%	0.5%	1.0%	100%



<설문 29>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를 체크해 주세요.

- 본 설문은 외국인노동자 유입으로 응답자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자리(근무일수), 임금(일당) 및 노동강도의 3가지에 대하여 설문하였음.
- 응답결과, 일자리(근무일수)가 감소한다는 응답이 85.3%이고, 임금(일당)이 감소한다는 응답은 79.1%, 반면 노동강도가 증가한다는 응답이 68.9%이었음. 건설노동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자신의 일자리를 뺏어갈 뿐만 아니라, 임금하락 및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구 분		크게 증가	약간 증가	영향없음	약간 감소	크게 감소	계
응답 수	일자리	27	13	24	77	295	436
	(일당)	23	17	51	107	237	435
	노동강도	169	128	60	27	47	431
비 율	일자리	6.2%	3.0%	5.5%	17.7%	67.7%	100%
	임금(일당)	5.3%	3.9%	11.7%	24.6%	54.5%	100%
	노동강도	39.2%	29.7%	13.9%	6.3%	10.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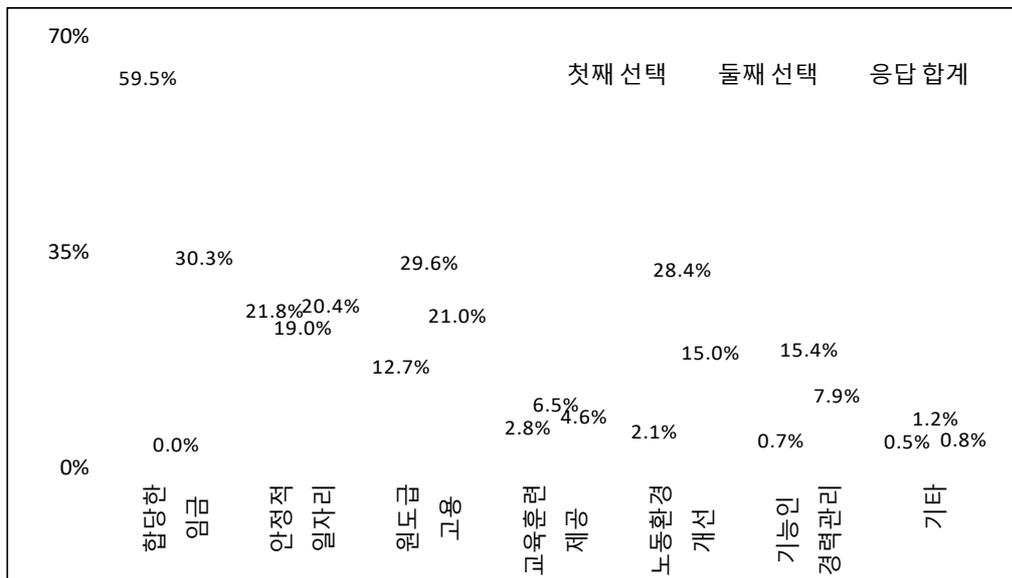
- 한편 마지막 설문문항인 <설문 31>에서 지자체의 시급한 사업과제 중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근절이 5점 척도 중 가장 높은 4.42점으로 분석되었음.

정책제안 관련

<설문 30>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능인력 유인·확대**를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요?**[2개 선택]**

- 본 설문은 기능인력 유인·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2개를 선택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선택한 번호 순서로 단순 집계하여 설문결과를 정리하였음. 첫째 선택 응답은 432명이, 둘째 선택 응답은 416명으로 합계 848개가 응답되었음.
- 전체응답자 중 첫째 선택은 ‘합당한 임금보장’이라는 응답이 59.5%(2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 선택에서는 ‘원도급 직접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이 각각 29.6% 및 28.4%의 높은 응답이 있었음.
- 응답 합계의 경우에는, 합당한 임금 30.3%, 원도급 직접 고용 21.0%, 안정적 일자리 제공 20.4%의 순이었음.

구 분		합당한 임금	안정적 일자리	원도급 고용	교육훈 련 제공	노동환 경 개선	경력관리	기타	계
응 답 수	첫째	257	94	55	12	9	3	2	432
	둘째	0	79	123	27	118	64	5	416
	합계	257	173	178	39	127	67	7	848
비 율	첫째	59.5%	21.8%	12.7%	2.8%	2.1%	0.7%	0.5%	100%
	둘째	0.0%	19.0%	29.6%	6.5%	28.4%	15.4%	1.2%	100%
	합계	30.3%	20.4%	21.0%	4.6%	15.0%	7.9%	0.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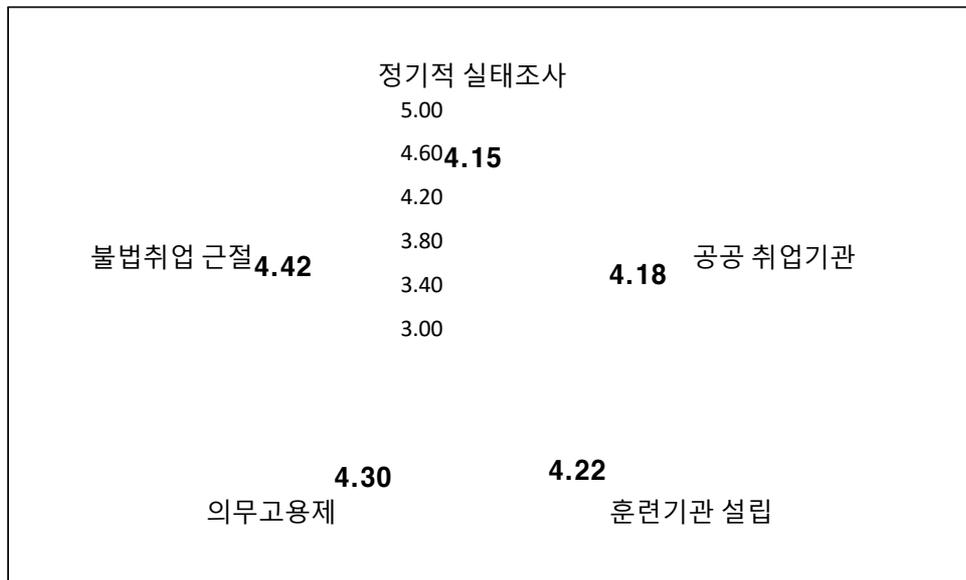
<설문 31> 아래 5가지 **각 사업들**에 대하여, 지자체(대전광역시)에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 5가지 사업 : ① 지역건설노동자 정기적 실태조사, ② 공공부문에서 취업기관 운영, ③ 기능훈련기관 설립, ④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제 도입, ⑤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 근절

[종합]

- 본 설문은 대전광역시가 추진해야할 사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로서, 응답선택은 5점 척도임.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개 단계의 척도로 구분하였음.
-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5가지 각 사업들이 모두 4점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제 도입 및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 근절 사업의 응답결과가 5점 척도의 각각 4.30 및 4.42로서 가장 높았음.

구 분	① 정기적 실태조사	② 공공부문 취업기관	③ 훈련기관 설립	④ 의무고용제	⑤ 불법취업 근절
5점 척도	4.15	4.18	4.22	4.30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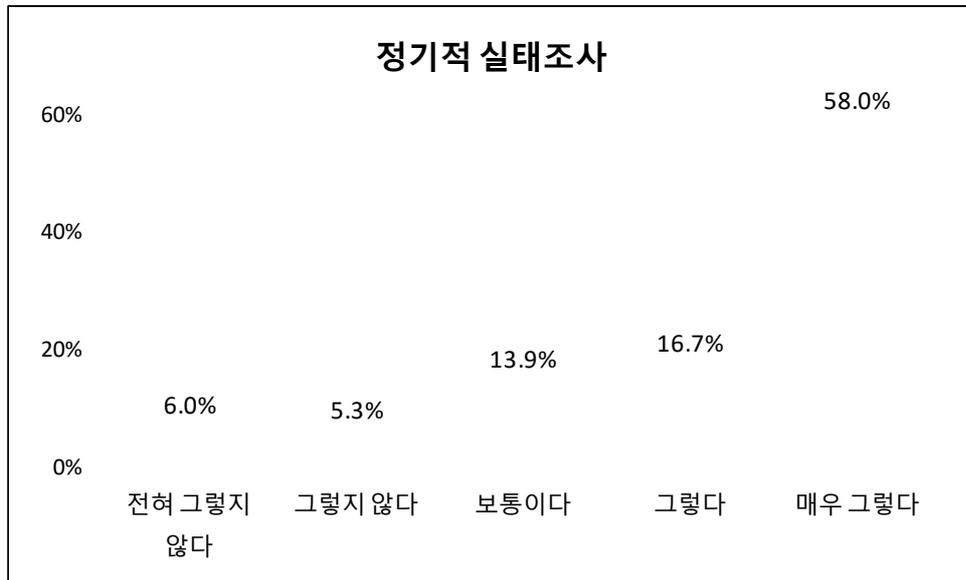
① 지역건설노동자 정기적 실태조사

-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매우 드물고, 이로 인하여 건설노동자가 정책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에서 지역건설노동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

설노동자를 정책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설문 목적임.

- 전체응답자의 대다수가 대전광역시의 정기적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그렇다) 16.7%, 매우 필요하다(매우 그렇다) 58.0%로서, 합계 74.7%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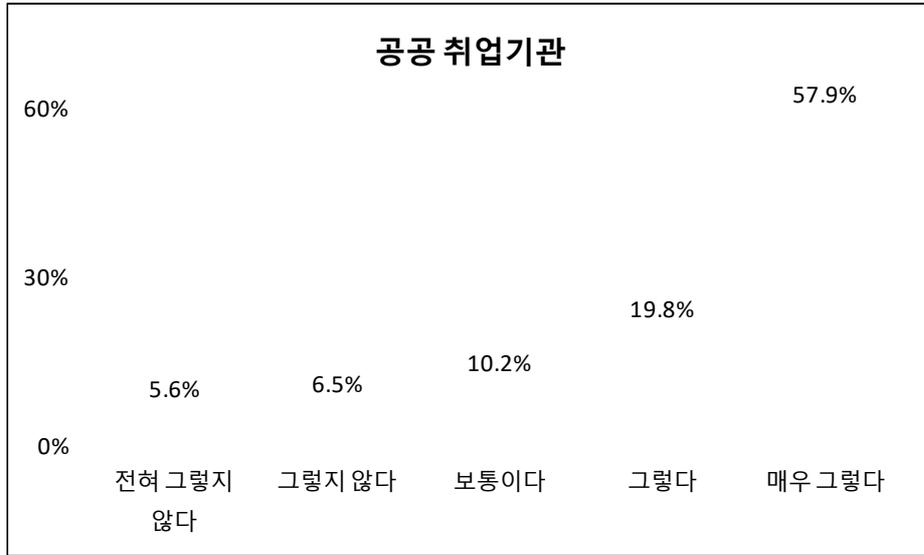
구 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응답자 수	26	23	60	72	250	431
비 율	6.0%	5.3%	13.9%	16.7%	58.0%	100%



② 공공부문에서 취업기관 운영

-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건설일용노동자를 위하여 취업기관을 운영하는 사례는 드뭄. 전술한 설문분석결과에서 보듯이, 건설노동자의 적정한 수입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임금뿐만 아니라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함.
- 이에 공공부문에서 취업기관 운영의 시급성여부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필요하다(그렇다) 19.8%, 매우 필요하다(매우 그렇다) 57.9%로서, 합계 77.7%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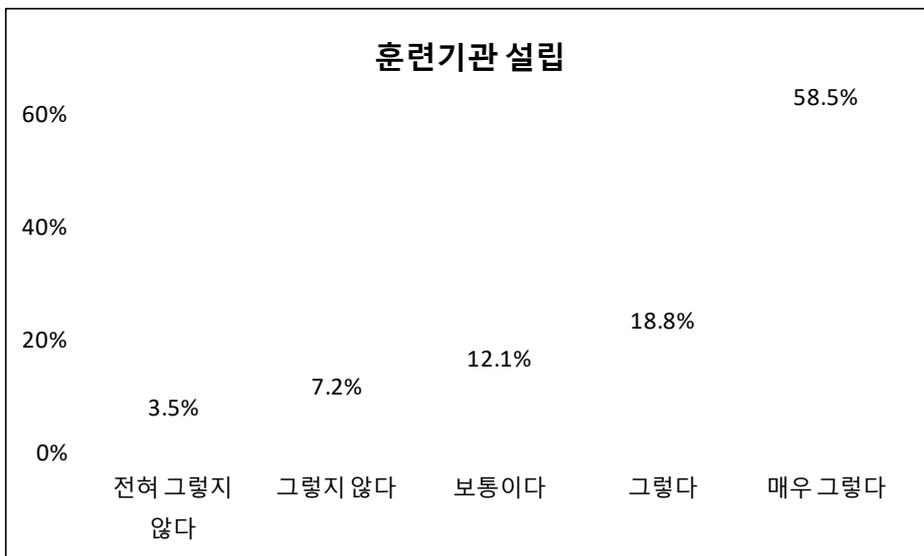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응답자 수	24	28	44	85	249	430
비 율	5.6%	6.5%	10.2%	19.8%	57.9%	100%



③ 기능훈련기관 설립

-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업기관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기반이 되는 건설기능인력 양성 또한 중대한 사안임.
- 이에 대전광역시의 기능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시급성여부 설문결과를 보면, 필요하다(그렇다) 18.8%, 매우 필요하다(매우 그렇다) 58.5%로서, 합계 77.3%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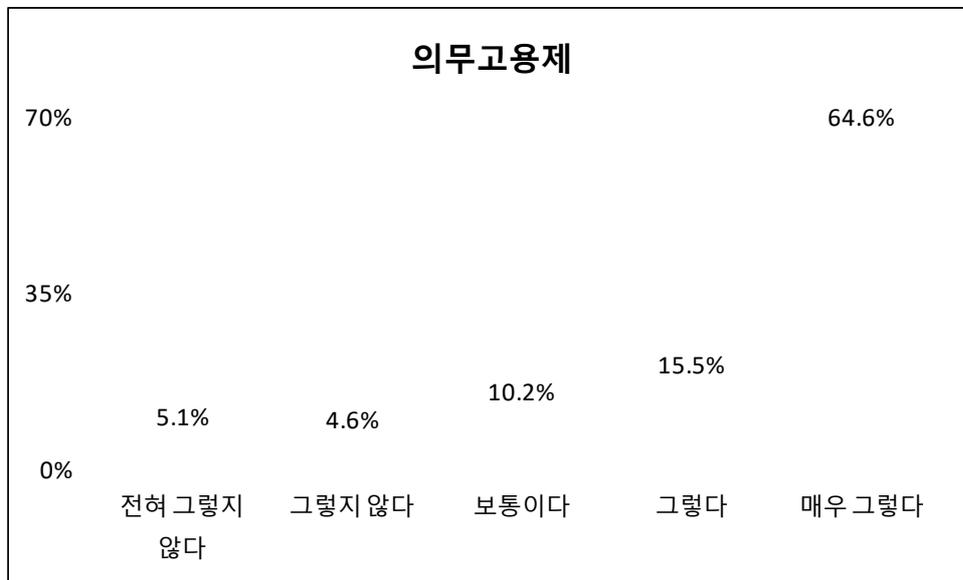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응답자 수	15	31	52	81	252	431
비율	3.5%	7.2%	12.1%	18.8%	58.5%	100%



④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제 도입

- 지자체 건설공사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최소 공동도급 비율(약 40%)을 설정하고 있지만, 지역건설노동자에 대한 최소 고용비율은 없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제 도입 및 운영의 시급성여부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필요하다(그렇다) 15.5%, 매우 필요하다(매우 그렇다) 64.6%로서, 합계 80.1%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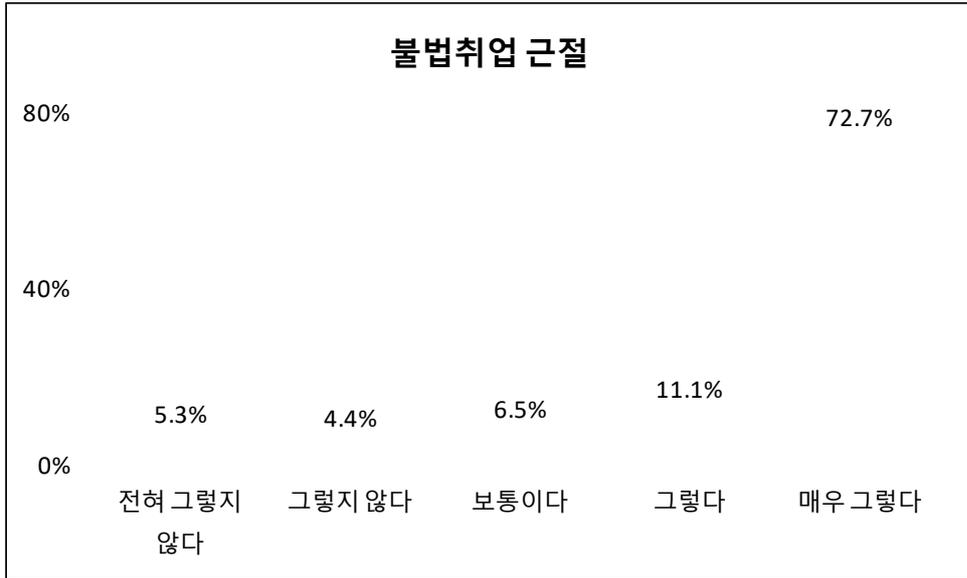
구 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응답자 수	22	20	44	67	279	432
비 율	5.1%	4.6%	10.2%	15.5%	64.6%	100%



⑤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 근절

-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임금상승 방해 및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삶을 하향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취업은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본 실태조사 <설문 27-2>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외국인력 투입정도가 약 50%로 매우 심각한 실정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 근절에 나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필요하다(그렇다) 11.1%, 매우 필요하다(매우 그렇다) 72.7%로서, 합계 83.8%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음.

구 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응답자 수	23	19	28	48	315	433
비 율	5.3%	4.4%	6.5%	11.1%	72.7%	100%



IV. 설문조사 분석결과 및 정책제안 등

1

설문조사 분석결과 정리

가. 설문응답자 일반사항

▶ 연령

- 응답자 중 50대가 4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가 32.1%로 많았음.
- 20대는 2.1%, 30대는 4.8%에 불과하여 젊은층의 건설산업 참여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건설산업 기반인 건설기능인력의 급속한 노령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의미함.
-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55.1세로 나타남. 2년 전인 2015. 10월의 전국건설노조 조사 결과의 평균연령 50.2세보다 약 5세나 많았음.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지자체별로도 건설노동자의 급속한 고령화현상을 보이고 있음.

▶ 현장경력

- 평균경력은 18.3년이었음. 경력 20~30년 28.4%, 30년 이상경력이 23.2%로서 건설현장 시작 연령을 고려할 때 은퇴시기가 임박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건설현장 시작 평균연령은 40.5세로서,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연령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음. 건설업 시작 평균연령이 높은 것은 다른 직종의 실패(또는 퇴직 등)이후 건설현장으로 진입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마련이 필요함.

▶ 최근현장

- 응답자의 68.9% 아파트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주택·상가현장도 19.3%임. 응답자 10명 중 9명(89.2%)이 건축현장에서 종사하고 있었음. 2015년부터 최근까지 민간건축시장이 급격히 증가한 때문으로 판단됨.

▶ 현재 직종

- 응답자의 경우 직종의 쏠림현상이 있음. 형틀목공이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56.4%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철근공이 30.3% 이었음. 한편 「2016 건설근로자 종합 생활 실태조사」는 보통인부(일반공)가 가장 많은 13.7%이었던 반면, 본 설문조사에서는 보통인부가 2.8%에 불과하였음.

- 응답자가 없었던 콘크리트공과 타일공은, 단절적 작업내용과 최종 마감공종의 특성으로 인하여 설문응답자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

▶ 작업능력 수준

- 기능공 66.4%, 팀장·반장 11.6% 이었음.
- 일반공(보통인부)의 응답자가 적은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는 우리나라 건설현장이 기능공 위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조공이나 기능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반공 부족은 건설현장으로의 신규진입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부양가족수 및 주거형태

- 본인을 제외한 평균 부양가족수는 2.5명임.
- 주거형태는 절반이상인 53.6%가 자가로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중장년층이 많아 이들 대부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빛

- 빛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39.6%인데, 이는 반대로 60% 정도가 빛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평균 빛 규모는 3,594만원임.
- 빛 원인에 대해서는 중복응답이 다수 있었으며, 설문작성시의 예상대로 주거비 및 생활비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생활비를 원인으로 응답한 것은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소득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응답자가 상당하는 것을 의미함.

나. 임금 및 수입관련

<설문 1-1 및 1-2>

- 현재 거주지가 대전지역이라는 응답자가 76.4%로서 거의 대부분이었음. 대전지역 응답자의 응답결과가 전체 응답내용 결과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음. 즉 전체 응답결과와 대전지역 응답결과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바, 전체

응답결과를 대전지역 거주자 응답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설문응답자 중 주된 작업현장이 대전지역이라는 응답은 22.8% 뿐이고, 오히려 세종 및 인근지역이 70.9%로 가장 많았음.
- 대전지역 위치의 낮은 작업현장 비율로 볼 때, 광역시 자체적으로 일자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설문 2 내지 4>

- 응답자의 95.8%(=90.4%+5.4%)가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의미함.
-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는 매일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가장 열악한 직종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로 인식되는 비정규직(이들의 임금은 월급제임)보다도 더 열악한 일자리임을 알 수 있음. 그렇다면 건설노동자에 대한 대책 또한 일용노동자에 대한 대응책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일용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응답이 57.8% (대전지역 거주자는 63.2%로 다소 높음)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임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44.0%가 노동조합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설문 3>의 임금결정 방식의 노동조합 단체협약보다는 다소 낮았음. 기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는 응답이 36.4%로서,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었음.
- 참고로 대전지역에서 건설현장 기능수준은 양성공, 조공, 준기능공, 기능공 및 팀·반장의 5가지 분류하고 있음.

<설문 5-1>

- 하루 작업시간 및 일당에 대한 설문응답임.
- 작업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일당은 18~18.5만원 39.1%, 19~19.5만원 35.2%로서 약 75%가 18~20만 원 정도 일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시중노임단가와 같이 8시간 기준으로 직종별 일당을 환산하면, 철근공 17.4만원, 건축목공 16.5만원, 형틀목공 16.2만원, 미장공 17.4만원이었음.
- 설문조사 일당과 설계공사비로 활용되는 시중노임단가(2017년 하반기)와 비교하였음.
 - 설문조사 일당과 시중노임단가(㉔)를 작업시간 고려없이 단순비교하면, 설문조사 일당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대부분 높았음.

- 그러나 8시간으로 환산한 설문조사 일당(㉠)은 보통인부와 미장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았음. 이는 외형상 건설현장의 일당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 일당기준인 8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일당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하겠음.

구 분		형틀목공	건축목공	철근공	배관공	용접공	전공	미장공
일당	13.1	17.9	18.4	19.5	13.5	15.0	15.0	18.4
8시간환산 일당 ㉠	11.3	16.2	16.5	17.4	12.2	14.2	12.9	17.3
시중노임단가 ㉡ (2017년 下)	10.7	17.9	16.9	18.0	14.3	16.3	19.1	17.0
비율 (㉠÷㉡×100%)	106%	91%	98%	97%	85%	87%	68%	102%

<설문 5-2>

- 본 설문은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때, 평균 월급액에 대한 설문이였음.
- 월평균 임금이 300~400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51.0%), 평균월급은 339.3만원으로, <설문 5-1>의 월평균 수입 333만원과 비슷함.

<설문 6 및 7>

- 8시간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지급받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9.1%로 거의 절반에 해당함. 건설노동자는 절대다수가 일용직이다보니 책정한 시간에 대한 일당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주말작업이라하여 일당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됨.
- 2016년도의 임금수입에 대하여는 2~4천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임금수입은 2,827만원임. 6천만 원 이상 임금수입 응답자는 6명에 불과하였는데, 직종은 형틀목공과 철근공이었음.

다. 임금등락 및 복지제도 관련

<설문 8 및 9>

- 현재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설문항목임.
- 만족한다는 응답은 14.2%(매우만족 2.2%, 만족 12.0%)이고, 반면 불만족하다는 응

답은 55.3%(불만족 40.0%, 매우불만족 15.3%)로서, 4배 정도의 차이가 있음. 대전 지역 거주자의 불만족 응답비중이 조금 더 높았음.

- 적절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평균 4.4만 원 정도는 높아져야 한다는 응답이었음. 평균 인상금액 4.4만원은 <설문 5-1>의 평균임금 18.0만원의 24%에 해당됨. 응답예시를 인상비율이 아닌 인상금액으로 제시하다보니, 단체협약시 약 1만 원 정도 인상에서 합의되는 수준이 고려되어 2만원 정도 인상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던 것으로 판단됨.

<설문 10 내지 11-2>

- 약 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임금이 어느 정도로 인상되었는지에 대한 설문임.
- 평균 임금인상률은 9.6%로서, 년평균 인상률이 2%에 약간 못 미침. 이러한 임금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서, <설문 8> 등의 임금관련 설문내용에 대하여 높은 불만을 표시하는 응답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설문 11-1>은 다른 설문문항과 달리 복수응답이 일부 있었음. 임금인상이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응답이 63.6%로 가장 많았는데, 비조합의 경우에도 노조 단체협약의 결과로서 임금(일당)이 인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됨. 기타 응답으로는 '물가상승'이란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임금이 인상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임금인상된 것이 아니라는 응답내용으로 이해됨.
- <설문 11-2>는 임금이 원하는 수준대로 인상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설문임. '외국인력 유입'을 임금이 인상되지 못한 압도적 원인으로 응답하였음. 그 다음으로 일자리 부족을 임금 미인상 원인으로 응답하였는데, 불법취업자들에게 건설일자리가 불법적으로 넘어가서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외국인력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설문 12>

- 퇴직공제부금의 가입 응답률은 77.0%, 고용보험 가입응답률은 71.9%, 산재보험 가입응답률은 71.3% 이었음. 이들 3가지 제도는 건설노동자에게 직접적 가입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률 응답이 나온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직장가입 응답률은 각각 26.4% 및 21.1%로서 매우 낮았음.

라. 고용 및 기능훈련 관련

<설문 13 내지 15>

- 일용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료소개소(노동조합)이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53.1%이고, 그 다음으로 전통적인 방식인 개인적인맥(탐·반장)이 36.9%로 여전히 높았음. 이는 후술하는 <설문 18>의 구직이 어려운 원인과 비교할 수 있는데, 일용노동자들이 인맥을 통하지 않고서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정책방안 필요성을 의미함.
- 실제 소속에 대한 응답에서는 하도급업체 소속이 77.3%이고, 도급팀(탐·반장)이 13.6%인 반면 원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하였음. 즉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철저히 하도급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재차 알 수 있음. 한편 도급팀은 음성적 재하도급에 해당되는바, 건설현장 불법재하도급에 대한 조치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최근 근무한 건설현장은 평균 1.8개 이었고, 절반이상이 2개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응답함.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이 일당방식으로 일자리를 얻다보니, 잦은 현장이동이 발생하고 있었음. 이를 1년으로 단순환산하면 약 10.6개 현장으로 옮겨다니는 것임.

<설문 16>

- 설문응답자의 연평균 작업일수는 222.4일로서 월평균 18.5일 이었음. 월별로 보면 4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19일보다 많은 반면, 동절기(12월~2월)는 평균에 훨씬 밑돌아 전체 작업일수 하락의 주원인이었음.
- 한편 3월의 월평균 작업일수가 17.5일에 불과하였는데, 2017년 3월의 경우 세종시 지역의 자재공급 수급불균형으로 작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이 일당방식으로 일을 하다보니, 현장의 공정차질이 곧바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됨. 참고로 대전지역 거주자의 대부분이 세종시 등 인근지역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설문 1> 및 <설문 2> 참조).

<설문 17 및 18>

- 예년과 비교한 근무일수가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4.3%이었으나, 반면 예년보다 줄었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한 51.8% 이었음.
- 이에 구직이 어려운 원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력 선호 58.7%, 건설경기 하락 14.9%, 고령화 13.4%로서, 외국인력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경

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 아울러 구직이 어려운 원인으로 구직정보 부족 3.3%, 인맥단절 3.0%로서 무료취업지원센터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설문 18>에 대하여 1개 선택이 아닌 복수응답이 일부 있었는데, 구직이 어려운 원인을 1가지로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료됨.

<설문 19-1 및 19-2>

- 건설현장 이외의 직종 근무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0명 중 6명꼴에 해당하는 59.7%가 다른 직종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건설현장에서 40대 이상의 신규진입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건설현장은 실직한 40대 가장들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고, 진입과 아울러 이탈 또한 자유롭기 때문에 판단됨.
-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건설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를 설문하였음. 응답결과 90.6%가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낮은 사회적인식과 달리 건설현장으로 진입한 일용노동자들의 정주인식이 높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음.
- 한편 구체적 원인에 대한 설문이 없었기에 응답근거를 추정해 보았는데, 별도의 기능이 없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수입이 가능한 점, 외형적으로 일당이 낮지 않은 점, 주중 휴식기간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자유로운 점 등으로 추정됨.

<설문 20-1 및 20-2>

- 기능훈련을 받은 응답자는 14.9%에 불과하였는데, 여전히 건설현장에서의 기능전수가 개별적 인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능인력의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건설노동자의 최종 소비자인 건설업체들이 기능인력 양성에 거의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3년 이내에 기능훈련을 받은 횟수는 1~2회가 대부분으로 기능훈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설문 21 및 22>

- 기능훈련의 효과로 기능향상 33.3%, 일자리증가 28.3%로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응답결과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음. 한편 기능훈련이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23.3%로 매우 높게 나왔는데, 기능훈련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라도 내실화 및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함을 의미함. 참고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16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는 응답자의 35.4%가 필요없음이라고 응답하였음.

- 기능훈련 직종에 대하여는 형틀목공 40.7%, 철근공 25.5%로서 일반사항 설문주직종의 분포와 비슷하였음. 응답자의 9.5%는 특정 직종에 대한 선호가 없었음.
- 기타응답으로 방수공, 한옥, 인테리어 및 내장 등 다양하였음.

<설문 23>

- 고용불안 정도에 대하여 불안하다라는 응답이 67.8%(불안한 편이다 34.5% + 매우 불안한 편이다 33.3%)로서, 불안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10.0%(전혀 불안하지 않다 3.4% + 불안하지 않다 6.6%)의 7배 정도로 높았음.
- 본 설문응답결과를 5점 척도로 산정한 결과, 3.9점으로서 매우 불안한 상태에 근접되어 있었음.

마. 건설기능인력 및 외국인노동자 관련

<설문 24 및 25>

- 건설기능인력 숙련공이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84.2%로서 압도적으로 많았음. 이러한 응답결과는 <설문 17>의 일자리 관련 응답결과와는 상반되는 현상임. 일용노동자들은 기능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가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것임.
- 기능인력 부족은 임금과 연동될 것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개별 건설현장에서는 기능공 일당이 적지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능공이 부족하다보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임금이 낮아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때문에 기능인력 스스로도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임.
- 현실적으로 일용노동자들은 기능인력이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92.0%(= 38.1%+ 53.9%)로 여전히 압도적이었음.
- 본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건설기능인력 부족이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건설현장에서 기능을 습득한 기능공에 대한 수요 및 임금을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음. 이에 대

한 대책으로 기능공양성 및 젊은층 유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에도, 건설업계 일각의 요구처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인원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건설업계 공멸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서 합당한 대책이 되어서는 아니됨.

<설문 26>

- 기능인력 감소 원인에 대한 설문항목으로, 1개 선택을 요청하였으나 응답자의 1/4정도가 중복응답을 하였음.
- 그럼에도 외국인노동자 대체가 기능인력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51.7%), 반면 낮은 수입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응답은 8.5%에 불과하였음. 내국인 기능인력이 젊은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경쟁을 하다보니, 내국인 기능인력이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임.

<설문 27-1 및 27-2>

- 내국인 기능인력 감소원인에 대한 설문에 연이어 외국인력의 유입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
- 외국인력 유입 정도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늘었다 70.7%, 어느 정도 늘었다 17.1%로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외국인력 유입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이러한 응답결과는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반면 외국인력 유입이 비슷하다거나 줄었다라는 응답은 매우 미미하였음.
- 외국인력 투입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전체 출력인원 대비 투입율이 높다는 응답비율이 같이 증가하는 동조화를 보이고 있음. 특히 70%이상 응답이 31.8%로 가장 높은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판단됨.
 - * 응답결과 : 없음(4.5%) → 10%미만(6.9%) → 10~30%(16.8%) → 30~50%(14.9%) → 50~70%(25.1%) → 70%이상(31.8%)
- 설문응답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외국인력 투입비율을 추정한 결과, 전체 출력인원의 50.2%가 외국인력이었음. 1개 현장 100명의 출력인원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50명이 외국인력이라는 추정치임. 외국인력 중 합법취업자가 최대 10만명(이론상 6.7만명임) 정도라 하더라도, 불법취업자가 취업자수 통계에 누락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추정치는 최소 50만명에서 최대 100만명까지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임.

<설문 28 및 29>

- 외국인력 선호이유에 대하여는 2개 선택으로 설문하였으나, 그 이상의 중복응답

이 일부 있었음. 첫째 응답에서는 젊은 나이가 4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순응도가 29.5% 이었음. 둘째 응답에서는 낮은 임금이 압도적인 90.2%로 높았음. 합계 응답 831개로 분석한 결과 역시 낮은 임금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젊은 나이 24.9% 및 높은 순응도 17.7%로 이들 3가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음.

- 건설현장은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산업부문인데, 이에 대하여 내국인 일용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영향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음. 응답 결과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가장 심각하였고, 임금에 대한 부정적평가 역시 높았으며, 노동강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일자리는 비숙련공인 외국인노동자에 의하여 가장 쉽게 잠식당하는 일자리이나, 법과 제도를 관장하는 입법부 및 행정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정치인과 공직자 일자리들은 외국인노동자가 합법적으로라도 침해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더구나 불법적 잠식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현장 불법취업자에 대한 대응책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바. 정책제안 관련

<설문 30>

- 건설기능인력 유인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하여는 2개 복수응답으로 설문하였음. 첫째 응답에서는 합당한 임금이 5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안정적 일자리가 21.8% 이었음. 둘째 응답에서는 원도급 직접고용이 29.6%로, 다음으로 노동환경 개선이 28.4% 순이었음. 합계 응답 848개로 분석한 결과 합당한 임금 30.3%, 원도급 직접고용 21.0%, 안정적 일자리 20.4%,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이 15.0%로서 두자리 비율을 차지하였음.
- 복수응답에 있어서도 노동환경 개선을 높게 응답한 것은 일용노동자의 요구가 상향되었다는 점과 아울러 여전히 건설현장의 열악한 노동여건이 개선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설문 31>

-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자체(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5가지(① 지역건

설노동자 정기적 실태조사, ② 공공부문에서 취업기관 운영, ③ 기능훈련기관 설립, ④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제 도입, ⑤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 근절)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하였음.

- 설문응답결과를 5점 척도로 비교하면 제시한 5가지 사업 모두가 4점을 상회하였는데, 이는 모두 매우 필요하다는 결과이었음. 그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자 근절(4.42점)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제 도입(4.30점) 또한 높았음. 5점 척도가 가장 높은 2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일자리 보장과 직결되는 사업임.

2 본 설문조사의 의미 및 정책제안

가. 설문조사 배경

- 금번 설문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정분야인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로서의 의미가 큼.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다른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음.
- 한편 전국단위의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실태조사가 간헐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지만, 전국단위 실태조사는 특정지역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는 제한이 있을 것임.
-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그나마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는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면서 매일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가장 불안한 일자리임.

나. 설문조사결과와 시중노임단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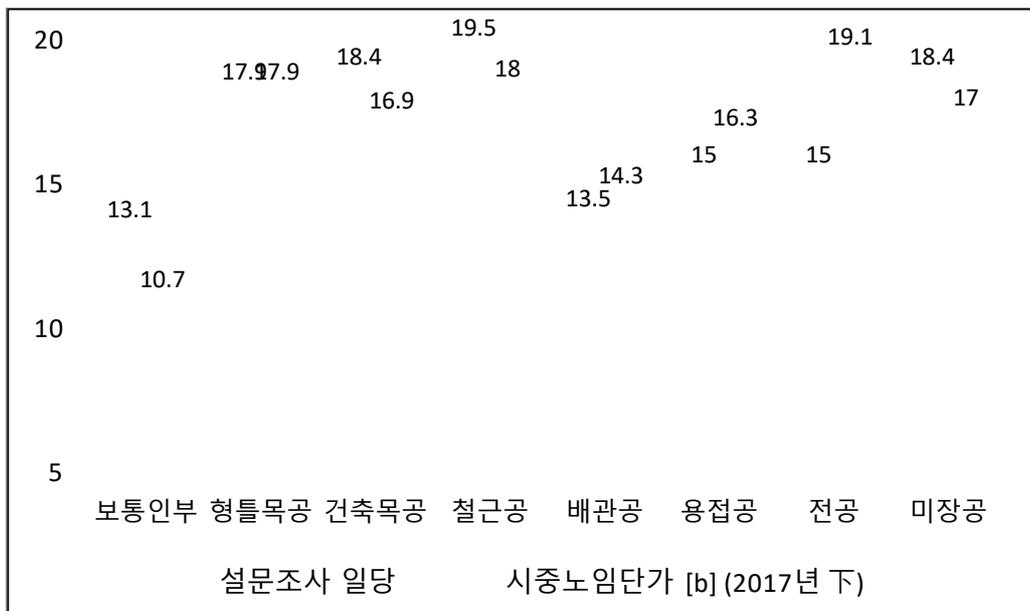
- 금번 설문조사 결과,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평균연령, 연평균 수입 및 월평균 작업일수는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음.

구 분	평균연령	연평균 수입	월평균 작업일수
건설일용노동자	55.1세	2,827만원	18.5일
	응답자 일반사항 가.	<설문 7>	<설문 16>

- 본 보고서 중 IV. 1. 나. 임금 및 수입관련 설문분석에서 정리된 직종별 노임(8시간 환산액은 일당)과 대한건설협회가 년 2회 발표하는 현행 시중노임단가와 비교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비교결과, 배관공과 용접공을 제외한 설문조사 임금이 시중노임단가(17 하반기)보다 대부분 높았음. 하지만 설문조사 임금은 대부분 하루 작업시간 8~9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 기준인 시중노임단가보다 높게 형성된 것으로 사료됨.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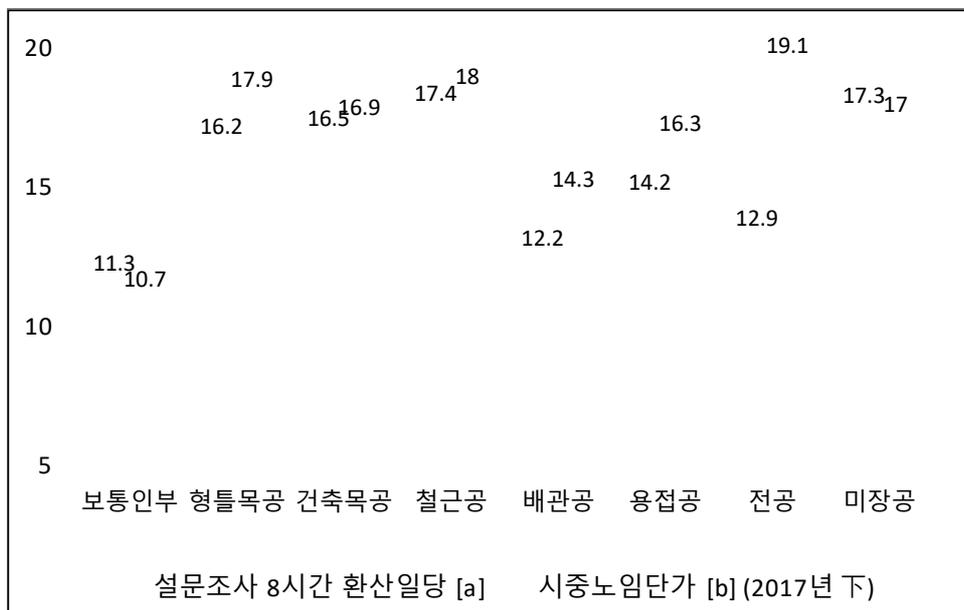
구 분		형틀목공	건축목공	철근공	배관공	용접공	전공	미장공
일당	13.1	17.9	18.4	19.5	13.5	15.0	15.0	18.4
시중노임단가 [b] (2017년 下)	10.7	17.9	16.9	18.0	14.3	16.3	19.1	17.0
비율 (설문÷[b]×100%)	122%	100%	109%	108%	94%	92%	79%	108%



- 상기와 같이 설문조사 임금과 시중노임단가는 다소 상이한 분포로 이루어져 있음. 최근 적정임금제 도입과 관련한 이슈 중 하나로 지역별 임금체계 구축이 언급되고 있는데, 위 비교표에서 보듯이 대전지역 임금과 전국 평균인 시중노임단가에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음.
- 설문조사 임금을 1일 8시간으로 환산[a]하여 시중노임단가[b](17 하반기)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실태조사 임금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단위 : 만원)

구 분		형틀목공	건축목공	철근공	배관공	용접공	전공	미장공
일당	13.1	17.9	18.4	19.5	13.5	15.0	15.0	18.4
8시간환산 일당 [a]	11.3	16.2	16.5	17.4	12.2	14.2	12.9	17.3
시중노임단가 [b] (2017년 下)	10.7	17.9	16.9	18.0	14.3	16.3	19.1	17.0
비율 [a]÷[b]×100%)	106%	91%	98%	97%	85%	87%	68%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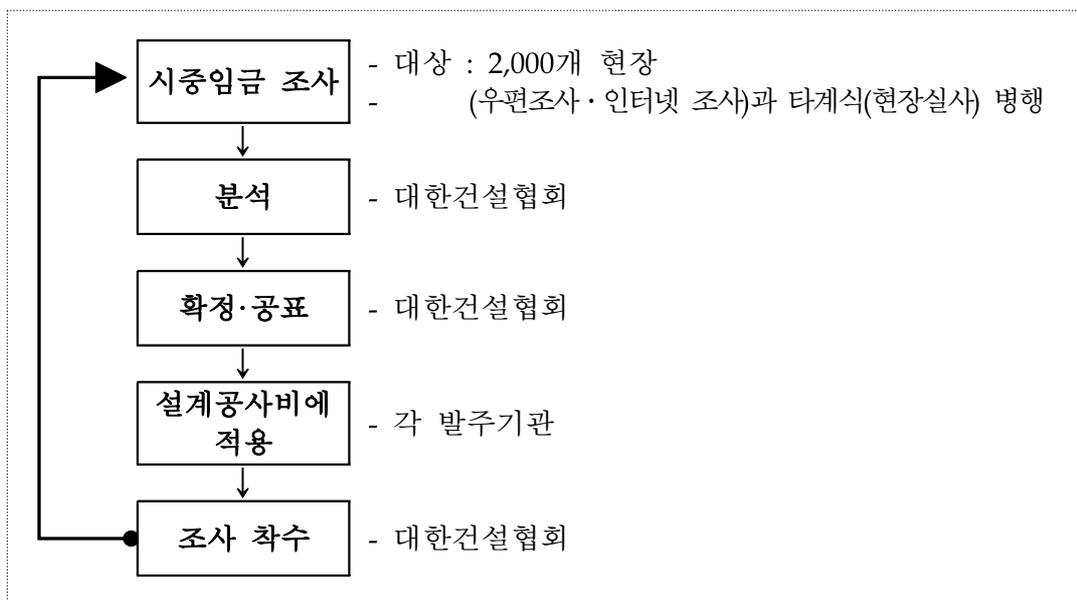
다. 정책제안

건설현장은 청년실업 해소 및 40대 가장들의 최후 보루로서, 추가적 비용투입 없이도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부문임. 이에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건설현장을 일자리정책의 중대한 한 분야로 설정하고, 건설현장이 높은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노동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함. 만약 대전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건설현장을 일자리정책부문으로 이끌어간다면,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시너지효과를 수반하여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유도할 것으로 판단됨.

본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대전광역시의 정책대안으로 후술하는 네 가지 정도의 정책방안을 제시함. 먼저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지급여부 확인·감독, 취업지원센터 및 기능훈련학교 설립·운영, 그리고 가장 시급한 정책제안으로 조사된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불법적 일자리잠식 근절의 정책제안임.

(1) 시중노임단가의 실제 지급여부 확인·감독

- 정부발표의 시중노임단가는 설계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때문에 시중노임단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함. 시중노임단가에 대한 조사과정을 보면, 2,000개 현장에 대한 직접 조사하여 작성되고 있음을 볼 때, 금번 임금실태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해야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임.
- 금번 대전광역시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1일 8시간으로 환산한 일당의 경우 시중노임단가와의 편차가 ±10%에서 위치하고 있었음. 이는 아마도 전국 평균임금인 시중노임단가와 달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일용노동자 임금을 조사하여 다소 편차가 있었다고 판단됨.
- 현재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조사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은데, 이 때 두 가지 ① 시중노임단가가 설문조사 일당보다 낮은 경우와 그 반대인 ② 시중노임단가가 설문조사 일당보다 높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먼저 ①의 경우는 달리 문제가 되기는 어려움. 실제 현장에서 지급되는 일당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높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경우 해당 직종의 조사

노임은 상승되어질 것임. 반면 ②의 경우처럼 시중노임단가보다 실제 현장에서 지급되는 일당이 더 적다면, 협회에서 조사한 노임이 실제보다 과다 책정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음.

- 매년 2회 공표되는 시중노임단가는 통계청 승인통계로서 대한건설협회가 2,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식적인 노임 정보로서, 설계공사비 산정에 사용되고 있음. 그렇다면 대전광역시가 발주한 사업장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대로 노임이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되어야 함. 임금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저가의 불법취업을 근절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임금지급 하한기준으로 기능토록하여 일용노동자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유도할 것임.

(2) 무료취업지원센터 설립·운영

- 금번 설문조사는 일자리와 관련된 조사항목이 다수 있음.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또한 임금노동자이므로, 임금수입이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음. 일용노동자의 임금수입은 작업일수와 하루 일당으로 곱으로 산정됨.
- 작업일수(일자리) 관련 설문항목은 <설문 13>의 일자리 경로, <설문 16>과 <설문 17>의 월평균 작업일수 및 예년대비 근무일수, <설문 18>의 구직이 어려운 원인, <설문 23>의 고용불안 정도 및 <설문 29>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영향 등 다각적 항목으로 알아보았음.
- 먼저 일자리 경로는 무료직업소개소와 노동부 워크넷이 각각 53.1% 및 3.9%로 약 60%에 육박하나, 그 외 40%정도는 개인적 인맥이나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자리를 얻는다고 응답하여 건설노동자의 상당수가 일자리 확보에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53.1%가 무료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자리를 얻고 있다고 하나, 응답자의 대다수가 고용불안이 불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안정적이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설문 31>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공공취업기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었음. 한편 공공취업기관의 운영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제 및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근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용노동자들의 응답결과임.
- 특히 팀·반장 인맥이 없는 청년층을 건설현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능의 무료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료됨.

(3) 건설기능훈련학교 설립·운영

- <설문 4>에 따르면 임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노동조합을 제외하면 ‘자신의 기능’이라는 응답이 36.4%로 두 번째로 높았음. 기능정도가 임금 결정에 실질적 요인임은 분명함.
-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건설기능인력 양성방식은 건설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체계적인 훈련기관이 매우 드문 실정임. <설문 20> 내지 <설문 22>는 기능훈련과 관련된 설문문항인데, 최근 3년 이내 기능훈련을 받은 경험자가 14.9%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기능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23.3%가 효과없음이라고 응답하였음. 이는 기능훈련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더라도 기능향상을 통한 임금인상 및 일자리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기관 설립·운영이 필요함을 의미함. <설문 31>의 응답결과에서도 기능훈련기관 설립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고 시급하다는 응답하였음.
- 특히 기능훈련학교는 40대 실직 가장들의 재취업훈련기관으로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대전광역시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필요함.

(4)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불법적 일자리잠식 근절

- <설문 29>는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일용노동자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문항인데, 응답결과를 보면 일자리가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85.4%(약간 감소 17.7% + 크게 감소 67.7%)로서 건설현장에서 느끼는 외국인노동자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현재 합법 외국인 노동자는 건설업 취업등록제(H-2) 최대 5.5만명 및 고용허가제(E-9) 최대 1.2만명의 합계 6.7만명에 불과하고, 금번 설문에서처럼 내국인 일용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외국인노동자는 합법이 아닌 불법취업자를 가리키는 것임.
-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자체(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5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설문응답결과를 5점 척도로 비교하면 제시한 5가지 사업 모두가 4점을 상회하였음. 특히 그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자 근절(4.42점)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제 도입(4.30점) 또한 높았는데, 이는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이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가장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임. 아울러 지금까지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일용노동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용노동자들을 지속적 정책대상으로 삼아야 함.
- 40대 가장의 재취업직군인 건설현장이 불법취업자들로 인하여 일자리가 잠식된다면, 이것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음. 불법취업 근절은 곧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는바, 내국인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잠식당하지 않도록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해야 함.

<부록>

- #1. 대전지역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실태조사 설문지
- #2. 2016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건설근로자공제회)
- #3. 제3차('15~'19)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 #4. 2017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대한건설협회)_시중노임단가

